

# scuba diver

2017. 7/8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다이빙 기술  
조류/표류 다이빙 스페셜티  
(Drift Diving Specialty)

강영천 박사의  
잠수의학 Q&A

다이빙 법률  
다이빙 투어에 있어 타인의 명예

독자 참관기  
BSAC 대학생 ITC

독자 투어기  
하와이(Hawaii)  
코모도섬(Komodo)  
시파단(Sipadan)  
츙(Chuuk)  
울진 나곡수중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7

Indonesia East Kalimantan  
**Derawan Is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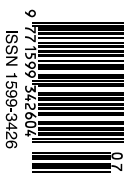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 데라완제도

Northern Mariana Islands

**Saipan / Tinian**

북마리아나제도 · 사이판/티니안

전자잡지 보기



정가 12,000원



**Crystal View Optical Glass Lens**  
**Anti Reflective**  
**UV Lens Treatments**  
**Chrome Coating Frame**

M-19SY

BCJ-4000C BLACK

**Advanced Weight Loading System**  
**Independent Harness System**  
**Ultimate Stabilizing Harness**  
**Active Purge Assist System**  
**Attached Titanium Knife**



**TUSA**



# READY, SET, DIVE.

**VTX** OLED  
BLUETOOTH  
WIRELESS

**OCEANIC**<sup>®</sup>

Before Atomic there was no

**"Best"**

in scuba diving.

**ATOMIC**  
*AQUATICS, INC*



# ICON HD AIR BLACK EDITION



## CENTER OF INTELLIGENCE. EDGE OF PERFORMANCE.

- 새로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가독성 극대화
- 야간 모드 옵션
- 수중메뉴로 다이빙 도중 환경설정
- 갑압 다이빙 플래너

Be intelligent.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http://www.mares.co.kr)

**mares**  
just  
add  
water

QUAD (쿼드)



# CENTER OF INTELLIGENCE. EDGE OF PERFORMANCE.

- 부수적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화면 구성
- 사용하기 쉬운 4개의 버튼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직관적 유저 인터페이스
- 멀티 가스 가능
- 다이빙 플래너 기능
- 배터리 수명 연장

**mares**  
just  
add  
water

[www.mares.co.kr](http://www.mares.co.kr)

한국형 마스크  
X-뷰 리퀴드스킨



# CENTER OF VISION. EDGE OF PERFORMANCE.

한국인의 얼굴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한 마스크

편안함과 환상적인 스타일이 공존하는 곳. 마레스 리퀴드스킨 기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리퀴드스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주는 제2의 피부 같습니다. 커다란 렌즈는 우리가 바라던 넓은 시야를 선사합니다. 착용하시는 즉시 넓은 시야가 펼쳐집니다.

Be visionary. Take the edge of performance.

[www.mares.co.kr](http://www.mares.co.kr)

**mares**  
just  
add  
water

# UNPARALLELED COMFORT COMPACT TRAVEL

## 재봉선 없는 어깨끈



-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특별한 어깨패드와의 조합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
- 무게를 줄여주는 알루미늄 D링

## 접이식 백팩



- 편안함, 가벼움, 사이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생체공학적 백팩
- 최고의 안정감 제공, 접으면 사이즈 30% 감소
- 벌집구조로 다른 백팩보다 40% 가벼움

## MRS 플러스



-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웨이트 시스템
- 한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된 웨이트 포켓
- 손잡이를 당기면 웨이트가 빠르게 풀림



## 하이브리드(HYBRID)

- 접이식 백팩
- 최대 슬림한 배기밸브
- 상상할 수 없는 착용감

하이브리드는 Mares BC 개발의 정점입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하네스와 블레이드, 재봉선 없는 어깨끈과 백팩 날개부분의 특별한 어깨패딩이 Mares 하이브리드 BC에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착용감, 안정감, 가벼움을 제공합니다.


Beyond innovation.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mares**  
just  
add  
water



be Original, be 

# AQUABIONIC  
THE MOST EFFICIENT FIN IN THE WORLD



FACEBOOK.COM/BEUCHATDIVING

DESIGNED IN FRANCE  
SINCE 1934

**BEUCHAT**   
INSPIRED BY THE SEA SINCE 1934

 **해왕 KMG Sports**  
Underwater Diving

Tel 02 362 8251-2 / Fax 02 364 9665 / www.kingsports.co.kr

*Bism*  
Legend of Bism

DIVE  
DEMO  
SOLIS  
TITANIUM **4G**



Type A



Type G

 **해왕 KMG sports**  
Underwater Strong

Tel 02 362 8251-2 / Fax 02 364 9665 / [www.kingsports.co.kr](http://www.kingsports.co.kr)

**aquaz**<sup>®</sup>

THE GREATEST SUIT EVER MADE



**PREMIUM DIVING GEAR**  
[www.aquaz.net](http://www.aquaz.net) / [www.badagang.com](http://www.badagang.com)

부산본사 TEL.051.621.6003 FAX.051.621.6004 서울지사 TEL.02.6263.2293 FAX.02.6263.2294



Using The Finest Materials,  
Workmanship and Design  
Keeping Divers Dry and Warm  
Since 1986

**aquaz**<sup>®</sup>

**PREMIUM DIVING GEAR**

[www.aquaz.net](http://www.aquaz.net) / [www.badagang.com](http://www.badagang.com)



Aquaz, Tested and Proven  
In The Toughest Conditions  
In The World.

# CONTENTS

JULY/AUGUST 2017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통권 180호  
Bi-Monthly Dive Magazine 『scuba diver』



Front Cover © 구자광

## 13층탑

13명의 다이버들이 동시에 일제히 호흡 보조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는데 대구 맨드스쿠버 팀은 단합이 잘 되어 성공적인 촬영을 할 수 있었다.

## Tour

- 72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Northern Mariana Islands  
Saipan/Tinian**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티니안**
- 94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Indonesia East Kalimantan  
Derawan Islands**  
인도네시아 동부 깔리만탄 지역에 위치한  
**데라완제도**
- 158 다이빙투어 정보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투어 안내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해외 다이빙 여행지
- 170 다이빙투어 정보  
다이빙 여행지의 항공편
- 172 다이빙투어 상식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 상식

# 아프니아 인스팅트 & 인피니티 수트



## CENTER OF POWER. EDGE OF PERFORMANCE.

- 새롭게 재단된 편안하고 우수한 착용감
- 높은 보온 효과 및 압축 네오프렌 사용
- 강화된 무릎 패드/후드 부착
- 신속한 고정이 가능한 견고한 더블 라인의 비버 꼬리 형태의 크로치 스트랩

- 프리다이빙 하는 동안 새로운 유연한 네오프렌은 유체역학을 증가시킴
- 우수한 탄성, 높은 보온성 및 저항력 있는 압축
- 네오프렌의 특별한 보호는 찢김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킴
- 지퍼와 팔 안쪽 부분 베이스 위에 울트라스트레치 판



44

## Marine Life + Ecosystem

---

- 66 데이비드와 케빈의 수중생물 탐구  
Monster Worm-The Bobbitt Worm Story  
괴물 벌레-보빗 웜

## Medicine + Law

---

- 118 다이빙법률  
다이빙 투어에 있어 타인의 명예
- 174 강영천 박사 Q&A 잠수의학

## Photo + Video

---

- 44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 52 수중사진작가 소개  
Erick Higuera(Mexico)



52

## Editorial + Column Interview

---

- 36 시와 사진  
바다
- 120 생활오염으로부터 우리 몸 지키기 ④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다
- 122 독자 참관기  
2017 BSAC 대학생 강사교육과정(ITC) 참관기
- 126 독자 투어기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Hawaii
- 136 독자 투어기  
2017년 인도네시아 코모도섬  
PANUNEE 리브어보드에서 100회 기념 다이빙을...
- 144 독자 투어기  
시파단 투어후기
- 148 독자 투어기  
허니문을 대하는 다이버의 자세  
축, 난파선, 그리고 무인도에서의 일주일
- 154 독자 투어기  
서울환경영화제 '소녀와 난파선'을 보고 다녀온  
울진의 나곡수중



122



136

Go to the  
Unique &  
Amazing  
Moment!

[www.welcometogum.co.kr](http://www.welcometogum.co.kr)



추억이 남는 여행이 있다  
가볍게 남는 순간이 있다  
바다 속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

떠나세요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순간으로



[www.welcometogum.co.kr](http://www.welcometogum.co.kr) [f visitguam.kr](https://www.facebook.com/visitguam.kr) [@ visitguam\\_kr](https://www.instagram.com/visitguam_kr)





194

## Education + Technique & Gear

- 110 신제품 소개  
(주)우정사/오션챌린저, (주)해왕잠수
- 114 다이빙기술  
조류/표류 다이빙 스페셜티  
(Drift Diving Specialty)



196

## Diving Inside

- 184 Diving Society Diary
- 185 (사)한국수중레저협회(가칭)
- 186 해수부, 최대 30km 무선 수중통신 실험역 시험 성공
- 188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에 갈 수 있다
- 188 서울서 양양까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90분!
- 190 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업계 집단적으로 반발
- 190 맹독성 파란고리문어(Blue Ring Octopus)가 거제도에서 발견
- 192 신간안내-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 News In Diving

- 194 장비업체 소식  
(주)마레스 코리아, (주)우정사/오션챌린저
- 198 기타단체 소식  
디퍼다이브리조트
- 200 교육단체 소식  
PADI, SSI, SDI/TDI/ERDI, BSAC  
IANTD, PSAI
- 216 단행본 소개



200



202

110



112





# 수중문화유산보호

## 당신의 신고로부터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절차



수중문화재 발견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후 감정 및 국가귀속



문화재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문화재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 · 포상금

#### 보상금이란?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 평가 후 신고자와 발견자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보상금 지급

예시) 가치평가액 100만원 유물 신고시 신고자, 땅소유자에게 50만원씩 지급  
\* 해양 출수유물의 경우 신고자에게만 50만원 지급

#### 포상금이란?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예시) 가치없는 도자기 파편을 신고하더라도 신고해역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굴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 수중문화재 도굴범 제보 및 체포 포상금 지급기준

등급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제보자	체포 공로자
1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100만원
5등급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50만원

\* 문화재의 평가액은 시간별로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중문화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 17억원 이상시 최대 포상금 1억원)	2,000만원 + (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
2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8699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www.seamuse.go.kr  
Tel. 061. 270. 2060 Fax. 061. 270. 2079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지에  
**광고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종이잡지, 전자잡지 동시발행으로  
**광고 효과가 2배**



광고 문의처  
**02-778-4981**

**scuba diver**

소속된 모든 센터가 정기구독하는 교육단체



**Advertising Index**

(주)마레스코리아	표4, 4, 5, 6, 7 13, 143, 199, 205, 211
(주)아쿠아즈	10, 11
(주)우정사/오션챌린저	표2, 1, 2, 3 38, 39, 40, 41
(주)해양잠수	8, 9, 42, 43
관광부관광청	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
노마다이브	197
뉴서울다이빙풀(광명)	195
뉴그랑블루리조트(막탄)	61
다이버 긴급전화	177
동부산대학교해양산업잠수과(부산)	187
동진종합기계	35
디퍼다이브리조트(보홀)	31
리콧스쿠버	207
미래테크	191
바람소리 스쿠바&팬션(제주)	191
반창꼬 프로젝트	213
블루스타다이브리조트(모알보알)	21
상상채널	192, 215
솔리티드원 리브어보드(팔라우)	179
아이러브팔라우다이브리조트	189
오션테크	59
이창호의스쿠버다이빙교실	206
파라다이스다이브리조트(사방비치)	207
팬다스쿠버(대구)	29
해양스포츠포교실	189
황스마린포토서비스	187
2017 SEACAM SHOOTOUT	193
ANDI International	182
BSAC 멤버 연합	62, 63
BSAC KOREA	64
DAN Asia Pacific	176
DIVE-AWAY-LIVEABOARDS	65
FUJ-Tonga 팜투어 모집	214
IANTD KOREA	19
NASDS KOREA	183
PADI Asia Pacific	28, 30
PADI 멤버 연합	24, 25, 26
PDIC/SEI 멤버 연합	180
PDIC/SEI	181
Project AWARE Foundation	27
Redang Isiands	209
SDI/TDI/ERDI KOREA	34
SDI/TDI/ERDI 멤버 연합	32, 33
SSI KOREA	60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	51



# IANTD KOREA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21m**

**딥 다이버**  
Deep Diver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40m**

**테크니컬 다이버**  
Technical Diver **-50m**

**놈옥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Expedition Trimix Diver **-120m**

##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퍼실리티

- IANTD KOREA(서울 02-486-2792)
- MERMAN(서울 010-5053-6085)
- OK 다이브 리조트 (속초 010-6215-1005)
-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 경인 사일 잠수 아카데미 (경주 010-8787-4448)
- 굿 다이브(제주 010-3721-7277)
-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 그린 레포츠(속초 010-3737-0109)
-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 그랑 블루(양양 010-7380-0078)
-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 남해리 스쿠버 리조트 (강릉 010-8771-9300)
- 뉴서울 다이빙 풀(광명 010-3732-4942)
- 리움 스쿠버(서울 010-3542-5288)
- 마리오스쿠버(대구 010-7526-4255)
- 마린파크(서울 010-3398-8098)
- 백운산 다이빙 스킨(광주 010-4111-9944)
- 블루 홀 다이빙(수원 010-4631-4934)
- 삼척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 수중세계 잠수산업(순천 010-3500-2686)
- 씨 텍(부산 010-2860-8091)
- 아이 스쿠버(서울 010-7139-0528)
- 아쿠아프로(서울 010-5306-0189)
-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 익스트림(서울 010-3891-1391)
- 지상의 낙원(서울 010-8967-8283)
- 칸 스쿠버 리조트(인구 010-8716-1114)
- 캡틴하루 리조트(삼척 010-6375-3572)
-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 테크(성남 031-776-2442)
- 해양 대극(목지도 010-7358-7920)
- 해원 다이브 리조트(강릉 010-5144-1155)
-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일보알 070-7518-0180)
- 림스쿠버 아틸라(아닐라오 63+292-974-3736)
- 다이빙 팩(사방 070-8625-4870)
-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 포비 다이비스(세부 070-8256-9111)

###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홍정화 (Trimix ITT)

### 강사 트레이너

- 강덕권 (Adv. EANx IT)
- 강신영 (Technical IT)
- 고석태 (Technical IT)
- 김경태 (Adv. EANx IT)
- 김영삼 (Adv. EANx IT)
- 김정숙 (Technical IT)
- 김정재 (Adv. EANx IT)
- 김정환 (Technical IT)
- 김종래 (Adv. EANx IT)
- 문성원 (Adv. EANx IT)
- 박진수 (Adv. EANx IT)
- 서일민 (Technical IT)
- 서재환 (Adv. EANx IT)
- 송한준 (Adv. EANx IT)
- 오현석 (Adv. EANx IT)
- 오현식 (Adv. EANx IT)
- 유근목 (Technical IT)
- 이민호 (Adv. EANx IT)
- 이무영 (Adv. EANx IT)
- 이원호 (Adv. EANx IT)
- 이준근 (Adv. EANx IT)
- 이홍석 (Adv. EANx IT)
- 이호진 (Adv. EANx IT)
- 정영환 (Adv. EANx IT)
- 정철희 (Adv. EANx IT)
- 최임호 (Adv. EANx IT)
- 황승근 (Adv. EANx IT)
- 황영민 (Technical IT)
- 황영석 (Adv. EANx IT)

### 강사

- 강경택 (EANx)
- 강성득 (Adv. EANx)
- 강성인 (EANx)
- 강영철 (Adv. EANx)
- 고승우 (Adv. EANx)
- 고종연 (Adv. EANx)
- 고학준 (EANx)
- 곽상훈 (Adv. EANx)
- 구자민 (Adv. EANx)
- 권경호 (EANx)
- 권병환 (EANx)
- 권정용 (EANx)
- 김중현 (EANx)
- 김강태 (Adv. EANx)
- 김광호 (Adv. EANx)
- 김광희 (EANx)
- 김기중 (Adv. EANx)
- 김기봉 (EANx)
- 김기영 (EANx)
- 김경배 (EANx)
- 김대철 (EANx)
- 김동원 (Adv. EANx)
- 김동배 (EANx)
- 김동필 (EANx)
- 김명욱 (EANx)
- 김민준 (EANx)
- 김성관 (EANx)
- 김성길 (Adv. EANx)
- 김성원 (EANx)
- 김석중 (Adv. EANx)
- 김수연 (EANx)
- 김성목 (EANx)
- 김성진 (Adv. EANx)
- 김성현 (EANx)
- 김영근 (EANx)
- 김영민 (EANx)
- 김영목 (EANx)
- 김영중 (Adv. EANx)
- 김영진 (Adv. EANx)
- 김용선 (Adv. EANx)
- 김영식 (Adv. EANx)
- 김홍환 (EANx)
- 김우승 (EANx)
- 김우진 (EANx)

- 김유빈 (EANx)
- 김윤석 (Adv. EANx)
- 김재만 (EANx)
- 김정수 (EANx)
- 김중학 (Adv. EANx)
- 김진성 (Adv. EANx)
- 김진혁 (EANx)
- 김태선 (EANx)
- 김태환 (Adv. EANx)
- 김현규 (EANx)
- 김호영 (Adv. EANx)
- 김효용 (EANx)
- 김홍래 (EANx)
- 김희명 (EANx)
- 김현중 (EANx)
- 김혜훈 (EANx)
- 남경진 (EANx)
- 노지환 (Adv. EANx)
- 류학열 (EANx)
- 문남이 (EANx)
- 문석래 (EANx)
- 문홍주 (Adv. EANx)
- 박기태 (Adv. EANx)
- 박기용 (Adv. EANx)
- 박상우 (Adv. EANx)
- 박성욱 (Adv. EANx)
- 박성용 (Adv. EANx)
- 박우진 (Adv. EANx)
- 박인규 (EANx)
- 박인성 (Adv. EANx)
- 박인철 (EANx)
- 박주은 (EANx)
- 박준우 (Adv. EANx)
- 박진우 (Adv. EANx)
- 박진영 (Adv. EANx)
- 박진영 (Adv. EANx)
- 박지만 (Adv. EANx)
- 박재형 (Adv. EANx)
- 박주열 (EANx)
- 방재용 (Adv. EANx)
- 배창수 (EANx)
- 백명홍 (EANx)
- 서기봉 (EANx)
- 서계원 (Trimix)
- 서동욱 (Adv. EANx)

- 서동욱 (EANx)
- 서원일 (Adv. EANx)
- 서윤석 (Adv. EANx)
- 성용경 (Adv. EANx)
- 손경호 (Adv. EANx)
- 손용희 (EANx)
- 손종국 (EANx)
- 송성환 (EANx)
- 송태민 (EANx)
- 송한준 (Adv. EANx)
- 성용경 (Adv. EANx)
- 신기호 (EANx)
- 신길용 (EANx)
- 신상규 (EANx)
- 신동연 (EANx)
- 신명철 (EANx)
- 신민철 (Adv. EANx)
- 신연수 (Adv. EANx)
- 심현경 (EANx)
- 이준환 (EANx)
- 안태규 (EANx)
- 안민수 (Adv. EANx)
- 양명호 (Adv. EANx)
- 양성호 (EANx)
- 양용석 (EANx)
- 양인오 (Adv. EANx)
- 염태환 (Adv. EANx)
- 오기택 (EANx)
- 오명석 (Trimix)
- 오영동 (EANx)
- 오준수 (Adv. EANx)
- 오현석 (Adv. EANx)
- 우대희 (Adv. EANx)
- 유기정 (Adv. EANx)
- 유상민 (Adv. EANx)
- 유승재 (Adv. EANx)
- 유재중 (EANx)
- 윤두진 (Adv. EANx)
- 윤성환 (EANx)
- 윤성환 (EANx)
- 윤승남 (EANx)
- 윤주현 (EANx)
- 윤종한 (EANx)

- 윤찬범 (EANx)
- 윤형만 (EANx)
- 이경민 (EANx)
- 이기영 (Adv. EANx)
- 이기평 (EANx)
- 이동준 (EANx)
- 이대식 (EANx)
- 이민규 (Adv. EANx)
- 이명훈 (EANx)
- 이문용 (EANx)
- 이상욱 (EANx)
- 이상희 (Adv. EANx)
- 이수환 (Adv. EANx)
- 이우민 (Adv. EANx)
- 이영권 (EANx)
- 이윤규 (EANx)
- 이윤정 (EANx)
- 이창구 (Adv. EANx)
- 이재민 (Adv. EANx)
- 이재운 (EANx)
- 이우영 (EANx)
- 이주현 (Adv. EANx)
- 이준근 (EANx)
- 이대균 (Adv. EANx)
- 이태백 (EANx)
- 이필규 (Adv. EANx)
- 이혁규 (EANx)
- 이호석 (Adv. EANx)
- 이홍석 (Adv. EANx)
- 임인 (Adv. EANx)
- 오명석 (Trimix)
- 임성하 (EANx)
- 임종수 (Adv. EANx)
- 임용호 (EANx)
- 임재환 (EANx)
- 임형진 (EANx)
- 장두기 (EANx)
- 장세환 (Trimix)
- 장홍배 (EANx)
- 정재용 (Adv. EANx)
- 전선규 (EANx)
- 전우열 (Technical)
- 전환은 (EANx)
- 정경원 (Adv. EANx)
- 정규성 (EANx)

- 정병국 (EANx)
- 정석환 (EANx)
- 정승규 (EANx)
- 정중보 (EANx)
- 정재홍 (EANx)
- 정해진 (EANx)
- 조문신 (Technical)
- 조민석 (EANx)
- 조성호 (Adv. EANx)
- 조승원 (Adv. EANx)
- 조영철 (EANx)
- 주성우 (EANx)
- 주광철 (EANx)
- 지승용 (EANx)
- 지혜자 (Adv. EANx)
- 천대근 (EANx)
- 천세민 (EANx)
- 천세은 (Technical)
- 최규욱 (EANx)
- 최경준 (EANx)
- 최경호 (Adv. EANx)
- 최민석 (EANx)
- 최선호 (EANx)
- 최수영 (Adv. EANx)
- 최승천 (Adv. EANx)
- 최우빈 (EANx)
- 최재성 (EANx)
- 최태환 (Adv. EANx)
- 추재욱 (Adv. EANx)
- 한길형 (Normoxic Trimix)
- 한덕수 (EANx)
- 한승용 (EANx)
- 허대원 (EANx)
- 허정일 (EANx)
- 황종규 (Adv. EANx)

### 신규 강사

- 김혜운 (EANx)
- 이광호 (EANx)
- 안태규 (EANx)
- 이윤규 (EANx)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

# 이젠 전자잡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는  
PC, 노트북, 태블릿(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을 통해  
전자잡지(E-Magazine) 형태로 독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 주소  
[www.sdm.kr](http://www.sdm.kr)

## 본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서점 및 총판

고래문고(용산) 02-717-8346	알라딘(인터넷) 1544-2514
교보문고(강남) 1544-1900	영풍문고(종로) 02-399-5600
교보문고(광화문) 1544-1900	예스24(인터넷) 1544-3800
교보문고(인터넷) 1544-1900	인터파크(인터넷) 1588-1555
교보문고(잠실) 1544-1900	책이있는글터(충주) 043-848-4256
대교문고(용산) 02-2012-3422	철도문고(서울역) 02-318-7878
동남문고(홍대) 02-326-3304	학예서점(진해) 055-546-2523
리브로(홍대) 02-326-5100	홍익문고(신촌) 02-392-2020
명문사(서울) 02-319-8663	11번가(인터넷) 1599-0110
반디앤루니스(강남) 02-6002-6002	고성도서유통(서울) 02-529-7996
반디앤루니스(센트럴) 02-530-0700	백합사총판(서울) 02-766-6950
반디앤루니스(인터넷) 1577-4030	예광북스(서울) 02-336-0267
반디앤루니스(종로) 02-2198-3000	인천교육사(인천) 032-472-8383
불광문고(한강) 02-332-9480	

## scuba diver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호 통권 180호  
Bi-Monthly Dive Magazine 「scuba diver」  
2017 JULY/AUGUST (VOL.180)

### EDITORIAL

발행인·편집인 Publisher·Editor-in-chief

구자광 Jagwang Koo

편집디자인

김미영 Miyoung Kim

교정 교열

박윤희 Yunhee Park

해외영업담당이사

이민정(액션투어)

### 자문위원

법률

민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안민)

의학

강영천 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 MAIN OFFICE

주소 Address

(0433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4라길 3 (후암동 5층, 스쿠바미디어)  
(5f) 3, Hangang-daero 104ra-gil, Yongsan-gu, Seoul, Korea (04333)

전화 TEL

82-2-778-4981~3

팩스 FAX

82-2-778-4984

이메일 E-Magazine

[diver@scubamedia.co.kr](mailto:diver@scubamedia.co.kr)

홈페이지 Web Page

<http://www.scubamedia.co.kr>

<http://www.scubadiver.kr>

전자잡지 E-Book

<http://www.sdm.kr>

웹하드 Webhard

<http://webhard.co.kr> (ID pdeung, PW 2468)

계좌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구자광)

등록번호

서울 용산-00706호

등록일자

1987년 11월 27일

인쇄·제본

(주)현문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강영천, 김가림, 김수열, 김총희, 민경호, 이민정, 이상훈  
이지혜, 이혜미, 임성현, 전용식, 정상근, 정윤주  
古庄弘枝(고쇼 히로에), David Behrens  
Erick Higuera, Kevin Lee



#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 Bluestar Resort는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파낙사마비치에 위치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이다. 체험 다이빙, 펀다이빙, 호핑투어, 골프투어, 육상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스태프와 한국 스태프가 골고루 많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주요 다이빙 포인트로는 수억만 마리 떼의 정어리를 볼 수 있는 파낙사마비치 포인트, 웅장한 씨팬 군락을 자랑하는 마린 쌍뚝아리 포인트, 해골바가지 모양의 동굴과 깨끗한 시야, 물반 고기반 화려한 포인트 페스카도르 섬, 거북이 가족이 살고 있는 통고 포인트, 아름다운 연산호가 보존되어 있는 뚜블레 쌍뚝아리 등이 있다. 현재 객실은 본관 2인 1실 9개, 3인 1실 가족룸 1개, 별관 4인 1실 3개, 2인 1실 2개, 총 15개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Bluestar Resort**  
모알보알에서 바다를 만나세요!!



TEL : 070-4065-7188, 010-9971-0510

Kakaotalk : bluestar09 • E-mail : lks498526@naver.com • Web : <http://www.bluestardive.co.kr>

#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안내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월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 TEL. 02-778-4981

www.scubamedia.co.kr



## 기사 및 원고 모집

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나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국내외 다이빙 여행기 및 후기
- 다이빙 교육 참관기 및 후기
- 다이빙 장비의 사용기
- 사진촬영장비의 사용기
- 다이빙 장비 전시회 참관기
- 수중사진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참관기
- 다이빙 장비 업체의 신상품 소개
- 교육단체의 행사 내용
- 다이빙 동호회 활동이나 행사 소식
- 재미있게 작성된 다이빙 로그북
- 다이빙 기술에 관한 내용
- 잠수의학에 관한 내용
- 특수 다이빙(테크니컬, 동굴, 아이스)에 관한 내용
- 수중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
- 수중생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진
- 다이빙 샵이나 리조트의 행사 또는 시설 증설에 관한 안내
- 다이빙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 실수담, 느낀 점 등의 후기
- 기타 다이빙이나 수중사진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에 투고된 원고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배포 등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 멀티미디어·CD-ROM 등 전자매체로 제작·배포할 수 있는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권, 전자서적으로의 발간, 유선·전파 등 무선통신을 통한 방송권, 영상을 제작 등 저작권인점권, 전자서적의 발간, 2차적 저작물 작성에서 동의권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 정기구독 요금

국내 정기구독은 우편료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해외구독은 우편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	12,000원	12,000원
1년(6회)	<del>72,000원</del>	60,000원
2년(12회)	<del>120,000원</del>	108,000원
10년(60회)	<del>720,000원</del>	500,000원 (사은품 증정)

단, 장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어도 계약된 구독료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 ⇨ 과월호 요금

수량	가격	수량	가격
1권	8,000원/권	15권 이상	6,000원/권

### ⇨ 해외 정기구독 신청

- 본지를 해외에서도 정기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우편료 포함 정기구독 요금

지역별	1회 우편요금	1년간(6회) 우편요금	연간 총 구독료
1지역	6,880원	41,280원	101,280원
2지역	9,480원	56,880원	116,880원
3지역	15,400원	92,400원	152,400원
4지역	18,360원	110,160원	170,160원

- 1지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 우편물
- 2지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권
- 3지역: 북미, 동서유럽, 중동, 대양주,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 4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서인도 제도 등

### ■대금 입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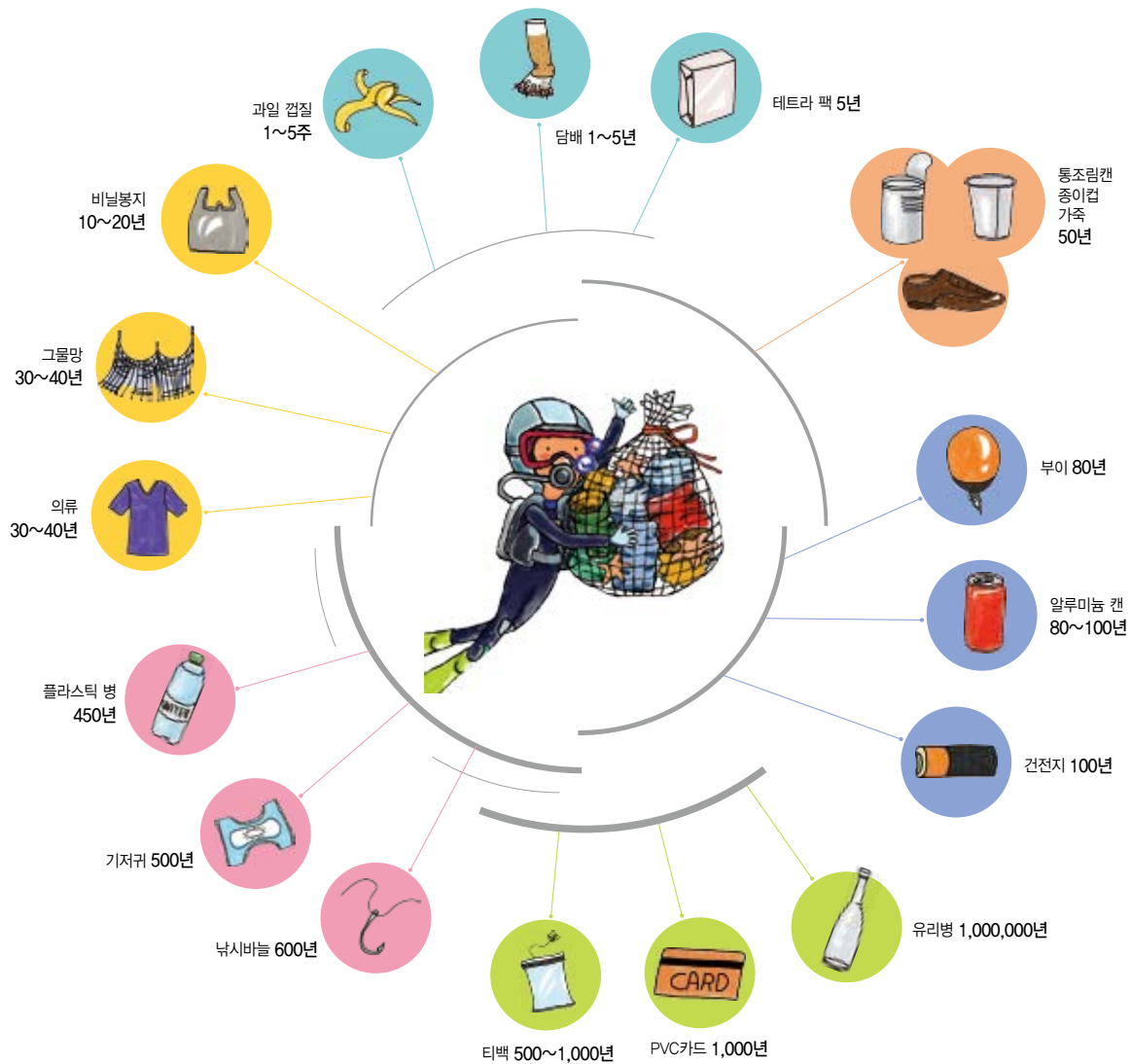
- 구매신청은 계좌로 입금한 후, 연락주시면 확인되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 2권 이상의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입금 계좌 번호

국민은행 443102-01-324557 (구자광)

#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는 시간을 아십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분해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 아시아 퍼시픽의 한국인 PADI® 코스 디렉터

**아이는 스쿠버** 서울



**김철현**

W: inoon-scuba.com  
E: abysmchk@nate.com  
T: 010-3665-22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마린마스터** 서울



**정상우**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2-420-6171  
010-5226-4653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  
올림픽아 빌딩 B126

**(주) 엔비 다이버스** 서울



**정희승**

W: nbdivers.com  
E: nudiblue@hotmail.com  
T: 02-423-626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6-19, 대진빌딩 2층

**노마다이브** 서울



**김수열**

W: nomadive.com  
E: nomadive@gmail.com  
T: 02-6012-5998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호

**루씨 다이빙(Lucy Diving)** 서울



**박현정**

E: studioin@nate.com  
T: 010-4084-937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8  
(잠실동 175-12) 올림픽타워  
1017호

**에버레저** 서울




**우인수**

W: everleisure.co.kr  
E: wooinu@hanmail.net  
T: 010-3704-87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410호

**인투 다이브** 서울



**송관영**

W: intodive.com  
E: ky70700@hotmail.com  
T: 010-7419-9658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36, 102호

**스쿠버 인포** 서울



**이호빈**

W: scubainfo.co.kr  
E: 479017@gmail.com  
T: 010-8731-8920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288  
2층

**다이브트리** 서울



**김용진**

W: divetree.com  
E: ygoll@divetree.com  
T: 02-422-6910  
010-5216-6910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8-20  
1층 다이브트리

**파란바다 다이브 센터** 서울



**송규진**

W: paranbada.com  
E: sgjgrimza@naver.com  
T: 02-547-8184  
010-9926-014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5길24,  
5층(강남구 신사동 556-24)

**다이브 아카데미** 서울



**주호민**

W: diveacademy.com  
E: 474182@gmail.com  
T: 010-9501-5928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길 29

**레드씨 다이브 팀** 서울



**황진훈**

W: redseadive.co.kr  
E: jinhoon.hwang@gmail.com  
T: 010-5434-18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9, 2층

**(주) 엔비 다이버스** 서울



**김영준**

W: nbdivers.com  
E: john@nbdivers.com  
T: 010-9139-5392  
02-423-626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5-5  
대진빌딩 2층

**아이는 스쿠버** 서울



**이달우**

W: inoon-scuba.com  
E: ldw1010@nate.com  
T: 010-7414-21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58, 2층

**아피아 프리다이빙 전문교육기관** 서울



**노명호**

W: afia.kr  
E: afia@afia.kr  
T: 02-484-2864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38-8

**다이브 컴퍼니** 서울



**이상호**

W: divecompany.co.kr  
E: ceo@divecompany.co.kr  
T: 010-2822-445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9-2번지 3층

**잠실스쿠버스쿨(잠실스쿠버플)** 서울



**김진호**

W: jsscuba.co.kr  
E: jamsilscuba@naver.com  
T: 02-2202-1333  
010-8978-7123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종합운동장 내 제2수영장  
스쿠버풀장

**다이브 아카데미** 서울



**김병구**

W: diveacademy.com  
E: bk@diveacademy.com  
T: 010-2388-7997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스포츠상가 13호

**리드마린** 서울



**배경화**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korea@naver.com  
T: 010-7136-903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 1층

**스쿠버인포** 서울



**이윤상**

W: scubainfo.co.kr  
E: yoonsanglee@nate.com  
T: 0505-555-0038  
010-2740-8702

(센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0-9

**인천 스쿠버 다이빙 클럽** 인천



**강정훈**

W: isdc.kr  
E: james007@korea.com  
T: 080-272-1111  
010-5256-3088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종합쇼핑센터 306호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77-3)

**GO DIVING** 경기



**임용우**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10-6317-5678  
031-261-887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9 중앙 플라자 404호

**일산 스쿠버 아카데미** 경기



**윤재준**

W: ilsan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6351-7711  
070-8801-7711

경기도 일산동구 경의로 309,  
백마상가 301호

**씨씨 다이버스** 광주



**위영원**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62-375-1886  
010-3648-1886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91-3

**Go Pro Dive(고프로 다이브)** 경기



**홍찬정**

W: goprodiver.co.kr  
E: mehcg@naver.com  
T: 031-244-3060  
010-8653-30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8-14, 402호

**해저 2 만리** 경기



**김강영**

W: divingedu.kr  
E: peterpan@cyworld.com  
T: 02-324-93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지하 2층  
한샘레저스포츠타운 co.ltd

**넵튠 다이브 센터** 대전




**박금옥**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10-5408-48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

**씨월드 부산** 부산



**임호섭**

W: seaworld-busan.co.kr  
E: seop777@hotmail.com  
T: 010-4846-547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29-6, 2층

**스쿠버칼리지** 부산



**이성복**

W: scubacafe.co.kr  
E: lsbz3@naver.com  
T: 010-4543-072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남천마리나 2층

**씨월드 다이브 센터** 부산



**조영복**

W: seaworld-busan.co.kr  
E: solpi21@naver.com  
T: 051-626-3666  
010-2722-8119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43-2번지

**팬다스쿠바** 대구



**이현석**

W: pandascuba.com  
E: panda8508@naver.com  
T: 053-784-0808  
010-8299-7777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12길

**베스트 다이브** 경남



**김현찬**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T: 010-9310-1377

경남 통영시 신양읍  
신전리 15-4

# PADI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 사전 인스트럭터 개발 코스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를 만나보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원

PADI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한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하세요.**

## PADI 스페셜티 페스티벌

기간 : 2017년 11월 11일(토)

장소 : 제주 컨벤션센터

## PADI 인스트럭터 시험(IE)

장소 : 울진 해양레포츠 센터

장소/일시 :

울진 2017년 10월 28일(토)~29일(일)

제주 2017년 12월 16일(토)~17일(일)

### 남해 스쿠버 리조트

강원



**김정미**

W: namaescuba.com  
E: namaescuba@naver.com  
T: 033-673-4567  
010-6334-4475  
강원도 양양군 매바위길 77

### 아쿠아 스쿠버

제주



**송태민**

W: aquascuba.co.kr  
E: aquascuba@naver.com  
T: 010-4871-55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106번길 13-7

### 휘닉스 아일랜드 다이브 리조트

제주



**정혜영**

W: 2divepro.com  
E: divepro4@gmail.com  
T: 010-6548-25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157번길 28-6  
제주M리조트

### 리드마린 리조트

아날라오



**서종열**

W: leadmarine.co.kr  
E: leadmarine@naver.com  
T: 010-7136-9030  
+63 917-545-3445  
필리핀 바랑가스 아날라오 142

### 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



**정혜경**

W: seaworld-boracay.co.kr  
E: junghyekyoung.sophia@gmail.com  
T: 070-8258-3033  
+63 998-995-3700  
Station 2, Boracay Island,  
Philippines

### SEA WORLD DIVE CENTER

보라카이



**김현준**

W: seaworld-boracay.co.kr  
E: boracayseaworld@gmail.com  
T: 070-8258-3033  
+63-998-545-7657  
Station 2, Boracay Island,  
Philippines

### 디퍼다이브 (DEEPPER DIVE)

보홀



**장태한**

W: deepper.co.kr  
E: deepper645@hotmail.com  
T: 070-7667-9641  
+63 921-614-2807  
Daorong, Danao, Panglao,  
Bohol

### 오션플레이어 (Oceanplayer)

세부



**이준문**

W: oceanplayerdive.com  
E: oceanplayer@naver.com  
T: +63 917-323-3483  
070-8612-3172  
Oceanplayerdive,  
Marigondon, Mactan Island,  
Cebu, Philippines

### 다이브랩 (Dive LAB)

세부



**한덕구**

W: divelab.co.kr  
E: handuck9@hotmail.com  
T: 070-8683-6766  
010-8930-0441  
+63 917-927-4800  
Kawayan Marine, Pu-ot,  
Punta Engano, Lapu-Lapu,  
Cebu, 6015, Philippines

### Prodivers Saipan

사이판



**이석기**

W: prosaipan.com  
E: lee\_seokki@hotmail.com  
T: 070-4255-5525  
010 6267 7394

### 다이브 스페이스

푸켓



**변병흠**

W: divespace.co.kr  
E: info@divespace.co.kr  
T: 070-4645-3331  
080-521-3343  
5,5/13, Moo 8, T Chalongs,  
Phuket, Thailand





# DIVE AGAINST DEBRIS<sup>®</sup>

해양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해양 쓰레기를 제거,  
기록하고 보고하십시오.



[WWW.PROJECTAWARE.ORG](http://WWW.PROJECTAWARE.ORG)

PADI 프리다이버 |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PADI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마스터 프리다이버 강사 | PADI 프리다이버 강사 트레이너

# PADI FREEDIVER™



프리다이버 숨 찾기

다이브 숨 또는 PADI 프리다이버 센터에 연락하시거나 [padi.co.kr](http://padi.co.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대구 · 경북 유일한 PADI 강사개발 센터!

# PANDA SCUBA

PADI 5star Instructor Development Center



## PADI 강사 후보생 모집!

1998년 스쿠버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4년 7월에 대구 수성구에 PADI 5스타 강사 개발 센터를 새로이 문을 열어 최신 교육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용 공기/나이트록스 충전 시설, 최고 품질의 렌탈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로써 입문 단계부터 강사 과정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대구 · 경북 유일한 PADI CD DIVE CENTER 입니다.



[www.pandascuba.com](http://www.pandascuba.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12(범물동) 706-815

TEL : 053-784-0808 / FAX : 053-784-0804, 카페주소 : [cafe.naver.com/pandascuba](http://cafe.naver.com/pandascuba)

TEACH  
**my PADI**™

“다이버들이 나에게 배우는 것 만큼,  
그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이버를 시작하는 이들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줍니다. PADI 인스트럭터는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김예원 - PADI 오픈 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2017년은 PADI® 프로가 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padi.co.kr](http://padi.co.kr) 이나 지역에 있는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리조트를 방문하세요.





최고만이 최고를 지향하며  
최고를 선택하고,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그리고 최고가 됩니다.**

영원한 버디를 만날수 있는 곳  
**보홀 디퍼 다이브**

2017년 “디퍼 다이브”의  
세 번째 IDC는 11월 3일에  
시작 됩니다.



모델 : 9월의 예비부부 장태한, 고보민 강사



**디퍼 다이브 리조트**  
[www.deepper.co.kr](http://www.deepper.co.kr)

교육 문의 및  
편 다이빙 문의

인터넷 전화 070-7667-9641 사무실 전화 63) 38-502-9642  
핸드폰 63) 921-614-2807, 090 - 8182 - 2757  
카카오톡 ID hanbuty , deepperdive

# INTERNATIONAL SDI SCUBA DIVING INTERNATIONAL TDI 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 ERDI ERDi TRAINING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교육 전문 트레이너들이 SDI.TDI.ERDI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초급교육에서부터 강사 교육은 물론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전 과정 한글 교재와  
풍부한 경험의 강사진이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054-262-7809  
010-2504-0459  
dive11@naver.com  
www.dive11.co.kr  
경상북도 포항

**김동훈**/Dive11&Cafe marine



063-855-4637  
010-5654-0717  
nonamjin@naver.com  
www.nonamjin.com  
전라북도 익산

**노남진**/남진수중잠수학교



031-485-3600  
010-8222-5355  
msbnr@naver.com  
www.tmscuba.co.kr  
경기도 안산

**문승범**/테마스쿠버



070-8616-7775  
+63.927.710.6993  
asitakwon@naver.com  
www.seahorsedive.co.kr  
kakao: seahorsedive  
필리핀 세부

**권경혁**/씨홀스다이브



070-8285-6306  
+63.919.301.5555  
divestone@hanmail.net  
www.mcscuba.com  
필리핀 아날라오

**손의식**/몬테칼로리조트



070-4228-0078  
010-2504-0459  
mrcopspaul@gmail.com  
kakao: clubmir  
필리핀 아날라오

**최용진**/클럽미르비치리조트



070-7583-9862  
010-7697-1112  
pndiver@naver.com  
www.attydiver.com  
서울

**최성기**/아띠 다이브



+63.905.297.1787  
070-4645-1787  
010-2504-0459  
kjc1793@naver.com  
kingkongdiversort.com  
필리핀 아날라오

**강재철**/킹콩다이브리조트



070-7561-5690  
010-4914-5690  
hok0519@naver.com  
goldfishclub.co.kr  
서울

**김도형**/골드피쉬스쿠버&트레블



010-2699-9582  
jejudive@naver.com  
www.jejudive.com  
제주도 서귀포

**강규호**/제주 다이브



010-3820-5426  
cho-hang1960@hanmail.net  
www.yechon-scuba.com  
경상북도

**조동항**/예천 스쿠버



010-3105-0556  
bpg1007@daum.net  
cafe.daum.net/bansdiver  
경기 일산

**반평규**/반스테크니컬다이브아카데미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www.bsresort.co.kr  
경북 영덕 축산

**전대현**/푸른바다리조트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서울, 강원

**이성호**/경희대학교



+63.917.737.4647  
smric@hanmail.net  
paradise-diver.net  
필리핀 사방

**국용관**/파라다이스리조트



052-236-7747  
010-6270-7330  
tdisdiulsan@hanmail.net  
cafe.daum.net/O2DIVER  
울산광역시

**이상욱**/토니의수중세계



010-3569-5522  
zetlee2@gmail.com  
www.gsscuba.com  
facebook: gsscuba2  
경상남도 고성

**이주연**/고성 스쿠바



02-787-0215  
010-9031-7825  
ann611@hanmail.net  
dive2world.com  
서울, 수원

**권혁기**/액션 스쿠버



010-5035-9093  
ybc1667@hanmail.net  
www.jysj.co.kr  
경기도 파주

**윤병철**/자유로 스쿠버



053-287-0205  
010-6276-0205  
tdi205@gmail.com  
www.divesun.co.kr  
대구광역시

**이성오**/데코스탑

SDI.TDI.ERDI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문의: 070 - 8806 - 6273 / www.tdisdi.co.kr / hq@tdisdi.co.kr

 <p>054-251-5175 010-3524-5175</p> <p>경상북도 포항</p> <p><b>김광호</b>/원잠수아카데미</p>	 <p>+63.917.321.4949 010-4900-5475 070-4388-4900 clubhari@hotmail.com www.clubhari.com</p> <p>필리핀 세부</p> <p><b>김동준</b>/클럽하리 리조트</p>	 <p>031-798-1832 010-5292-1832 vjksj@naver.com www.apscuba.com facebook: apscuba</p> <p>서울, 경기</p> <p><b>김성진</b>/공기놀이 스킨스쿠버</p>	 <p>010-7202-2440 dolsoig@hanmail.net</p> <p>울산광역시</p> <p><b>김현우</b>/울산 아쿠아텍</p>
 <p>031-776-2442 010-7900-8259 yamasg@hanmail.net www.tecko.co.kr facebook: suunto.kr</p> <p>서울, 경기</p> <p><b>백승균</b>/(주)테코</p>	 <p>02-487-0894 010-8380-9964 yang@aquatek.co.kr www.aquatek.co.kr facebook: aquatekbest 카톡: diverite 서울</p> <p><b>양승훈</b>/아쿠아텍</p>	 <p>033-655-7548 010-8786-7548 dhgudrms@nate.com intothesea.co.kr 카톡: gosda1</p> <p>강원도 강릉</p> <p><b>오형근</b>/인투더씨 리조트</p>	 <p>054-291-9313 010-4752-9313 diveant@hanmail.net www.diveant.kr</p> <p>경상북도 포항</p> <p><b>최지섭</b>/Dive A&amp;T</p>
 <p>070-8767-0672 010-6629-2961 vnfmsdyd@hanmail.net www.smdiving.net</p> <p>인천광역시</p> <p><b>변이석</b>/SM다이빙</p>	 <p>070-4084-4049 090-6505-6595 010-3777-0402 holicdive@nate.com www.holicdive.com</p> <p>필리핀 세부</p> <p><b>박준호</b>/홀릭다이브</p>	 <p>+63.917.655.1555 070-4642-1555 010-5103-3996 diverjerry@gmail.com www.sunydivers.com 카톡: sunydivers 필리핀 세부</p> <p><b>양경진</b>/써니다이브스</p>	 <p>070-4686-1901 +91.5487.5365 Sinchundivers.com facebook: jaegon chun 카톡: Sinchun 1 보홀 팡글라오</p> <p><b>천재곤</b>/신천 다이버스</p>
 <p>055-326-1500 010-9325-0159 ys2011a@naver.com jangyuscuba.co.kr</p> <p>경상남도 김해</p> <p><b>윤철현</b>/장유 스쿠버</p>	 <p>1855-2514 010-2103-0966 eone.tour@gmail.com www.ieone.co.kr</p> <p>대구광역시</p> <p><b>이명욱</b>/스쿠버아카데미</p>	 <p>010-6239-8593 imgas@naver.com www.searunway.co.kr 카톡: recon944</p> <p>서울</p> <p><b>양승환</b>/씨런웨이</p>	 <p>010-3879-6060 ds5pr@naver.com 카톡: ds5pr</p> <p>울산광역시</p> <p><b>홍성진</b>/문수스쿠바아카데미</p>
 <p>070-8692-1080 +63.917.621.3040 mgdiver@naver.com www.1psdive.com 카톡: 1psdive 필리핀 세부</p> <p><b>김만길</b>/원피스다이브</p>	 <p>070-8269-6649 010-9999-7015 +63.927.333.3674 sudivers@naver.com www.sudivers.com 카톡: sudivers 필리핀 세부</p> <p><b>신상철</b>/수다이브스</p>	 <p>010-3674-3501 sunuri@hyundai.com</p> <p><b>권혁철</b>/현대자동차 전주공장</p>	 <p>010-9165-2209 dlwjaks35@naver.com www.JMDIVE.com</p> <p>서울, 경기</p> <p><b>이정만</b>/JM다이브</p>
 <p>070-5025-3262 010-2772-0109 instjoojy@gmail.com www.utsscuba.com</p> <p>서울, 경기</p> <p><b>주진영</b>/언더더씨</p>	 <p>010-2312-7615 055-275-6000 hanfuri@naver.com divingschool.co.kr 카톡: hanfuri</p> <p>경상남도 창원</p> <p><b>안제성</b>/바다여행잠수교실</p>	 <p>031-914-7978 010-6404-7978 blueocean504@naver.com blueocean-divers.com 카톡: wovlf23</p> <p>경기도 고양시</p> <p><b>황재필</b>/블루오션다이브&amp;트레블</p>	 <p>070-8827-4389 010-4123-4389 www.jscuba.co.kr kakaο: jscuba</p> <p>대구광역시</p> <p><b>오석재</b>/제이스쿠버</p>
 <p>070-4366-3139 +63.915.331.5875 mangodive.co.kr Mangohouse24@naver.com 카톡: mangohouse24 필리핀 세부</p> <p><b>윤웅</b>/망고 다이브</p>	 <p>032-833-3737 010-6237-6641 divesongdo@gmail.com</p> <p>인천 송도</p> <p><b>김수은</b>/Tech Korea</p>	 <p>010-2554-8700 +63.917.103.8857 whydive@naver.com www.whydive.co.kr 카톡: whydive</p> <p>필리핀 세부</p> <p><b>홍근혁</b>/WHYDIVE</p>	 <p><b>SDI TDI ERDI</b></p> <p><a href="http://www.tdisdi.co.kr">www.tdisdi.co.kr</a></p>

# INTERNATIONAL TRAINING



## 2017 강사 특전

신규 SDI 강사

SDI, TDI 크로스오버 강사

다이버슈어 다이빙 상해보험  
1년간 무상 제공

SDI, TDI 동시 크로스오버시  
TDI 강사 등록비 면제

행사 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문의: 가까운 지역의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세요.



컴프레서의 명품

# COLTRI SUB

동진종합기계 한국총판

우수한 성능 · 합리적인 가격 · 철저한 사후관리 (2년 무상보수, 국내는 년 3회 이상 방문)



● 콜트리 콤프 400~600L 사용하는 업체

잠실스킨스쿠버다이빙	손태식	02-415-6100
자이언트강원지사	심재호	010-5317-8748
문암리조트	박주명	033-637-6716
(주)38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126-5874
바하마 다이브 리조트	김철래	033-645-1472
사천다이브리조트	임종표	033-646-8811
경포다이버	정찬길	033-644-2687
영덕대진리조트	최 역	010-3539-7800
아쿠아벨리조트	황득식	054-251-6189
다이브일레븐	김동훈	054-262-7809
왕돌스쿠버	이남훈	054-787-7690
(주)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	김영필	051-740-1737
일광스쿠버	정세중	051-722-4402
고성스쿠버	이주현	055-674-6999
통영스쿠버캠프	송준용	011-327-6969
해양대국	이수한	010-7358-7920
남해푸른바다스쿠버	윤준호	055-867-8432
골드피쉬(추자도)	김종환	02-3437-5410

제주다이브	강규호	064-739-3333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유승윤	042-280-1000
인투더씨다이브센터	오형근	010-8786-7548
씨라이프리조트	박창수	010-5288-8144
울릉다이버리조트	정봉권	010-9516-0289
제주수중산책	김창환	010-3008-4739
바람소리펜션	박찬용	010-4140-2505
거북마린잠수풀	김대진	010-5791-2353
두류다이빙장	손완식	010-8571-3331
보보스	맹동수	010-2332-9220
제주이지다이버	홍주현	010-9666-0335
더블루제주	임욱선	010-3290-4653
H2O	박성혁	010-4241-0060
사 이 판	Diver's Paradise In Saipan DPIS	권성훈 1-670-989-5800 070-8243-1910
	Saipan International Divecente	이명철 1-670-989-1110





## 바다

바다는 움직이는 사유이며 서로 사랑하는 액체들이다.

안팎이 뒤집힌 세계 속에서 다른 몸을 얻는 일.

사람은 바다 속에 잠겨 비로소 자신 속의 액체들을 발견한다.

물속에서 다이버들은 바다에 잠기는 일이 자신 안으로 잠수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것은 사람 속에서 일렁이는 바다이며,

그치지 않는 마음의 조류이고,

물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글 이혜미 / 사진 구자광



시인 이혜미는 1988년 경기 안양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6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보라의 바깥', '뜻밖의 바닐라' 등이 있다. 그리고 다이버이다.



NO LIMIT



**200LX · DCX**

테크니컬 다이빙 호흡기의 새로운 기준



**HOLLIS**

NO LIMIT

## **SIDEMOUNT KATANA**

Hollis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COMPACT, RECHARGEABLE, POWERFUL, RELIABLE.

**SOLA™** Simply Better  
THE MOST RELIABLE LIGHT IN THE INDUSTRY



**CERTIFIED QUALITY**

**FL-1 STANDARD**

우리의 모든 라이트는 ANSI/NEMA FL-1 Standard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밝기, 사용시간, 충격, 침수 테스트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COMPACT DESIGN**



**SMART**

**SOLA DASHBOARD**

SOLA는 현재 밝기와 배터리 잔량, 충전량 등을 표시해주는 대쉬보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정확합니다. SOLA는 스스로 자신의 전압을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FACTORY SEALED**

**Test reliability**

수심 90m 까지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HE PERFECT LIGHT**

**FOR EVERY DIVE**

특히 받은 듀얼 빔 시스템과 강력하고 정확한 빔 패턴을 가진 SOLA는 당신의 모든 다이빙을 지켜줄 것입니다.



**CHARGE STATUS**

- 75%-100%
- 50-75%
- 25-50%
- 0-25%

**BATTERY LIFE**

- 75%-100%
- 50-75%
- 25-50%
- 0-25%

**RECHARGEABLE**

For the long haul 외부 충전부를 통해 Li-ion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전부는 다이빙을 위해 라이트를 열어 침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CERTIFIED FL-1 STANDARD**



DESIGNED AND ASSEMBLED IN THE  
**USA**

lightandmotion.com



이제 수중에서  
버디와 대화로 소통 합시다!

**With tease new gears,  
you can convey your feeling!**

**Logosease®**

다이빙 시 Logosease를 사용하면...



BASIC

*보다 안전한 다이빙이 됩니다.*

100m 거리에서도 버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해집니다!*

수화 대신 대화로 버디와 소통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집니다.*

소중한 수중 장면을 버디에게 알려 기쁨이 배가 됩니다.




DIVING

SNORKELING

FREE DIVING



be Original, be 

**# X-TREM BEUCHAT IS THE INVENTOR OF THE SCUBA DIVING WETSUIT !**

As the inventor of the very first scuba diving wetsuit in 1953, Beuchat has an unmatched expertise in this field. The new X-Trem semi-dry suit is the exact embodiment of this expertise. It provides impressive flexibility and comfort as well as great ease of wear.

The X-Trem is the quintessence of our pursuit of innovation.



 [FACEBOOK.COM/BEUCHATDIVING](https://www.facebook.com/beuchatdiving)

ESTABLISHED IN 1934  
SINCE 1934

**BEUCHAT**   
INSPIRED BY THE SEA SINCE 1934

 **해왕 KING Sports**  
Underwater Diving

Tel 02 362 8251-2 / Fax 02 364 9665 / [www.kingsports.co.kr](http://www.kingsports.co.kr)

DIVING

SNORKELING

FREE DIVING



be Original, be 

BEUCHAT



**# ZENTO BEUCHAT, THE INVENTOR OF THE NEOPRENE WETSUIT!**

New Zento : designed for freediving, the wetsuit is effective in outdoor swimming too. Pattern made in France, high quality construction and increased thermal protection provide amazing comfort. Finally, the New Zento delivers optimal gliding and freedom of movement for high performance.



FACEBOOK.COM/BEUCHATDIVING

DESIGNED IN FRANCE  
SINCE 1934



 **해왕 Kingsports**  
Underwater Diving

Tel 02 362 8251-2 / Fax 02 364 9665 / www.kingsports.co.kr

SDM Underwater Photography Contest

#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 금상

광각부문 양승철      접사부문 이현석

## 은상

광각부문 이현희      접사부문 김경신

## 동상

광각부문 김예찬      접사부문 스텐리

## 입선

김경신, 백성기, 이현석, 이현희, 임수동, 임준형  
(가나다순)



## SDM 수중사진 콘테스트 안내

한국수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1/2월을 제외한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호 발간에 맞춰 연 5회 실시되며, 매 콘테스트마다 우리나라 수중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한 곳의 다이빙 관련업체에서 수상자를 위한 협찬품을 제공합니다.

본 콘테스트의 입상작은 연말 한국수중사진콘테스트에 자동으로 출품됩니다.

시상 내역과 응모 방법 등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상내역

광각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접사부분 :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 작품의 저작권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만 출품해야 합니다.

입선작을 포함한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선자가 가지며, 본사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 응모 방법

매 짝수달 말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하며, 수상작은 본지 홈페이지 수상작 게시판을 통해서만 발표합니다. 당선작은 홀수달 10일까지 반드시 원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이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지 홈페이지 [www.scubamedia.co.kr](http://www.scubamedia.co.kr)  
수중사진 [출품하기](#)에 등록
- 본지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아이디 : [pdeung](#), 비밀번호 : [2468](#))  
공모전 폴더에 올리기

※ 수중사진 작가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2017년 7/8월 시상품

이번 7/8월 콘테스트는 미래테크, 오션테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 ★ 금상 수상 랜턴의 괴물(6000루멘) 씨 몬스터 SEA MONSTER

- LED : 50W
- 밝기 : 5500~6000lm
- CCT : 5500~6000K
- 바디 : 항공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 스위치 : 트위스트 방식 스위치
-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500회 충방전
- 충전시간 : 1시간 20분
- 사용시간 최고광량 : 3시간
- 전열 시까지 12시간 소요
- 렌즈각도 : 110도
- 수심 : 100m
- 크기 : 길이 157mm x 지름 90mm x 높이 90mm
- 무게 : 1364.8g
- 소비자가격 : 85만 원



### ★ 동상 소형 수중랜턴



- 소비자가격 : 8만 원

### ★ 은상 40L DryBag ENOUGH SIAE MODERN STYLE

- 40L의 대용량으로 다양한 수납이 가능
- 넉넉한 사이즈와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오션테크의 인기 아이템
- 스쿠버다이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포츠에서 편하게 사용가능
- 소비자가격 : 20만 원



협찬사 : 미래테크, 오션테크



**금상** \_ 광각부문  
Gold Prize

**양승철**  
장완홍상어(Oceanic Whitetip Shark)와 дай버  
NIKON D800E, f/16, 1/160



**은상** \_ 광각부문  
Silver Prize

이현희  
스쿼럴피쉬(Squirrelfish) 무리

**동상** \_ 광각부문  
Bronze Prize

김예찬  
섬유 세닐 말미잘과 다이버  
NIKON D90, f/9, 1/60





**금상** \_ 접사부문  
Gold Prize

**이현석**  
위디 스크피온피쉬(Weedy Scorpionfish)  
Canon EOS 5D, f/8,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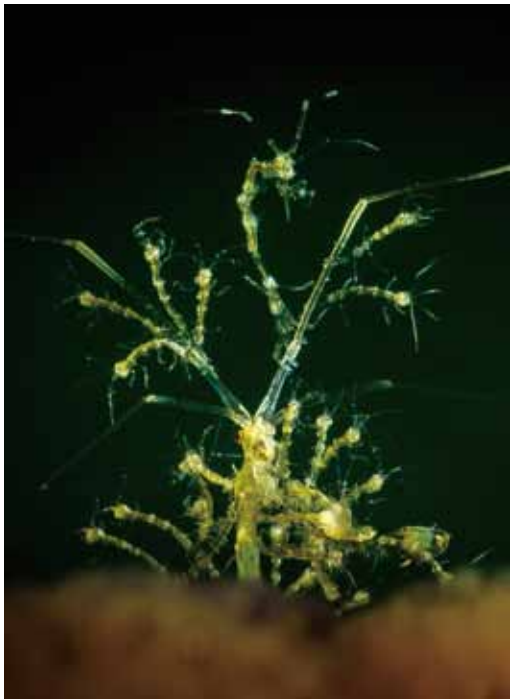
**은상** \_ 접사부문  
Silver Prize

김경신  
군소(Sea Hare)  
OLYMPUS TG-4  
f/6.3, 1/400

**동상** \_ 접사부문  
Bronze Prize

스텐리  
씨 스파이더(Sea Spider)  
Canon PowerShot G16  
f/8, 1/500





입선 김경신



입선 이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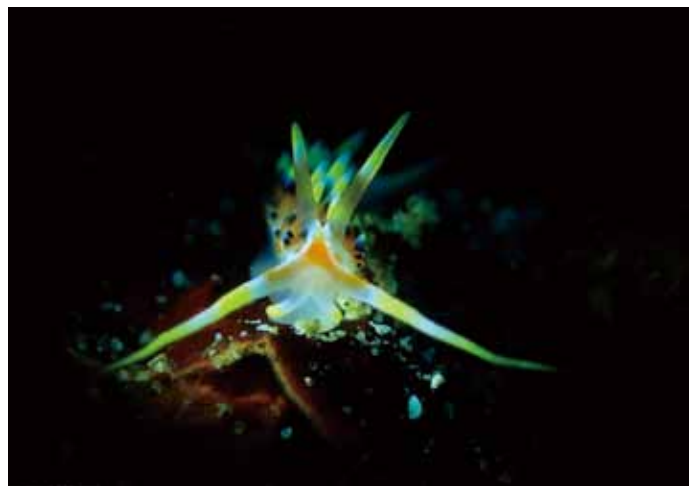
입선 백성기



입선 이현희



입선 임수동



입선 임준형

Muck 다이빙과 Critter 다이빙의 메카  
인도네시아 렘베해협



# YOS Dive Lembeh Eco Beach Resort



YOS Dive Lembeh-Eco Beach Resort는 인도네시아 열도에서 해양 사업 분야에서 26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공인된 다이빙 회사이다. 다이빙 패키지, 다이빙 사파리 및 PADI 또는 SSI 다이빙 코스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다이빙 센터는 컴퓨터, 나이트룩스, 4대의 다이빙 보트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다이빙은 1명의 가이드에 2명의 손님 비율로 진행하고, 손님이 렘베해협에서 최상의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객실 시설

- 온수 샤워, 수건 및 세면용품
- 옷장, 책상 2개와 작업용 테이블
- 싱글, 트윈 또는 더블 및 트리플 룸
- 야외 공기 욕실
- 에어컨
- 매일 객실 서비스
- 개인 발코니

## YOS 리조트 서비스

- 합리적인 가격
- 매일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 투어 진행
- 충분하고 우수한 렌탈 장비 준비
- 다양한 다이빙 코스 준비
- 수중사진가를 위한 최적의 다이빙 시설



## YOS Dive Lembeh - Eco Beach Resort

Ds. Makawidey, Kec Aertembaga - Bitung,  
North Sulawesi - Indonesia  
International Reservation office  
What's app : +60122612155  
Email : ddenmsia@gmail.com

PHOTOFOLIO

수중사진작가 소개



**Erick Higuera** Me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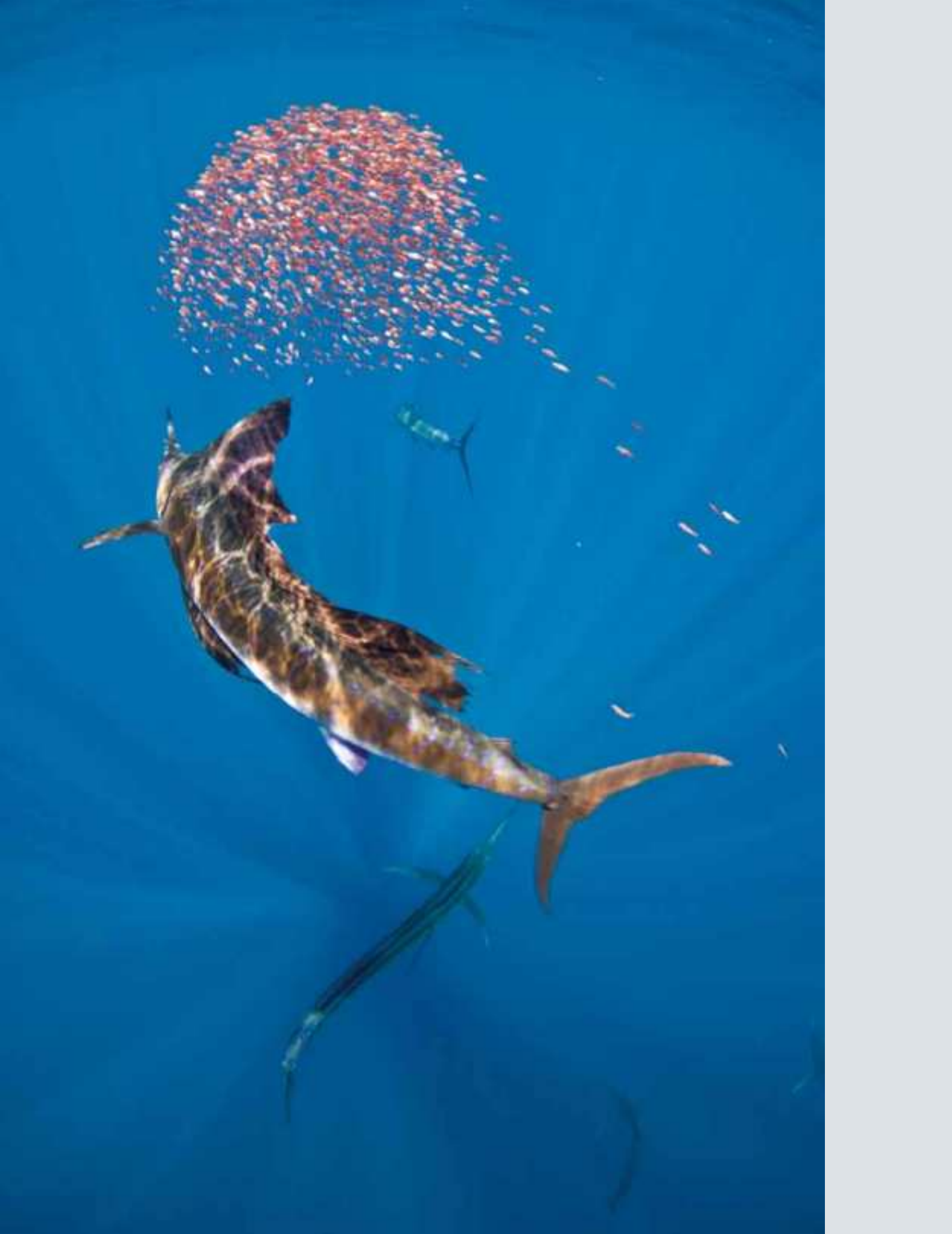
### **Erick Higuera**

Erick has spent many years as a scuba instructor and as videographer onboard the Solmar V exploring the waters of Guadalupe Island, the Sea of Cortes, the Revillagigedo Islands (better known as Socorro's Islands) and the Mexican Pacific, filming and photographing great white sharks, whales, dolphins, sailfish and other spectacles in the deep blue off Mexico's shores. During all this time he has seen how shark and manta populations in the Sea of Cortes have been depleted due to uncontrolled illegal fishing and his film projects that have received worldwide recognition including numerous underwater film awards are now getting local and political acclaim in Mexico to help educate fishermen and school children on the amazing value of their oceans. Erick has been awarded with the Stan Waterman Award by Beneath The Sea 2013, Best in Cinematography Award by Beneath The Waves Film Festival 2013, Howard Hall Award by Ocean Geographic Pictures of The Year 2013 and with the 1st Place CIMASUB 2013 by the 37th Donostia-San Sebastian International Submarine Film Festival, Award of Distinction - Humanitarian 2014 and Award of Excellence Best Shorts Competition 2014, Honorable Mention BLUE Ocean Film Festival & Conservation Summit 2014 & 2016 and Highly Honored 2014 Nature's Best Photography. Some of his work has appeared in NatGeo, Discovery Channel and BBC like in the Shark BBC Series (a major new wildlife series on the sharks of the world, from the Arctic to the coral reefs). Since 2006 Erick has been conducting his own research on photo identification, site fidelity, abundance estimate and movements patterns of the Pacific Giant Mantas (*Manta birostris*) in the Revillagigedo's Archipelago, Mexico.

Erick Higuera는 바다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성장한 해양생물 학자이자 수중영상 제작자이다. 지난 수년간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을 해오다 현재는 Solmar V 선상 비디오그래퍼로 Guadalupe Island, Cortes, Revillagigedo Island(소코로섬으로 더 잘 알려짐)와 멕시코 태평양을 탐험하며 멋진 백상아리 사진과 고래, 돌고래, 돛새치 등을 촬영해 왔다. 그러는 동안 그는 코테즈해(Cortes Sea)의 상어와 만타가오리(Manta ray)의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은 불법 어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고갈되었는지를 보았고, 상어와 만타레이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멕시코 어부와 학교 아이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Revillagigedo's Archipelago, Mexico의 Pacific Giant Mantas 사진식별, 사이트 충실도, 개체수 추적, 움직임 패턴 등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수많은 해양 관련 촬영상을 수상해 왔으며 그의 작품 중 일부는 BBC 상어 시리즈 및 NetGeo, Discovery Channel 등에 사용되었다. 🐟













2017년  
 소비자가 선택한  
 풀페이스마스크

OCEAN  
 CORAL  
 TOUR

[www.oceantag.com](http://www.oceantag.com) / [oceantag@naver.com](mailto:oceantag@naver.com) / T.02.408.94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50-1 1층

NAVER 오션테크 YouTube OCEANTAG



OCEANTAG

다이빙은 물을 사랑하지만  
책은 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REALDIVING

SSI의 모든 교재는 Digital 교재입니다.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SSI Digital 교재의 우수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www.divessi.com](http://www.divessi.com)에서 회원가입후 SSI 앱을 다운받으시면,  
혁신적인 3가지 SSI Digital 교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Try Scuba, Snorkling, Try Freediving)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5 대호프레조빌 201호 (서초동 1604-19)  
Tel : 02) 525-0977 Fax : 02) 587-0392 E-mail : [korea@divessi.com](mailto:korea@divessi.com)

[www.divessi.com](http://www.divessi.com)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세부 막탄섬** 다이빙

NEW

# GRAND BLEU RESORT

뉴그랑블루리조트

- 일상으로부터의 럭셔리한 휴식
- 다이빙 투어의 편안한 일정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의 초대
- 53개의 프라이빗한 객실 운영
- 오션뷰 레스토랑
- 럭셔리한 인테리어

## 아름다운 바닷속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뉴그랑블루의 다이브 시스템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서의 다이빙은 해변, 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다이빙 포인트라도 리조트에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오전, 오후, 야간에 각각 다른 포인트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뉴그랑블루리조트의 다이브 시스템은 자체 공기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이브 장비 또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대형 방카와 스피드 보트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의 선택에만 주어지는 최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섬 주변의 막탄섬을 기준으로 보홀섬의 발리카삭, 말라파스카, 모알보알, 수밀론, 아포 등의 주변 바다는 수온이 따뜻하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명도를 자랑하며 서로 다른 컬러를 지닌 다이빙 포인트로 구성되어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 전세계 дай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쿠버다이빙 최적의 장소입니다. 뉴그랑블루 리조트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의 경험을 떠나보세요!



뉴그랑블루리조트

대표전화 070 4845 3122 / 세부전화 0917 321 8282

홈페이지 [cebutour.co.kr/xe/home](http://cebutour.co.kr/xe/home) / 이메일 [newgrandbleu@gmail.com](mailto:newgrandbleu@gmail.com)

주소 Punta-enganu, Lapu-lapu city, Cebu, Philippines



# Learn to Scuba Dive with BSAC Korea

## BSAC SDC

- 산소처치
- 기본생명구조술
- 자동제세동기
- 실제적인 구조운영
- 라이프세이버
- 아이스 다이빙
- 어드밴스드 다이빙 테크닉
- 수색과 인양
- 디지털 수중사진
- 스마트 비디오
- 수중 비디오
- 수중 비디오 전문가
- 수중 스쿠터
- 싱글 텍 다이빙
- 다이빙 계획과 매지니먼트
- 나이트록스 블렌더
- 어드밴스드 가스 블렌더
- 트윈셋 다이빙
-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 가속감압절차
- 스포츠 혼합기체 다이빙
- 어드밴스드 혼합기체 다이빙
- 프리 다이빙
- 재호흡기 다이빙

### 서울

김갑수	젊은 다이버들의 모임	010-4109-6831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 302동 705호
김한	HEALING SCUBA CENTER	010-3591-013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512호
박동두	TourScrap	010-5184-45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13 여행박사 4층 투어스크랩
윤상필	BLUE SCUBA	010-3757-6333	서초구 양재동 285-2 소암빌딩 302
정상근	Club Blue Marine	010-3775-571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1길 3(오금동 2층)
최우집	Seoul Sports Center	010-7296-75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지하 1층
최종인	J-MARINE	010-5275-0635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6번지 1층

### 강원

권기훈	38 SCUBA RESORT	010-5473-30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8-15
김찬호	양양레저	010-6370-0678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103
김창문	영진아쿠아존	010-9058-993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4-16
박영남	송호대학교	010-4572-660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66번지 스포츠레저과 송호대학교
박철웅	Pax Scuba House	010-5127-6887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1길 37
이명종	유원레포츠	010-5364-0333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32
이주일	씨드림 리조트	010-5365-1247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39-1
이종도	GOGOGO RESORT	010-9304-689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화로 455-3
임창근	Aqua Gallery Marine Resort	010-3372-140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48-11
장동국	FLIPPER Diving Centre	010-4703-81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0-1
최성환	영금정 스쿠바	010-4340-5528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길 93-5

### 충청

김현섭	THE KRAKEN SKINSCUBA	010-3026-099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1121 A동 2층
-----	----------------------	---------------	-------------------------

### 해외

간영훈	Sinchun Divers	070-4686-1901	Panglao Tropical Villas, Panglao, Bohol Philippines
김성수	ATO Resort & Dive Center	070-8638-4547	4202, solo, Mabini, Batangas, Philippines
김용식	M.B. OCEAN BLUE	070-7518-0180	Panagsama Beach 6032, Moalboal, Cebu, Philippines
박진호	EDEN DIVE	070-4645-2016	Phillipine, Bohol, Panglao, clijo redpartm resort
장국삼	BLUE DREAM CEBU	070-4644-7005	Queens Land Beach Resort Punta Engano Mactan Cebu
장국삼	BLUE DREAM PALAU	070-5025-7005	P.O.BOX 1547 Koror, palau
정재욱	CSAC	070-4028-4563	47151 Morse Tessace Fremont, CA 94539
윤상선	Blueshark Diving Center	63-927129852	Blueshark Dive Center, Buyong Maribago Lapu Lapu City, Cebu Phillipine
한종훈	ANILAO SCUBA DIVE CENTER	070-7563-5352	4202 Sanjose. Mabini, Batangas, Anilao dive center
최원철	Club CEDA	070-4366-2400	Club CEDA, Hadsan Beach Complex, Brgy. Agus, Lapulapu City, CEBU



Come and dive with us!

경기

김영중	뉴서울다이빙풀	010-3732-4942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B3
김홍덕	그린센터 스쿠버 풀장	010-8875-777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동안길 100 그린환경센터 문화관 스쿠버풀
이기호	MP KOREA	010-5003-22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4-327
이우철	BUBBLE BUBBLE DIVING	010-6390-74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6-3 에이스타워
이정훈	TOP DIVING TEAM	010-4118-61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352-3번지
유종범	인어와 마린	010-5346-33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78번지 로얄스포츠허터
안재만	ZEUS SCUBA	010-3636-959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58-4번지 N타운 403호
조백종	The Sea Pirates	010-6361-654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23 용인대 화랑

전라

김옥주	MARINE BOY	010-7227-5375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 체육대학
민성용	GSAC	010-2286-332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5-13
박종현	DIVING WORLD	010-4691-6663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6-16 다이빙월드
임종율	남원 스쿠버 아카데미	010-3115-1289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41-3(죽향동)
차준열	HANSEO UNIV	010-3679-6593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무도경호학부

경상

구재서	Anemone	010-2935-1355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2길 48-1
김성식	다사 스쿠버	010-3798-939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8
박재경	WOW SCUBA CLUB	010-2560-2383	부산 영도구 동삼2동 1035-8
서동수	부산잠수센터	010-2957-509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66-24
신창민	블루드림호&스킨스쿠버	010-7761-584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로 80 1층
이상호	BUBBLE STORY	010-2504-8184	울산 남구 삼산동 1479-1, 굿모닝클리닉 9층
이유식	수중날개 스킨스쿠버	053-582-1078	경북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10번지
이영훈	한국해양산업 주식회사	010-9192-3029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111번길 31 신성빌딩 4층
장세운	한국해양생태연구소	010-9214-5157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8-1 4층
최경식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314
최연진	1Day 2 Tank	010-9073-8537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 5길 12-15

제주

강상혁	타크라 다이빙	010-9118-4620	제주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68
김윤석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216
손철수	찰스다이브	010-6798-2002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15-4
안진환	걸라스쿠버	070-4418-9891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흙담술로 26-2
정윤현	BLUE MARINE DIVE CENTER	010-5141-9797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31 월드컵 경기장 내
황철상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1호관 1108-1호





Adventure with Experience, BSAC Korea!  
BSAC Korea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BSAC**  
Dive with friends

스쿠바 다이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63년이 넘는 BSAC 역사 또한 몇몇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BSAC는 다이빙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이빙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국철(서울)  
가자 세계로  
010-5150-5674  
phils114@hanmail.net



최종인(서울)  
J-MARINE  
010-5275-0635  
spkji@naver.com



정상근(서울)  
BLUE MARINE  
010-3775-5718  
skjeong@uos.ac.kr



김윤석(제주도)  
COBA DIVING SCHOOL  
010-5254-7710  
seaplus@hanmail.net



김한(경기도)  
HEALING SCUBA CENTER  
010-3591-0133  
khan0426@hanmail.net



이기호(경기도)  
MP KOREA  
010-5003-2255  
mcbobos@hanmail.net



황철상(제주도)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010-5580-3971  
kanlg@naver.com



서동수(경상도)  
부산잠수센터  
010-2957-5091  
marinessu@hanmail.net



장동국(강원도)  
FLIPPER Divng Centre  
010-4703-8110  
judo-dk@hanmail.net



최경식(경상도)  
원잠수해양리조트  
010-6823-4277  
seaonee@hanmail.net



이민수(서울)  
AQUA ZONE  
010-7166-4656  
ovlman@naver.com



박재경(경상도)  
WOW SCUBA CLUB  
010-2560-2383  
gyoungo@hanmail.net



김용식(필리핀)  
M.B. OCEAN BLUE  
070-7518-0180  
dive1@naver.com



김옥주(전라도)  
MARINEBOY  
010-7227-5375  
sociology99@naver.com



이진영(경기도)  
J.Y. SCUBA  
010-6211-1847  
l0j1y2@nate.com



이상호(경상도)  
BUBBLE STORY  
010-2504-8184  
rcn8xx@naver.com



최우집(서울)  
서울스프츠센터  
010-7296-7522  
cwoo752275@hanmail.net

BSAC Korea  
SINCE 1953  
www.bsac.co.kr



# DIVE-AWAY-LIVEABOARDS

## Discover Indonesia Aboard Of The “LIKE INDONESIA”

ILIKE INDONESIA는 여러분의 리브어보드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통적인 선박인 Phinisi(피니시)를 기본으로 다이빙의 편리함을  
결합한 특별한 리브어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물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요리사와 풍부한 경험과 친절을 더한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생물과 건강한 산호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은  
MSY ILIKE 리브어보드와 함께 여러분의 추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Komodo  
Alor  
Maluku  
Banda Sea  
Triton Bay  
Raja Ampat  
Forgotten Islands



## Discover Maldives Aboard Of The “MALDIVES EXPLORER”



연중 따뜻한 물과 대형어종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다이빙 여행지 중 하나인  
MALDIVES 몰디브!

자연 상태의 고래상어와 곳곳에 위치한 클리닝스테이션에서는 만타가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만날 수 있는 3~4종의 상어, 예쁜 색상의 물고기들과 커다란 무리를  
이루는 물고기 등 편안한 다이빙 환경에서 만나는 멋진 수중세계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몰디브로 초대합니다.

특히 몰디브만의 특별한 다이빙시스템으로 다이빙과 럭셔리 크루징을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됩니다. “Maldiver Explorer”의  
모든 스탭들은 여러분의 다이빙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 Monster Worm – The Bobbitt Worm Story

## 괴물 벌레 – 보빗 웜

Text by David Behrens / Photos by Kevin Lee  
글 데이비드 베렌스 / 사진 케빈 리 / 번역 편집부

Many of us remember the 1993 story of Lorena Bobbitt, an unhappy housewife who took out her displeasure of her husband, John, sexual advances by slicing off his penis with a large, sharp kitchen knife, while he lay asleep in bed. In the 1990's a team of us diving in the Philippines came across a monster worm that brought back the nightmare memories of the Bobbitt incident. When we published "Coral Reef Animals of the Indo-Pacific" in 1996, we gave the description of this "monster worm" the moniker – the Bobbitt Worm. It stuck.

많은 사람들이 1993년에 있었던 로레나 보빗(Lorena Bobbitt)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불행한 주부로 남편 존이 침대에서 잠든 사이 크고 예리한 식칼로 그의 음경을 잘라내 남편의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불쾌감을 표출했다. 1990년대에 필리핀에서 다이빙을 하던 우리 팀은 이런 보빗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괴물 벌레와 마주쳤다. 우리는 1996년 '인도-태평양의 산호초 동물들'이란 글을 발표하였을 때 이 '괴물 벌레'를 기술하면서 보빗 웜(Bobbitt Worm, 우리나라에서는 왕털갯지렁이라고 함)이란 별명을 붙였다. 그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Like Lorena Bobbitt, our Monster Worm stands ready to strike an unknowing victim.  
로레나 보빗(Lorena Bobbitt)처럼 우리의 괴물 벌레도 곧추서서 포식자를 알아채지 못하는 희생물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다.

Worms have always induced a squeamish reaction for most of us. They come in hundreds of shapes and sizes (see our Scuba Diver article – May/June 2013).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many flamboyant flatworms, colorful Christmas tree worms and even those spiny, stinging bristle worms. None of these make us think of horrific monsters, like the Bobbitt worm, however.

벌레류를 보면 늘 우리는 대부분 비위가 약한 반응을 보였다. 벌레류는 형태와 크기가 수백 가지다(스쿠바 다이버지 2013년 5/6월호 게재 글 참조). 우리는 모두 현란한 편형동물,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 웜, 가시가 있고 침을 쏘는 다모류 등 많은 벌레류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을 보면서도 보릿 잎처럼 끔찍한 괴물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These examples of flatworms, Christmas tree worms and bristle worms show the diversity of form and color seen across worm groups. 사진에서 보듯이 편형동물, 크리스마스트리 웜 및 다모류와 같은 예들은 벌레류에서 관찰되는 형태와 색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Our second trip to the same region in Batangas, Philippines, was joined by internationally recognized photographer, Roger Steene. This crazy Ozzie’s goal for the trip was to photograph and hopefully collect a specimen of this monster. And he did. After locating a worm, he fabricated a primitive triangular snare, and positioned it over the worm’s borough. Steene was then able to coax the worm out by dangling a small fish above the borough, finally lassoing it with a shoe lace. The specimen was over ten feet long and had jaws six inches wide. Lorena Bobbitt would have been pleased. We sent the specimen to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for taxonomists to describe, but learned that it already been given a scientific name in the 1700’s.

우리가 위와 동일한 필리핀 바탕가스 지역에 두 번째로 들렀을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 로저 스티(Roger Steene)이 합류했다. 그 여행에서 이 광적인 호주인의 목표는 우리가 주목한 괴물 벌레를 사진에 담고 가급적 그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해냈다. 벌레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는 원시적인 삼각형 올가미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을 벌레의 굴 위에 위치시켰다. 그런 다음 스티는 굴 위에서 작은 물고기를 대롱대롱 흔들어 보임으로써 벌레를 구슬려 나오게 할 수 있었으며, 결국 그 벌레를 신발 끈으로 잡았다. 그 표본은 길이가 3m가 넘고 턱의 너비가 약 15cm이었다. 로레나 보빗이었다면 기뻐했을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분류학자들이 기술하도록 그 표본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으로 보냈으나, 그 벌레에는 이미 1700년대에 학명이 부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Full extension of worm from borough. Jaws wide open. Ready to attack. 벌레가 굴에서 완전히 뿔어 나와 있고 턱을 딱하니 벌리고 있어 공격 직전이다.

Worms feed in various ways. Many species are predatory and use an eversible proboscis or mouth to capture and secure prey. Some groups are deposit feeders. Those species with a circular fan or feather-like plume, feed by filtering food from the water column with this structure.

The newsworthy John and Lorena Bobbitt story tells a tale similar to our monster worm – wait and attack. The only difference is that our monster worm does not discard its prey in a nearby field. Incidentally, once the severed penis was found by police, surgeons were able to reattach it.

벌레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한다. 많은 종들이 포식자이고 외번(外飜) 가능한 구문부(口吻部)(eversible proboscis, 밖으로 뒤집을 수 있는 주둥이) 또는 입을 사용하여 먹이를 포획해 제압한다. 일부 종들은 퇴적물 섭식동물(deposit feeder)이다. 원형의 부채 또는 하늘하늘한 깃털이 있는 종들은 이러한 구조물로 수중에서 먹이를 걸러 섭취한다.

뉴스거리가 된 존과 로레나 보빗의 이야기는 기다렸다 공격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소개하는 괴물 벌레의 경우와 비슷하다. 유일한 차이는 우리의 괴물 벌레가 그 먹이를 집 근처에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로레나 사건에서 잘려진 음경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외과 의사들이 다시 접합할 수 있었다.



The feather-like plumes of these tube worms filter food particles directly out of the water. 이들 관벌레(tube worm)의 하늘하늘한 깃털은 물에서 직접 먹이 입자를 거른다.



The Bobbitt Worms body glistens in rainbow colors from the camera's light. 보빗 웜의 몸이 카메라 플래시의 빛을 받아 무지개 색으로 번쩍인다.

The Bobbitt Worm, scientifically known as *Eunice aphroditois* Pallas, 1788, is a polychaete worm. It is a surprising coincidence that the name “aphroditois” refers to “Aphrodite” the Greek Goddess of Love. How unlikely is it that an animal given this name in the 1700’s is one that reminds us of Lorena’s woefully unloving incident?

1788년 유니스 아프로디토이스 팔라스(*Eunice aphroditois* Pallas)란 학명으로 알려진 보빗 웜은 다모류(多毛類, polychaete)다. ‘아프로디토이스’란 이름이 그리스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를 말한다. 이는 놀라운 따름이다. 1700년대에 이러한 이름이 주어진 동물을 보고 우리가 애정이 없어 벌어진 로레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은가?

Polychaete worms get their name from their anatomy in which each of many segments of the body bears two pairs of parapodia and stiff chitinous bristles called setae. Some species have well developed jaws and mouth structures, like our hideous monster worm, here.

다모류의 이름은 몸의 많은 체절 각각에 두 쌍의 측족(側足, parapodia)과 뾰뚱한 키틴질 털인 강모(剛毛, setae)가 있는 해부구조를 하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일부 종들은 우리의 흉측한 괴물 벌레처럼 턱 및 입 구조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

The Bobbitt Worm uses the tentacles around the mouth to sense potential prey. Recall, it has no eyes. Its most efficient anatomical characteristic is its large serrated chitinous jaws that snap shut instantaneously when dinner swims to close. As worms go – this is a monster.

Biologists know very little about this worm's actual biology, such as when they become sexually mature. We do know that they do not mate, but are broadcast spawners releasing sperm and eggs into the water column to find one another. We also suspect that the jaws release a strong toxin upon capture of its prey for the purpose of quickly immobilizing the prey, which is often much larger than the worm could handle without the toxins help. This toxin works similarly to that of a Komodo Dragon who can take down prey 2-3 times their own size.

Bobbitt Worms measuring ten plus feet are documented attacking divers who accidentally ventured too near. Fingers have been lost by a diver in Papua New Guinea by this worm's razor sharp jaw. At least there has not been a repeat of Lorena's work. The internet is full of videos showing this predator dragging its prey down into its subterranean borough.

보빗 웜은 입 주위의 촉수들을 사용하여 먹잇감을 감지한다. 이 벌레에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가장 효율적인 해부구조물은 톱니 모양의 키틴질 턱으로, 이 구조물은 먹이가 유영하여 가까이 오는 즉시 탁 다문다. 벌레류가 그렇듯이 이 벌레는 그야말로 괴물이다.

생물학자들은 이들 벌레가 언제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는지 등 이들의 실제 생활 현상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들이 짝을 짓지 않고 정자와 난자를 수중으로 방출하여 수정하게 하는 대량 산란 벌레류(broadcast spawners)란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먹이를 포획하자마자 턱에서 강한 독소를 분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은 독소의 도움 없이 다루기에는 훨씬 더 큰 먹이를 신속히 제압하기 위함이다. 이 독소는 자신의 덩치보다 2~3배 큰 먹잇감을 쓰러뜨릴 수 있는 코모도왕도마뱀의 독소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길이 3m가 넘는 보빗 웜이 우연히 너무 가까이 다가간 다이버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파푸아 뉴기니의 한 다이버는 이 벌레의 극도로 날카로운 턱에 손가락을 잃었다. 적어도 로레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은 없다. 인터넷에는 이 포식자가 먹이를 지하 굴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많다.



Curiously this is shallow water ambush predator living in only a couple feet of water, where nearshore fishes forage, and children play.

이상하게도 이 벌레는 연안 물고기가 먹이를 찾고 아이들이 노는 불과 수심 1m 이내의 천해(淺海)에서 사는 매복 포식자다.

The Bobbitt Worm uses the banded tentacles around the mouth to sense nearing prey. 보빗 웜은 입 주위에 있는 줄무늬 모양의 촉수들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먹이를 감지한다.

Many coral reef species use monster jaws to capture their prey, but none like the Bobbitt Worm. Its glistening jaws, with prominent denticles not only out master a fishes speed to escape, but are able to hold its squirming captive until its toxins quiet the kill. Drawing the prey down into the borough insures additional success of capture. A perfect “monster” design.

산호초에 서식하는 많은 종들은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 괴물 같은 턱을 사용하나, 그 어떤 종도 보빗 웜 같지는 않다. 두드러진 치상돌기(齒狀突起, denticle; 이빨 모양으로 도드라져 나온 구조물)가 달아나는 물고기의 속도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번쩍이는 턱은 독소로 죽음에 이르면서 꿈틀거리는 포획물을 붙잡아둘 수 있다. 먹이를 굴로 끌어내리면 포획의 성공은 확실해진다. '괴물' 같은 완벽한 설계다.



Lizardfish and Stargazers are ambush hunters like the Bobbitt Worm and use their large jaws with sharp teeth to snare entire fish.

매룡이(lizardfish)와 통구멍(stargazer)은 보빗 웜처럼 매복해 사냥하는 물고기로, 이가 날카로운 큰 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통째로 포획한다.



Bobbitt Worms do not discriminate about prey. Having no eyes, they select prey only by a sense of something swimming to near or a touch on their sensitive oral tentacles. Once sensed, the worm's jaws snap shut in the blink of an eye.

Although comparison between this worm and the horrific Bobbitt story were meant only for the humor, one must admit that the similarities of flailing blades is revealing. Both have the intent to strike quickly and not miss their target. Lorena did her deed and was out of the house and down the street in her car in mere seconds, only slightly slower than our monster worm's actions.

보빗 웜은 먹이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눈이 없으므로 이들은 유영하여 다가오는 대상을 감지하거나 민감한 구강 촉수들에 접촉되는 것에 의해서만 먹이를 선택한다. 일단 감지가 되면 이 벌레의 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탁 다문다.

이 벌레와 끔찍한 보빗 이야기를 비교한 것은 그저 웃자고 한 얘기였으나, 둘 다 행동이 전광석화처럼 날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둘 다 목표물을 신속히 덮쳐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로레나는 일을 감행하고는 불과 몇 초 만에 집밖으로 나가 차를 몰고 갔는데, 단지 우리의 괴물 벌레가 하는 행동보다 약간 더 느릴 뿐이었다.



A successful catch by the monster worm.  
괴물 벌레의 성공적인 포획.

The worm however will not be found guilty, due to insanity, by the court of law, each time it attacks, as Lorena was. Contrary to several popular reports female Bobbitt Worms do not chop off the penis of the males, simply because they don't have one.

하지만 이 벌레는 매번 공격할 때마다 로레나의 경우처럼 무모한 행동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몇몇 대중적인 보고서들과 달리 암컷 보빗 웜은 수컷의 음경을 잘라내지 않는데, 그저 수컷에 음경이 없기 때문이다. 🐛



**케빈 리(Kevin Lee)**  
해양 생태계 촬영 전문가  
LA 수중사진협회 회원



**데이비드 베렌스(David Behrens)**

베테랑 다이버이자 수중사진가로 1974년 이래 해양 생물학에 종사  
저서 : 『나새류의 행태』, 『태평양 연안 나새류』  
공저 : 『인도-태평양의 산호초 동물들』, 『동태평양의 나새류』, 『온두라스 베이 아일랜드에서의 다이빙과 스노클링』, 『다이빙 가이드 - 코스텔, 칸쿤과 리비에라 마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캘리포니아과학원의 연구원 재직  
데이비드와 아내 다이애나는 워싱턴주에 있는 해양생물 및 자연사 서적출판 및 유통업체인 'Sea Challengers Natural History Book, Etc.'을 운영

### NUDIBRANCH Behavior

David W. Behrens 저, 176쪽, 약 \$35  
New World Publications Inc. Jacksonville, Florida.  
ISBN 1-878348-41-8, 2005.10.01  
(www.fishi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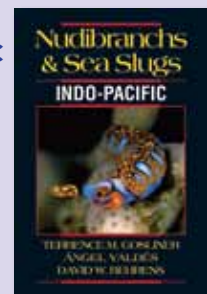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 Nudibranch & Sea Slug Identification - Indo-Pacific

Terrence M Gosliner, Angel Valdes and David W. Behrens 저, 408쪽, \$60.00  
New World Publications, Jacksonville, FL 32207 USA  
www.fishid.com/nudiindo.html

- 본서는 본고의 기고가(데이비드 베렌스)가 쓴 서적으로 온라인서점에서 구입 가능





# Northern Mariana Islands

# Saipan / Tinian

##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티니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해구(Mariana Trench)이다. 마리아나해구의 끝은 챌린저 해연 (Challenger Deep; 11,022m 수심)이고, 이 해연의 왼편을 따라 해령이 발달했는데 이 해령의 꼭대기들이 수면 위로 솟아나온 섬들이 바로 마리아나제도이다. 이 섬들을 미국의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라고 부르며, 북마리아나제도의 수도 섬이 사이판이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이 있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에 로타(Rota)섬이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의 바다는 영롱하고, 형형색색을 가진 물고기, 환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 군락, 거기에 아픔의 역사가 바다와 어우러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수중 시야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 북마리아나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북마리아나제도는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비행기로 4시간(3,200km),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1시간 20분여 거리에 있는 서태평양 한복판에 사이판(Saipan), 티니안(Tinian), 로타(Rota) 등 3개의 큰 섬 외에 모두 14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남쪽에 위치한 괌(Guam)섬은 남마리아나제도라는 호칭 대신 그냥 괌으로 부른다.

북마리아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깊이 10,900m) 근처에 위치하며, 제일 큰 섬인 사이판섬은 부속섬으로 마나가하(Managaha)섬이 있다. 사이판의 북쪽에는 패럴론데메디나라(Farallon de Medinilla)섬, 남쪽으로는 사이판 해협을 사이에 두고 티니안(Tinian)섬, 로타(Rota)섬이 있다. 북마리아나제도를 이루는 3개의 큰 섬 가운데 국제공항이 있는 사이판(Saipan)은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데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는 8.8km밖에 되지 않는 좁고 긴 섬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공식적인 세계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쾌적하게 맑은 날의 하루 평균 온도는 섭씨 27도, 연중 기온차가 1~2도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습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연중 무역풍이 불기 때문이다. 사이판 기후는 1~5월까지의 건기와 7~11월까지의 우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북마리아나제도의 원주민인 차모로(Chamorro)족은 약 4천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는 모계사회로 여자를 상당히 우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 6만 5천여 명으로 원주민 2만 5천, 필리핀인 1만 5천, 한국인 5천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영어와 차모로어를 사용하나 영어가 주로 사용된다. 종교는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많다.



차모로(Chamorro) 빌리지의 라테하우스(Latte House)

## 팁문화

사이판은 미국령이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호텔에서 메이드예겐 아침에 침대당 베게에 1불 정도, 짐을 옮겨주는 포터도 큰 짐 1개당 1불 정도 지불한다. 식당은 음식 값의 15% 정도 테이블에 팁을 남긴다. 택시도 택시비의 15% 정도 팁을 추가로 지불한다.

## 시차

우리나라와 사이판의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후 2시면 사이판은 오후 3시가 된다.

## 전기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 비자

기본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입국할 때 미국비자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비자 면제 지역이다.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로 늘어나고 H-2B 취업 비자를 무제한으로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또는 미국령에 입국하려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미국입국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면제 된다.

###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란 미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인 EU, 일본,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 등 37개국 국민들은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여행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 접속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여행허가를 발급받는데 EST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6개월 이상 유효)이 필요하다.

## 가는 방법

인천과 김해에서 북마리아나제도의 사이판을 직항편으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가 있다.



사이판 공항

## 항공편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아시아나 OZ625	매일	20:15	01:30+1
사이판→인천	아시아나 OZ626	화~일	2:50	6:30
부산→사이판	아시아나 OZ607	수, 토	21:00	01:50+1
사이판→부산	아시아나 OZ608	목, 일	3:10	6:20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제주항공 7C3402	매일	09:30	15:00
	제주항공 7C3404	매일	22:10	03:40+1
사이판→서울	제주항공 7C3401	매일	16:00	19:45
	제주항공 7C3403	매일	4:45	8:30

구간	편명	운항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인천→사이판	진에어 LJ651	매일	7:30	13:10
	진에어 LJ652	매일	14:10	18:05



공항 내부

## 사이판에서 티니안이나 로타로 가는 경비행기

경비행기는 사이판에서 티니안이나 로타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국제공항 옆에 위치한 국내선 터미널에서 스타 마리아나스 에어(STAR MARIANAS AIR)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4인승에서 10인승까지 다양한 크기의 경비행기가 운행된다. 약 3주 전에 예약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 Star marianas air

www.starmarianasair.com

+1 670 433 9998

Saipan - Tinian 하루 12편 왕복, \$49.50 제한수하물 1인 15kg

Saipan - Rota 하루 3편 왕복, \$109.50 제한수하물 1인 15kg



## S 사이판 Saipan

사이판(Saipan)은 전체 115.39km<sup>2</sup>의 면적으로 서태평양의 마리아나제도에 속하는 북마리아나제도 1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자 수도이다. 주도 수수페(Susupe)와 최대 도시 가라판(Garapan)도 사이판에 있다. 사이판섬은 20km의 길이와 9k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남북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하고 있는 사이판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사이판섬의 서쪽 해안은 모래 해변과 큰 규모의 산호초(Coral Reef)가 자리 잡고 있다. 동쪽 해안은 주로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절벽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가장 높은 지점은 474m 높이의 타포차우(Tapochau)라 불리는 석회암층의 산이다.



마나가하섬 Managaha Island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 T 티니안 Tinian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최고 높이는 166m이고, 면적 약 100km<sup>2</sup>, 인구 2,000여 명의 작은 섬이다. 비행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섬의 중심가인 산호세 마을(San Jose Village)이 조성되어 있다. 티니안섬에는 마을이 이 산호세 하나밖에 없으며 시청, 학교, 병원, 호텔 등 주요 시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주민 대부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 섬의 남쪽 타기비치(Taga Beach)는 고대 차모로 왕족의 전용 해변이었던 곳으로 그림책 속 수채화처럼 에메랄드빛 해변과 아담한 절벽, 눈부신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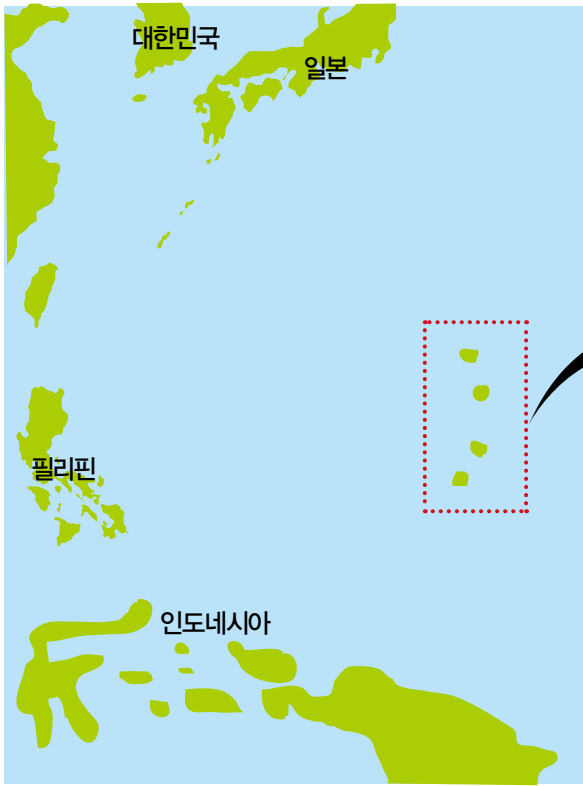
블로홀 Blow-Hole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 R 로타 Rota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로타(Rota)섬은 연방의 최남단에 있다. 로타섬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그 위에 산호 석회암이 덮여 계단 모양의 단구 지형을 이루며, 서식하는 식물상과 동물군이 다양하다. 전체 육지면적은 85km<sup>2</sup>, 가장 높은 곳이 491m이다. 로타섬에는 면적이 가장 큰 마을은 송송(Songsong)이며, 인구도 로타국 제공항이 있는 시나팔루(Sinapalu)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가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섬에는 마리아나제도 고유의 차모로(Chamorro)족 문화가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다.



라테스톤 채석장 Latte-Stone-Quarry (출처 : 마리아나관광청)



필리핀해



태평양



## 사이판 다이빙 환경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해구(Mariana Trench)이다. 마리아나해구의 끝은 챌린저 해연(Challenger Deep; 11,022m 수심)이고, 이 해연의 왼편을 따라 해령이 발달했는데 이 해령의 꼭대기들이 수면 위로 솟아나온 섬들이 바로 마리아나제도이다. 이 섬들을 미국의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라고 부르며, 북마리아나제도의 수도 섬이 사이판이다. 사이판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경비행기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티니안(Tinian)섬이 있다.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30분 거리에 로타(Rota)섬이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의 바다는 영롱하고, 형형색색을 가진 물고기, 환상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호 군락, 거기에 아픔의 역사가 바다와 어우러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수중 시야와 볼거리를 선사한다.

한국에서 4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사이판은 연중 기온변화가 없다. 평균온도는 27도, 습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연중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많이 습하지는 않다.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7~9월 사이의 우기에는 잠깐씩 뿌려지는 열대성 폭우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 이 시기에는 태풍도 주의해야 한다.

사이판의 수중은 연중 30m의 시야를 자랑한다.

### 다이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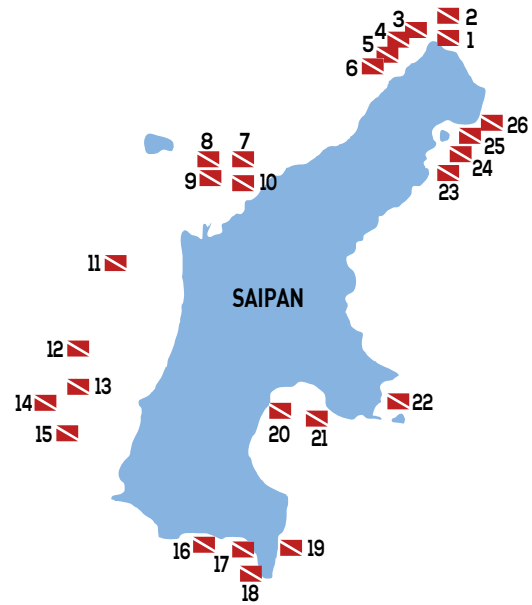
사이판의 리조트는 객실과 다이빙만 서비스하는 곳이 많다. 식사는 손님이 별도로 해결한다. 보통 아침식사는 손님이 한국에서 준비해간 식재료를 요리를 해서 해결하거나 인근 상점에서 식재료를 구입, 또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해결한다.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한다. 저녁식사는 가라판 시내에 있는 서양식, 한국식, 중국식, 태국식 식당 등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 사이판 다이빙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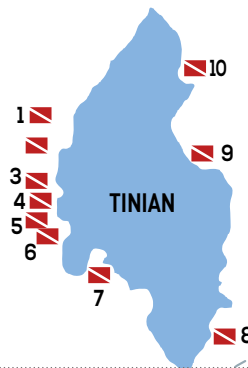
### SAIPAN

1. Spot Light
2. Banzai
3. Wing Mermaid
4. Wing Arch
5. Wing Crevasse
6. Wing Beach
7. Eagle Ray City
8. B-29
9. Ship Wreck One
10. Ship Wreck Two
11. Anchor Point
12. Oleai
13. Ice Cream
14. Dimple
15. Pipe Point
16. Obyan
17. Boy Scout
18. Naftan
19. Naftan Wall
20. Lau Lau
21. Lau Lau Wall
22. Forbidden Island
23. Super Hole
24. Bird Island
25. Captain's Chair
26. Grotto



### TINIAN

1. Dump Coke North
2. Dump Coke South
3. Tinian Grotto
4. Diablo
5. Crevasse
6. Fleming
7. Two Coral
8. Suicide Cliff
9. Taga Point
10. Shooting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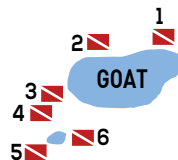
### TATSUMI REEF

1. Manta Head
2. Half Moon
3. Glant Rock
4. Coral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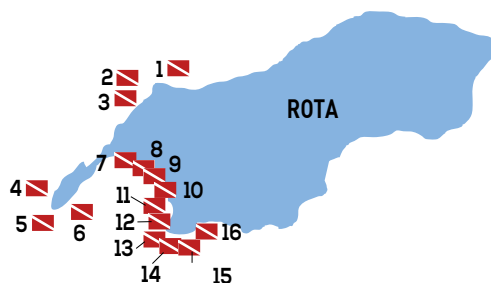
### GOAT ISLAND

1. Drop Off
2. Big Crevasse
3. West Corner
4. Dolphin City
5. Bomb Point
6. Shark Point



### ROTA

- |                    |                        |
|--------------------|------------------------|
| 1. Salingai Arch   | 9. Cable Run           |
| 2. Salingai Tunnel | 10. Seven Screws       |
| 3. Pinatang Reef   | 11. Shoun Maru         |
| 4. Rota Hole       | 12. Snake Eyes Express |
| 5. Hamom Drop Off  | 13. Coral Garden       |
| 6. No. 1 Point     | 14. Sub Chaser #2      |
| 7. Table Top       | 15. Pona Point         |
| 8. A-Frame         | 16. Pearlman Tunnel    |



# 사이판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

사이판섬은 20km의 길이와 9km의 폭을 가지고 있다. 남북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하고 있는 사이판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사이판섬의 서쪽은 모래 해변과 큰 규모의 산호초(Coral Reef)가 자리 잡

고 있다. 사이판섬은 작은 섬이기 때문에 다이빙샵이 어디에 있든 다이빙사이트는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 그로토 Grotto

사이판 최북단에 위치한 그로토(Grotto)는 절벽과 큰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형지물이 웅장한 사이판의 대표적인 다이빙사이트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로토 다이빙은 보트 다이빙도 가능한 곳이지만 주로 비치 다이빙을 한다. 그로토에서 비치 다이빙을 하기 위해선 1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20kg 이상 되는 다이빙 장비를 메고 왕복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코스이다. 그로토 다이빙은 반드시 중급 이상의 다이버만이 할 수 있는 곳이다. 초보 다이버에게는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치에서 100여 개 이상의 계단을 내려가면 큰 물웅덩이가 보인다. 이 웅덩이로 입수하여 하강하면 외해 쪽으로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굴의 안쪽은 시간대에 따라 빛의 양이 다른데 형형색색이 변하는 그로토 모습을 볼 수 있다. 3개의 구멍 중 하나를 통하여 외해 쪽으로 나오면 지형 또한 역동적이지만 수중생물도 제법 볼 수 있는데 바다거북, 상어, 바라쿠다, 스팅레이 등 대형 어류들을 만날 수 있다. 매년 3~4월에는 고래상어도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그로토 입구 모습



그로토 입수 지점



그로토 외해에서 만난 바라쿠다 무리



그로토 굴 내부에서 외해쪽으로 본 3개의 구멍





스팟라이트

## 스팟라이트 Spot Light

사이판 북부에 있는 가장 환상적인 사이트로 절벽의 일부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의 천장에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에서 태양 빛이 들어가 바로 스팟라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스팟라이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이 광경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시간대는 11시경부터 스팟라이트가 만들어진다. 이곳은 조류와 파도가 높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날이 여름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여름에도 다이빙 가능 여부는 바다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윙아치 Wing Arch

윙비치에서 가까운 지점에 드롭오프가 있고, 안쪽에는 윙아치가 있다. 월다이빙 지역이며, 북쪽으로 이동하다 경사면을 내려가면 깎아 지르는 협곡이 장관이며, 바다거북, 상어, 트레발리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마크로 생물도 많다.



윙아치

## 윙비치 Wing Beach

윙비치(Wing Beach)는 5~7월 사이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리프 밖으로 펼쳐지는 수중경관이 장관이다. 박력이 있는 해저 지형을 좋아하는 다이버에게 인기 있다.

## 만세절벽 Banzai Cliff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일 년에 북동풍이 불지 않는 4~7월 사이에만 가능하다. 사이판의 최 북단 다이빙사이트이며 무엇보다 대형 생물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운이 좋으면 만타레이나 돌고래, 나폴레옹 피시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반드시 보트를 이용해야 하는 매우 박력이 넘치는 다이빙사이트로 중급자 이상의 다이버에게 권장하며, 반드시 현지의 유능한 다이버 가이드를 동행해야만 다이빙이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이 군수물자를 수장시켰다는 이유로 '백만 달러의 홀(Million Dollar Hole)'이라고도 불린다.



만세절벽



침몰선



스폰피쉬



잠수함

## 침몰선 Wreck Ship

침몰선(Wreck Ship) 사이트에는 전장 40m 정도의 선박 잔해가 마나가하섬 뒤쪽 10m 수심에 조용히 잠겨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송선인 쇼안마루(Shoan Maru)가 침몰되어 있다. 선체는 폭격을 당해 많이 부서져 있는 상태이며 중간 갑판과 선수와 선미 일부분 정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 주위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고, 다양한 작은 수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인 추모비를 볼 수 있다. 시간대가 맞으면 관광 잠수함을 만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바다거북, 상어, 스팅레이 등을 볼 수 있다.



B-29

## B-29

침몰선(Wreck Ship) 사이트 북단 약 1km 지점에 수심 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B-29 사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폭격기 B-29의 잔해이며 초보자 코스로도 적당하다. 폭격기는 물고기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당시에 위용을 자랑했던 폭격기답게 거대한 프로펠러와 엔진 덩어리 그리고 긴 날개가 압도적이다. 여기서도 일본인 추모비, 한국인 추모비가 기체의 오른쪽 날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화이트팁샤크(White Tip Shark), 스팅레이(Sting Ray), 대형 해삼 등을 볼 수 있다.



화이트팁샤크

## 딤플 Dimple

딤플(Dimple)은 보조개라는 뜻이다. 이 사이트는 수심 20m 정도에 완만한 경사와 직경 40m 정도의 아름다운 산호초가 펼쳐지는 지대가 있고 그 아래로는 급격한 경사로 심해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피딩을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다이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열대어가 모여든다. 또한 레드스내퍼, 바다거북, 자이언트 바라쿠다, 곰치 등을 볼 수 있다.



나비고기 무리

## 나프탄 Naftan

나프탄(Naftan)은 사이판의 최남쪽에 위치한 사이트로 수심 10m부터 시작되는 월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시야가 아주 좋고, 운이 좋으면 드롭오프에서 돌고래, 돛새치 등 대형 생물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때에 물속에서 올려다보면 수면에 비치는 하늘이 아름답다. 조류가 강할 때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라쿠다 무리



곰치

## 오비안 비치 Obyan Beach

오비안 비치는 사이판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 비치다이빙 또는 보트다이빙 모두 가능한 곳이다. 비치다이빙을 할 때에는 이안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우며 맑고 투명한 시야를 자랑한다. 바닥이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서 가든일(Garden Eel) 군락을 볼 수 있다. 또한 바다거북, 상어, 스팅레이(Sting Ray) 등도 볼 수 있다.



오비안 비치/가든일 무리

## 라우라우 비치 Lau Lau Beach

라우라우 비치(Lau Lau Beach)는 다이빙이 연중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그로토(Grotto) 다이빙을 하기 전에 체크 다이빙을 하는 장소로 수심이 일정하므로 초급자가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다. 이곳은 비치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 장비를 메고 무릎까지 잠기는 해안을 30m 정도 걸어서 입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풀풋형 핀을 사용하는 다이버는 맨발로 걷기가 힘든 곳이다. 입수하는 지점부

터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로프를 따라 입수한다. 진행하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의 유류를 공급하던 송유관 잔해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곳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성적이며 해안부터 이어진 산호대가 수심이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아네모네피쉬 군락지, 바다거북, 상어, 이글레이, 전갱이 무리, 자이언트 바라쿠다 등을 볼 수 있다.



## 파이프 포인트 Pipe Point

이곳은 오래전에 바닷물을 채취하기 위해 설치했던 파이프 잔해가 있는 곳이다. 하얀 모래밭 중간에 펼쳐져 있는 산호 군락 주변으로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Eagle-Ray Cleaning Station)이 있다. 이곳에는 3~7마리 정도의 이글레이 무리를 항상 볼 수 있다. 수가 많을 때는 약 30마리 이상이 모여 든다고 한다. 또한 바다거북, 가든일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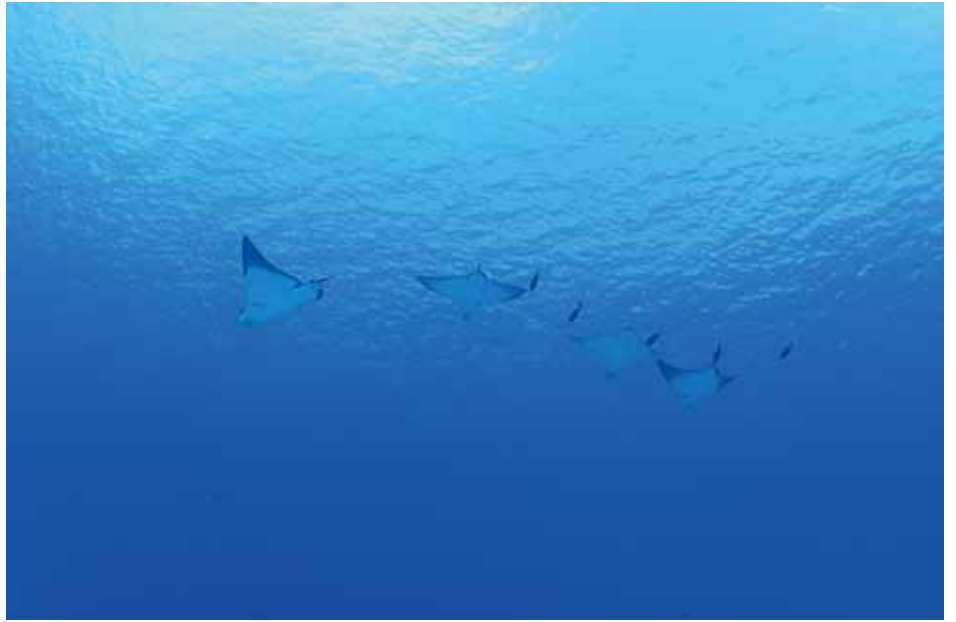
이글레이 무리

## 파이프 포인트 Pipe Point

###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 Eagle-Ray Cleaning Station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이 있는 곳은 팔라우, 몰디브, 코모도국립공원 등 더러 있다. 필자도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은 여러 곳에서 목격했지만 이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Eagle-Ray Cleaning Station)은 사이판에서 처음 목격했다.





## 티니안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

사이판섬에서 머물면서 데이트립으로 티니안섬 다이빙이 가능하다. 다이빙 보트들은 태풍이나 폭풍 주의보가 없는 한 사이판섬에서 티니안섬으로 갈 수 있다. 사이판섬과 티니안섬 사이의 해협거리는 5km 정도가 되며, 사이판섬의

스마일링 코브(Smiling Cove) 항구에서 티니안섬 서쪽 해안에 위치한 다이빙 사이트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은 60~80분 정도이다.



티니안 그로토 내부에서 본 출 모습

### 티니안 그로토 Tinian Grotto

티니안 그로토는 사이판 그로토와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사이트이다. 티니안 그로토는 12m 수심에 있는 해저 언덕이 67m 수심까지 직벽으로 떨어지는 절벽 상층부에 위치한 동굴이다. 보트에서 입수하여 절벽 외양 쪽으로 하강하다 보면 약 24m 수심 절벽에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들어가도 될 만한 굴 입구가 보인다. 이 굴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대편에 흰 출구들이 보여서 동굴이 주는 불안감은 없다.

굴은 여러 개의 입구를 통해 밖으로 드나들 수 있다. 남쪽 입구를 통하여 외양으로 나가면 빅 드롭오프가 나타난다. 맑은 날 수심 60여 m의 바닥이 내려다보이는 풍광은 감동적이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수중생물들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가시성이 좋으며 평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잔압과 수심 계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 마이 포인트 My Point

보트로 다이빙을 온 다이버들이 점심 먹는 장소로 사용하는 잔잔한 바다이다. 10m 수심 아래로 환하게 보이는 모래밭은 장관이다. 체험 다이빙 장소로도 적당하다.

### 투코랄헤드 Two Coral Head

투코랄헤드(Two Coral Head) 사이트는 커다란 산호언덕 두 개가 모래밭에 놓여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름다운 산호와 뿌리를 둘러싼 새하얀 모래, 파란색과 흰색의 대비, 게다가 화려한 물고기도 많다. 이곳은 시야가 평균적으로 좋고 물고기 피딩 장소이다.

## 덤프 코브 Dump Cove

덤프 코브(Dump Cove) 또는 덤프 사이트(Dump Site)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와 차량들을 바다에 폐기시킨 장소를 의미한다. 이곳은 차량이나 엔진들의 잔해들이 탄환들과 함께 모래 속에 드문드문 묻혀 있다. 트럭, 탱크 등 다양한 전쟁 폐기물과 산호초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준다. 이곳은 수심이 깊지 않고 조류가 없는 지형이라 초보 дай버들에게도 적당하다.



탱크 잔해



곰치

## 티니안 플레밍 Tinian Fleming

플레밍 사이트는 티니안 그로토에서 10분 거리의 수중절벽으로 티니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롭오프 사이트이다. 절벽에는 여러 개의 크랙이 있어 크랙 사이를 유명하다 보면 큰 곰치나 바다 거북 등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투시도가 높고, 아래를 보면 물 밑을 향해 빛 샤워가 쏟아지고 있어 환상적인 곳이다. 항상 조류가 있어 초보자에겐 무리이나 중상급자라면 드리프트 다이빙으로 티니안 그로토 사이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이내믹한 다이빙을 할 수도 있다.



크랙사이를 유명한 다이버들

# 사이판의 육상관광

사이판의 행정 중심지는 남쪽의 수수페(Susupe)이지만 관광의 중심지는 북쪽의 가라판(Garapan) 지역인데 이는 가라판 일대의 바다가 훨씬 아름답고 주변 산호초와 암초들이 자연방파제 역할을 해서 파도가 약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 슈가킹 파크

슈가킹 파크(Sugar King Park)는 공원이라고까지 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가라판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면 약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다. 동상 주변에는 작은 증기 기관차가 녹슨 채로 놓여있는데, 과거 사탕수수를 옮기던 것이라고 한다. 전쟁 중에 파괴된 채 방치되었다가 복원하여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 마나가하섬

'사이판의 진주' 로 불리는 마나가하섬은 세계 최고의 스노클링 명소로 섬 한 바퀴를 도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백사장과 코발트빛 바다가 일품이다.



## 메모리얼 파크

가라판 시내 끝 부근에 작은 소방서 옆에 있고, 사이판을 점령한 미 해병대 2사단, 4사단의 전몰자들을 기리는 곳이다. 작은 박물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관련된 전시물들이 약간 있는데 규모는 워낙에 작지만 나름 잘 꾸며 놓았다.



## 자살 절벽

일본군 최후 사령기지 근처의 높은 절벽. 마찬가지로 차로 접근 가능. 높은 절벽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인다. 사이판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들이 미군들의 항복 권고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 자살한 곳이다.



## 일본군 최후 사령기지

사이판 최북부 지역에 있는 곳으로 높은 절벽에 숨겨져 있다. 물론 지금은 차도가 생겨서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바위가 상하로 갈라진 천연적인 틈새에다 안쪽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사령부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쓰였던 일본군의 해안포, 전차, 어뢰의 잔해도 가져다 놓았다.



## 만세 절벽(반자이 절벽)

이곳은 자살 절벽보다 좀 더 낮은 지대의, 바다가 보이는 지역이다. 이름에서 감이 오겠지만 이곳도 일본인들이 뛰어내려 죽은 곳이다. 단 여기는 군인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몸을 피했던 민간인들이 뛰어 내린 곳이다.



## 한국인위령평화탑

15,000여 명의 한국인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한국인위령평화탑'이 있다. 탑 맨 위에 날갯짓을 하는 비둘기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원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부산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 새섬

바다 새들이 사는 '새섬(Bird Island)'은 해질 무렵이면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 말 그대로 바닷새들이 많이 머무는 섬인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나 철이 맞아야 한다.



# PRO Divers SAIPAN 프로다이버스 사이판

2016년 9월에 오픈한 프로다이버스 사이판(PRO Divers SAIPAN)은 약 20여 명의 다이버가 체류 가능한 룸(Room)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사이판에서만 15년의 경력을 가진 가이드가 있어 사이판에서 최고의 편다이빙을 서비스하고 있다.

프로다이버스 사이판(PRO Divers SAIPAN)은 가장 좋은 다이빙 교육 시설과 우수한 강사진을 갖추고 있다. 초급 레벨인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부터 프로 레벨 강사 과정까지 교육이 가능한 PADI IDC 센터이다.



대표 : 박성수, 심승보, 전용식  
전화 : 070-4255-5525  
웹사이트 : [www.prosaipan.com/](http://www.prosaipan.com/)

**고객상담문의**  
CUSTOMER CENTER

대표번호 031-336-5525  
사이판번호 070-4255-5525

이메일 : [prosaipan@naver.com](mailto:prosaipan@naver.com)

Facebook  
[www.facebook.com/prodiverssaipan](http://www.facebook.com/prodiverssaipan)

**kakaotalk** 상담가능시간 : 12:00-20:00

교육문의 Yellow ID  
@프로다이버스사이판

투어문의 Yellow ID  
@사이판다이빙

<http://plus.kakao.com/home/@프로다이버스사이판>





리조트에서 바라 본 해안 풍광



### 프로다이버스 사이판의 특징

####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PADI 전문강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과 다이빙 활동

프로다이버스 사이판에서는 전 세계 183개국과 지역에 5,700개 이상의 전문 스킨스쿠버 교육센터와 리조트, 13만 명 이상의 프로멤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PAD(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브랜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초보 수준의 교육, 다이버가 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 여행알선, 장비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강사수준까지 다이버들을 위한 모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문책임 보험가입업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다이버스 사이판'은 스쿠버 전문 책임보험(Vicencia&Buckley Insurance Services)에 가입되어 있으며 서비스와 장비 모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내외 유수의 강사진

스쿠버다이빙, 프로다이버 교육, 프리다이빙, 테크니컬다이빙, 수중사진작가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10여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다이빙 분야별 프로 강사님들이 직접 다이빙교육을 지도해 드립니다.

#### 통합 다이빙교육 시스템 적용

다이브센터, 다이빙전용물,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시설로 통합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다양한 환경의 다이브사이트가 개발되어 있어 모든 교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후 다이빙 활동까지 전담강사의 1:1 회원관리

첫 번째 다이빙교육을 진행한 PADI 강사가 다이빙 활동의 멘토로 지정되며, 다이버 자격증 취득 후 원활하게 다이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해외 다이빙 지역 소개

# Indonesia East kalimantan **Derawan Islands**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위치한  
**데라완제도**

글 구자광 / 사진 이민정(액션투어)



데리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리완제도는 데리완, 마라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이곳은 260여종의 산호들과 놀라운 거대거북, 돌고래, 만타레이, 듀공, 바라쿠다, 흥상어, 수염상어, 독이 없는 해파리, 그리고 종종 고래와 같은 대형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알라키섬은 세계적으로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일대에서 모여든 엄청난 수의 바다거북은 곱디고운 이곳의 흰 모래에 구멍을 파고 알을 묻는다. 매일 바다거북과 함께 유영을 하거나 그들이 모래에 알을 낳은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카카반섬은 안쪽에 염수호가 있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차츰 독이 없는 형태로 진화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팔라우와 카카반섬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 데라완제도(Derawan Islands)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모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데라완섬은 코랄트라이앵글 지대의 일부로 872 종의 산호초, 507 종의 산호 및 무척추 동물 (보호된 종 5 종, 조개 종 2 종, 바다 거북 2 종, 코코넛 크랩 등)이 있다.

다이빙은 광대 한 다양한 산호초 다이빙, 동굴, 벽, 그리고 해파리 호수를 포함한 석호 등 풍부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상어, barracudas 무리, mantas, whale sharks 및 매크로 생활을 볼 수 있다. 데라완군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녹색거북이 서식지가 있어 거북이들과 함께 다이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은 자바 북쪽과 술라웨시 서쪽에 위치한 보르네오 대륙의 일부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다이빙 지역인 셀레베스해 시파단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베라우(Berau) 지역의 동부 칼리만탄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라완제도는 데라완섬을 중심으로 마라투아섬, 상알라키섬, 카카반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3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260여종의 산호들과 놀라운 거대거북, 돌고래, 만타레이, 듀공, 바라쿠다, 흥상어, 수염상어, 독이 없는 해파리, 그리고 종종 고래와 같은 대형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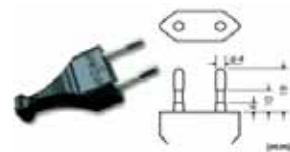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데라완제도의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후 2시면 데라완 제도는 오후 3시가 된다.

### 비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은 30일간 무비자이다.

### 전기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 데라완제도(Derawan Islands)

데라완(Derawan)섬

마라투아(Maratua)섬

카카반(Kakaban)섬

상알라키(Sangalaki)섬



# 가는 방법



- ① 인천 - 싱가포르 - 타라칸
- ② 인천 - 자카르타 - 타라칸
- ③ 인천 - 자카르타 - 발릭파판 - 베라우

## 리브어보드 이용

데라완제도의 리브어보드는 타라칸이나 베라우에서 승하선을 한다.

- ① 타라칸공항(TRK)은 인도네시아 북칼리만탄의 Tarakan섬에 있는 공항이다. 가루다에어(Garuda Air)와 라이온에어(Lion Air)가 서비스하는 자카르타(Jakarta)와 타라칸(Tarakan) 사이에는 매일 여러 번 직항 노선이 있다. 또한 발리, 싱가포르 및 쿠알라룸푸르에서 타라칸을 연결하는 많은 항공편이 있다. 손님이 도착하면 호텔이나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연안 부두의 보트로 이동한다.
- ② 베라우공항(BEJ)에서 승하선하는 리브어보드는 인천에서 싱가포르나 자카르타(Jakarta)로 가서 다시 발릭파판(Balikpapan)까지 3시간 소요하여 이동해야 한다. 발릭파판공항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데라완의 관문인 베라우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베라우공항에서는 탄중바투(Tanjung Batu)에 위치한 부두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가량 소요된다. 탄중바투의 부두에서 리브어보드를 승선한다.



베라우 공항

## 리조트 이용

먼저 싱가포르나 자카르타(Jakarta)로 가서 다시 발릭파판(Balikpapan)까지 3시간 소요하여 이동해야 한다. 발릭파판공항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데라완의 관문인 베라우(Berau)에 도착할 수 있다. 베라우공항에서는 탄중바투(Tanjung Batu)에 위치한 부두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가량 소요된다. 탄중바투의 부두에서 데라완제도의 리조트로 이동한다.

# 데라완제도의 다이빙 환경

## 데라완섬

칼리만탄 동부의 베라우 지역에 위치한 데라완제도에 있는 데라완섬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빙 장소로, 전 세계 дай버로부터 꿈의 섬으로 불리는 곳이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부드럽고 하얀 백사장, 맑고 푸르른 바다, 그리고 수심 5m 정도의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까지 갖춘 데라완섬은 그야말로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게다가 바닷물 속에 사는 460여 종의 산호초와 같은 바다 생물, 희귀한 종류의 해마, 해파리 등 멸종 위기에 놓인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 상알라키섬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사장으로 둘러싸인 상알라키섬에 가려면 데라완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섬 주변을 질푸른 빛으로 물들이는 깊은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철이 되면 수백 마리의 큰가오리가 먹이를 찾아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가루처럼 고운 모래가 깔린 백사장은 바다거북이 가장 선호하는 산란처이다. 백사장 아래 모래 속에 수천 개의 알을 낳은 바다거북은 사파이어처럼 푸른 상알라키의 초호(礁湖)를 향해 유유히 걸어 돌아간다. 상알라키섬은 데라완 군도 일대를 지나가는 큰가오리를 포착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상알라키섬은 세계적으로도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일대에서 모여든 엄청난 수의 바다거북은 곱디고운 이곳의 흰 모래에 구멍을 파고 알을 묻는다.

## 카카반섬

카카반섬은 군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천 년 전 지각에 가해진 압력이 작은 환초를 해수면 위로 밀어 올렸고, 그 바람에 카카반섬 안쪽에 염수호가 생겨났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해파리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차츰 독이 없는 형태로 진화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팔라우와 카카반섬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 마라투아섬

마라투아는 동 칼리만탄 북쪽 해안의 데라완제도에 위치하는 큰 열대 섬이며 마라투아의 한 쪽은 거대한 석호로 둘러싸고 다른 쪽은 바위 월과 산호초가 있다. U 모양 같은 마라투아 섬은 384 km<sup>2</sup>의 넓은 백사장과 맹그로브 숲 또는 3,735km<sup>2</sup>의 넓은 영해가 있다. 마라투아섬 옆의 해협은 길이가 1m에 달하는 바라쿠다가 수백에서 수천 마리까지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섬 사이를 강한 해류가 지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дай버에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데라완섬



상알라키섬



마라투아섬

## 다이빙 성수기

데라완제도는 기온은 21~32℃로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와 비슷하며 기온의 변화가 없고,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다. 년 평균 강수량은 205mm, 년 평균수온은 28℃ 정도, 시야는 계절별로 차이가 난다. 다이빙은 1년 내내 가능하다. 최상의 다이빙 조건은 4~11월까지로 특히 5~9월이 최적기이다. 우기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불안정한 기후조건과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가시거리가 단점이다.

기온 : 25~27℃

수온 : 28~30℃



1



2



3

## 다이빙 방법

이지역의 다이빙 방법은 리브어보드를 이용하거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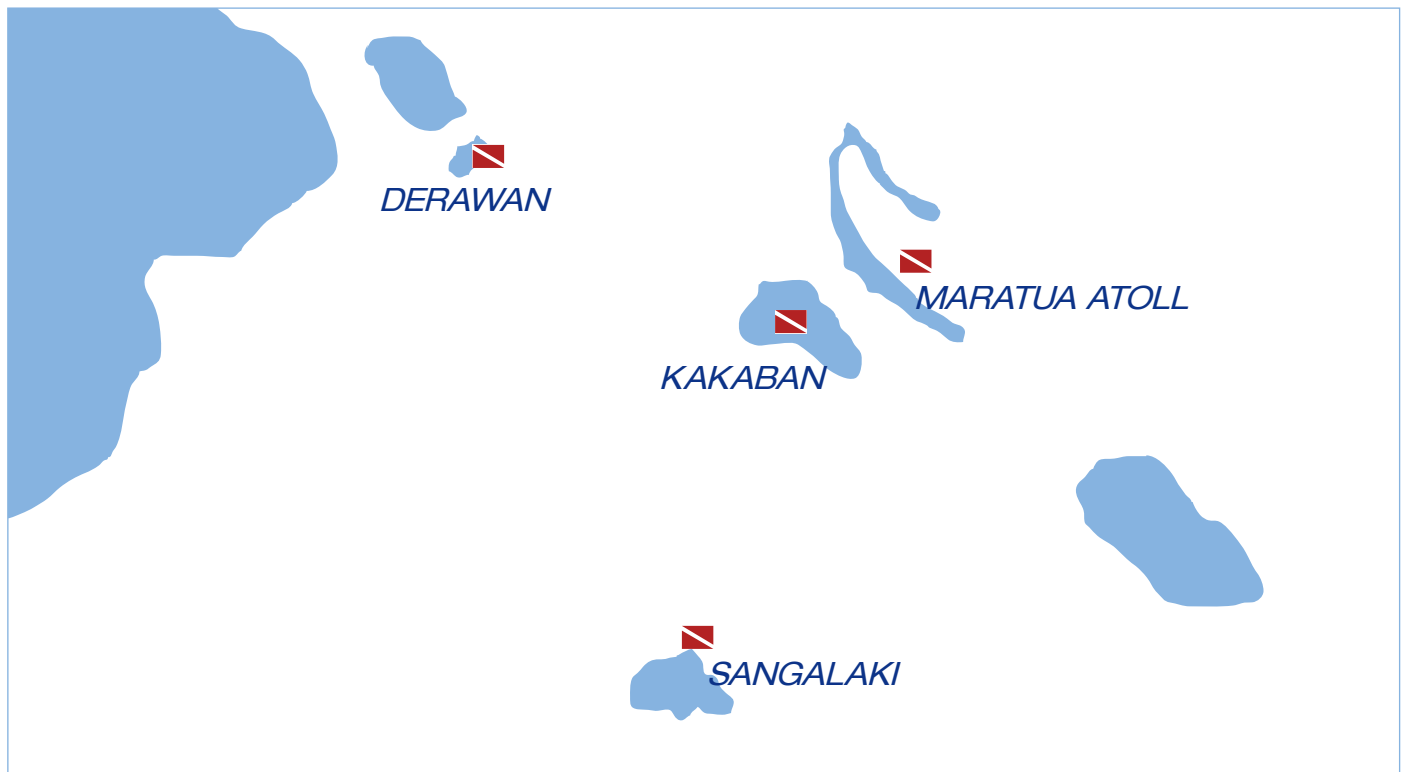


4

- 1 Raja Manta 리브어보드
- 2 다이빙 보트
- 3 데라완 다이브 롯지
- 4 베라우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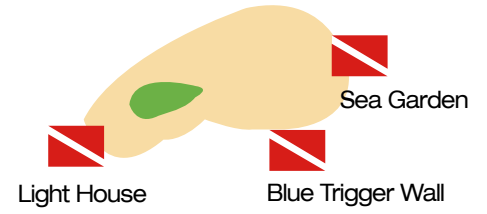


## 데라완제도의 다이빙 사이트



## 데라완섬(Derawan Is. or Virgin)

데라완섬(Derawan Is.)은 약 1km<sup>2</sup>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13.5m에서 20m에 이르는 넓은 모래사장 해변이 있다. 섬 주변의 리프는 약 1.5m 깊이의 바다 공원이다. 이곳에는 거대한 바다거북과 더불어 갑오징어, 바다가재, 고스트파이프피쉬, 블루링옥토퍼스(Blue-Ring Octopus)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사이트는 Blue Trigger Wall인데, 이곳에는 Tooth Trigger-fish는 약 10m 수심에 18m 길이의 암석에 서식한다.



## 마라투아섬(Maratua Is.)

마라투아섬(Maratua Island)은 환초(Atol)로 되어 있으며 데라완섬에서 1시간 40분, 상알라키섬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다. 이 섬은 샌달우드(Sandalwood)섬이라고도 불리며, 코코넛크랩(Coconut Crabs)과 유사한 매우 희귀한 종의 서식지이다.

이곳은 거대한 환초로 되어 있는 섬이다. 환초로 들어가는 통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인 하강과 멋진 조류 다이빙을 할 수 있다. 마라투아 환초 해역에서는 이글레이, 참치, 상어, 고등어, Trevally, Barracuda 무리 등을 볼 수 있다.





## 상알라키섬(Sangalaki Is. or Male)

상알라키섬(Sangalaki Is.)의 바다는 만타의 세상이다. 최대 5m 너비의 만타레이가 좁은 여러 방향에서 나타난다. 그들의 날개 끝은 일정한 간격으로 수면을 부순다. 이 섬은 얇은 환초에 둘러싸여 있다. 놀랍게도 섬 주위 500종 이상의 경산호와 연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크고 작은 해양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상알라키섬은 바다거북의 산란지이기도 하다.



## 바다거북의 산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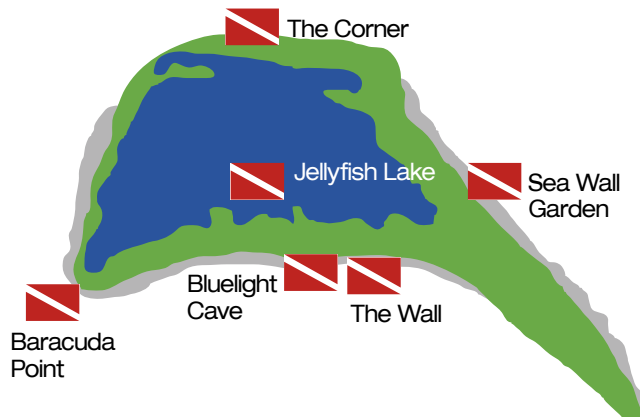
상알라키섬은 바다거북의 산란지이다. 인도네시아의 멸종위기에 처한 거대한 푸른거북(Green Sea Turtle)과 대모거북(Hawksbill Sea Turtle)의 가장 거대한 서식지이며, 매일 거북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그들이 모래에 알을 낳은 장면까지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전체 해양 보존지역은 그 면적이 127만 헥타르 이상이다.

세계야생생물기금의 지원을 받는 '터틀 파운데이션'은 바다거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상알라키섬에 설립되었다. 나무로 근사하게 지어놓은 바다거북 보존센터에서는 갓 부화한 푸른바다거북과 대모바다거북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바다로 방사한다.



## 카카반섬(Kakaban Is.)

현지의 말로 카카반(Kakaban)은 포옹을 의미한다. 이 섬 한가운데서 거대한 소금기가 있는 호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섬이 호수를 포옹한다고 말한다. 카카반섬(Kakaban Island)는 상알라카섬에서 보트로 20~25분 거리에 있다. 지표면에서 카카반은 전형적인 담수호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다채로운 해양생물이 풍부하다. 50m<sup>2</sup>의 산등성으로 둘러싸인 5km<sup>2</sup>의 호수는 정부의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이 무인도의 내부 대부분을 차지한다. 카카반섬에서 월다이빙을 하다보면 Barracudas와 Jacks, Leopard Sharks, Grey Reef Sharks 등을 볼 수 있고 때때로 해머헤드샤크(Hammerhead Sharks)를 볼 수도 있다.







### 젤리피쉬 레이크(Jellyfish Lake)

카카반섬은 아주 특별한 해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은 바다거북과 바라쿠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호수에 산다. 이 해파리는 독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독침이 없다. 그리고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너무 많은 해파리가 있기 때문에 젤리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느낀다. 🐙





# REGULATORS DESIGN



### 1 자동 흐름 제어

ATOMIC 호흡기에는 돌리거나 눌러야할 세부 장치가 없으며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유일한 수심 감지 벤투리 제어가 자동적으로 성능과 안정성에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마우스피스 내부에 들어있는 에어포일(airfoil)이 수심에 반응하여 위치가 바뀌면서 어떤 수심에서도 일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편안한 호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2 급속 조절 능력

쇄파 지역에 입수하거나 옥토퍼스를 사용할 때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공기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가볍게 쥐고 한 번 돌리면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 3 타원형의 배출 밸브

깊은 수심에서 배기노력이 상당히 감소 하였습니다. 특대형의 배기 밸브와 에어포일(airfoil) 모양의 밸브는 매번 호흡할 때마다 부드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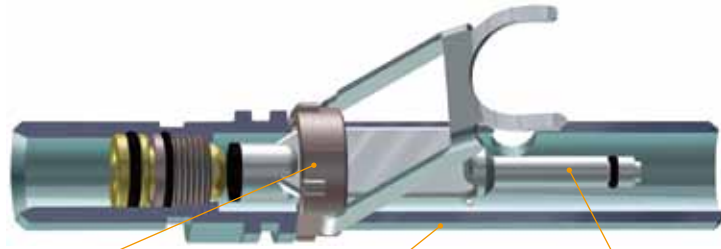
### 티타늄 레버

절대적인 안전도와 신뢰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품은 공기 공급장치와의 기계적인 연결부입니다. 항공 우주산업에 사용되는 독보적인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금속의 약화나 부식에 강합니다.



### 시트 보호기능의 티타늄 오리피스

새로운 오리피스 디자인은 저압시트의 수명을 큰 폭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귤레이터가 새고 성능이 저하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트가 닳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시트 보호 다이내믹 오리피스(#5,803,073)는 압력 감지에 의해 작동되며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만 저압시트에 접촉하게 됩니다.



**저마찰 케블라 피복 슬리브**

Atomic 티타늄 디맨드 레버는 밸브 몸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모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내마모성을 가진 낮은 마찰 저항 소재가 요구됩니다. Atomic의 케블라 슬리브 소재는 마모없이 수백만 번의 사이클을 견딘 후에도 매끄러운 호흡이 가능합니다.

**티타늄 밸브 몸체**

내부 표면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성능은 항상 최고를 유지합니다. 2단계의 '엔진 블록(engine block)-밸브'의 몸체는 타사 티타늄 레귤레이터와 달리 통 티타늄을 컴퓨터를 이용해 깎아 만든 것입니다. 강도는 황동의 2배이며, 무게는 2분의 1입니다.

**밸런스 포핏**

공기역학적인 밸런스드 포핏이 탱크의 압력에 관계없이 높은 공기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티타늄인가요?**

티타늄은 해양환경에 완벽하게 적합한 마법같은 금속입니다.  
 티타늄은 강철처럼 강하면서 무게는 반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녹이스는 스텐레스 스틸 또는 황동이나, 파이거나 부식되는 알루미늄과 달리 티타늄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해수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티타늄 부품은 처음 생산된 모습처럼 새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금속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티타늄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레귤레이터를 티타늄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타늄은 구하기 어려우며, 값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십 가지의 티타늄 합금을 연구한 결과 효과적인 비용으로 티타늄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토믹은 모든 금속부품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면서도 황동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른 프리미엄급 호흡기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호흡기입니다.  
 티타늄 호흡기의 출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은 손에 있는 호흡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가벼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티타늄은 내구성과 신뢰도에서 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토믹의 티타늄 부품은 닳거나, 녹슬거나, 부식에 의해 고장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셋째, 관리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매년 분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티타늄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수에서 6개월 경과 후 티타늄과 황동의 비교

## 에스파동 엘리트 5mm

- ▶ 프리다이빙을 위해 디자인 된 슈트.
- ▶ 매우 부드러운 걸감 및 오픈셀 안감으로 보온력은 높이고 물의 저항은 최소화
- ▶ 글라이드 스킨인 걸감으로 물에서 나오면 빠른 건조 가능
- ▶ X-Ray 카모 플러그 디자인
- ▶ 안티-스퀴즈 시스템
- ▶ 부드러운 굴곡의 상의 마감 및 편안한 하의 디자인





## 아비스 드라이 (여성사이즈 출시)

여성 다이버를 위한 드라이 사이즈 출시.

여성을 위한 사이즈 XXS, XS 국내 단독 출시.

방수 트리-라미네이트소재의 저수온 다이버를 위한 효율적인 드라이 슈트

- ▶ 대각선 정면 마감처리된 지퍼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편리하게 입을 수 있으며 각 끝의 전체를 연결 한 풀 스트랩 및 방수 금속 지퍼
- ▶ 등 아래 부분의 내부 수평 고무 압축은 자동으로 공기량을 조절
- ▶ 지퍼 조절 및 분리할 수 있는 탄력성의 내부 어깨 스트랩
- ▶ 가슴의 높이를 조정하는 분리형 탄력성의 외부 가랑이 스트랩
- ▶ 안전을 위해 어깨에 반사 패치의 안정 방폭 구조

## 아테나 3mm

3mm 바디 라인을 살려 핏감을 높인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프리다이빙 여성 슈트  
여성 프리다이버를 위한 3mm 아테나 슈트는 국내 단독 판매 제품

- ▶ 어깨 스트랩에 부착형 벨크로를 사용하여 롱존이 분리 가능하여 탈착용이 용이함
- ▶ 백-커팅 : 어깨 사이와 등 부분에 발생하는 공간형성을 피하기 위해 슈트 뒷면에 특별한 윤곽라인으로 제작
- ▶ 비버 테일-인체공학적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허벅지 사이에 두께를 최적화, 원 버튼 패스너(잠금장치)
- ▶ PU 강화 : 에스파동 모노그램이 적용된 미끄럼 방지 3D-그립의 팔꿈치, 무릎 및 가슴
- ▶ 슈트 탈착용하는 동안 저항의 최적화로 강화시킨 상의 밑단
- ▶ 턱에 바늘자국 없는 후드 일체형의 원피스형 상의
- ▶ 소프트 네오프렌 엘라스킨 X 8.2 사용
- ▶ 오픈셀 안감을 사용한 최상의 보온성
- ▶ 고품질의 사전 성형한 해부학적 커팅
- ▶ 사이즈 : XXS, XS, S





## 조류/표류 다이빙 스페셜티 (Drift Diving Specialty)

글 김수열 (PADI Course Director, 노마다이브 대표)

사진 김수열, Jit cheosakul(Dron), Manisa



본 잡지에 소개된 인도네시아 코모도편에서도 볼 수 있는 Shotgun이라는 다이브사이트는 브리핑만으로도 초보 дай버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곳이다. 조류의 방향을 수면체크하기 위해 다이브가이드는 먼저 입수한다. 수면으로 바로 올라와야 할 버블들이 조류에서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며 BCD에 공기마저 빼고 빠른 입수를 위해 배 위에서 긴장하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바다로 뛰어들면 다음은 모두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포즈를 연출하기 바빴으며, 조류에 몸을 맡기고는 저마다 “유~후”라고 소리치며 맘껏 자유를 느낀다. 조류를 타고 날아가던 중 만난 중형 만타레이 한 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류를 즐기고 있으며 10분 남짓 즐기던 조류는 거짓말처럼 끝난다. 바다라는 곳, 참으로 신기하다.

일본인 작가 히로세 유코의 '5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서 “그곳에 서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라는 문구는 마치 중급 다이버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테마가 있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어야 할 것이고, 기회가 되어 만나게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는 해석하고 싶다. 표류, 조류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운 느낌 자체를, 첫 나이트 다이빙을 즐기는 것과 같이 새로운 테마로 받아들이고 약간의 교육을 통해 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좋겠다.



## 조류/표류 다이빙이란?

조류다이빙은 대양조류나 밀물과 썰물, 지역의 특징에 따라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르는 물에서의 다이빙이라 하겠다. 지난 호에서 다룬 비치다이빙의 경우 손쉽게 입·출수할 수 있으며 보트 스케줄이나 다른 дай버들과의 시간조율로부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이빙이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조류 다이빙의 경우는 입수지점과 출수지점이 다른 관계로 보트를 이용해야 훨씬 수월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지난 3/4월 호의 보트 다이빙을 참고하면 보트 다이빙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적합한 보트에 종류를 읽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 조류 다이빙의 장점

### 1. 광범위한 지역 관광

일반적으로 дай버의 핀 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지만 조류를 잘 이용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보다 많은 곳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물살을 거스르며 헤엄치는 해양생물들의 특이한 모습도 관찰이 가능하다.

### 2. 체력/공기 소모가 적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핀 킱을 최소화하여 дай버의 체력과 공기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테마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포토 그래퍼나 비디오그래퍼는 더욱 매력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 3. 초보부터 전문 다이버까지 즐길 수 있다.

지역과 조류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다이브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빠른 조류를 날아가는 짜릿함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든다. 다이버들은 그저 즐기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즐거움에 비해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아래 요약해 두었다.



## 조류 다이빙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조석간만의 차이나 물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날씨와 물때표를 읽을 수 있도록 약간의 공부 필요하다.

### 2. 날짜/시간대의 제약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류의 세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야 하며, 다이브타임과 진행 방향에 대해 보트스텝과 약속이 되어야 한다.

### 3. 보트를 이용해야 한다.

리버보드와 같은 대형 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류다이빙에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기동성이 좋고 입·출수가 용이한 소형 스피트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입·출수 절차는 단순하게

보통의 경우 배 위에서 입수준비를 모두 마치고 전체 인원이 동시에 입수하도록 한다. 또, 수면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점검하느라 그룹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시야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룹과 가까이 하도록 한다. 절대 혼자 떨어져 입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이빙 중 누구라도 공기 부족을 알리면 다이빙을 마칠 준비를 한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수면이 수중보다 강하므로 안전정지 동안

더 멀리 떠내려간다. 때문에 안전정지 때에도 그룹과 함께 유지하고, 배 위로 동시에 오르지 못하므로 신속한 출수 준비와 팀을 도우며, 장비는 가급적 착용한 채 배에 오르길 권장한다.

### 5. SMB와 같은 수면 신호기구가 필요하다.

하강 도중에 그룹과 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진행하는 도중 배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필요하다. 만일 다이브 동안 SMB와 함께 다이브한다면 계획한 수심보다 훨씬 넉넉한 길이의 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때때로 강한 조류에는 수면에 떠내려가는 SMB는 50미터 이상의 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 6. 갑작스런 조류의 변화

지역에 따라서 특이하게도 흐르던 조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드물지만 하강 조류로 바뀌어 핀킥으로는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수면보다 바닥이 약하므로 바닥을 따라 수영하거나 직각으로 조류를 벗어나는 것이 좋다.

### 7. 시야의 불량과 짝을 잃어버림

조류 다이빙을 계획할 때 시야가 자보되지 않으면 다이빙 플랜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불량한 시야를 이유로 짝이나 그룹과 헤어지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스스로 다이빙을 마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다이버들은 각자의 SMB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8.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하자

다이빙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탱크 잔압은 충분한지 그리고 SMB는 제 기능을 하는지 점검해 두고, 혹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강한 조류를 만나 잠시 쉬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걸이(후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조류/표류 다이빙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조류를 거슬러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다이브 사이트도 있으며, 조류를 타고 내려오며 스치듯 관광하는 형태까지 이는 마치 드라이브를 즐기는 느낌과 비슷하다. 조류 다이빙은 글과, 상상력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칼럼을 통해 정리된 느낌보다는 더욱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한시라도 빨리 가까운 PADI 다이브센터 를 찾아 질문하고 모험을 떠나도록 하자. 평범을 고집하는 것은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의 비다이버 때와 다를 것이 없다. 전문가와 함께 안전이 보장된 모험을 즐기는 것은 다이버의 특권이 아니던가? 🐟



### 반창고 프로젝트 8월의 이벤트

스쿠바미디어에서는 조류다이빙 스페셜티를 지원합니다.

**교육신청** nomadive@gmail.com 이메일 신청  
 기재사항(이름, 연락처, 다이버레벨, 보유장비)  
 신청 후 가까운 PADI 코스디렉터와 함께 교육진행

**모집인원** 정기구독자 선착순 10명  
**지원내용** 3만 원 상당의 조류걸이

### 학생과정

**참가자격**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

**교육시간** 이론수업 약 1~2시간

해양실습(각 다이브센터에서의 편 다이브와 함께)

코스는 본 잡지에 소개된 가까운 지역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찾아 미리 배워두기를 강하게 권장한다.

### 김수열



노마다이브센터 대표  
 PADI Course Director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외래교수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촬영전공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 다이빙 투어에 있어 타인의 명예

글 민경호 변호사

온더코너 대표  
(www.onthecornerdive.com)  
PADI IDC Staff Inst  
법무법인 안민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이빙의 기본은 버디 다이빙에 있고, 특히 장거리 리브어보드 등 특별한 투어에서는 그룹다이빙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형태의 여행보다 다이빙 투어는 타인과의 관계가 본질적 요소인 경우가 많고, 나아가 타인과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이 빈번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이는 '사회'가 되며, 사회에서는 명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인의 명예는 보다 쉽게 침해될 수 있고, 이는 특히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여행의 중심적 요소로 갖고 있는 다이빙에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다이빙 투어에 있어 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명예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 시인 박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 보호법익으로서의 명예

#### 1. 외부적 명예

형법에서 보호법익으로 삼는 명예는 외부적 명예인 바, 이는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체인 내적 명예 및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인 명예감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릅니다.(대법원 87도739판결 참조)

## 명예훼손죄

### 1. 의의와 요건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적시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98도1949 판결 참조).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일 경우 및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이 가중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 SNS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도351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일체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모욕죄

### 1. 의의와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81도2280 판결 참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의 공연성 또한 필요합니다.

### 2. 사례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들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도10130 판결 참조).

## 합의와 위자료의 의미

우리는 흔히 '합의 보았다'라는 표현을 듣고는 합니다. 이때의 '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있어서는 이 합의가 보다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법상의 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형법상의 불법과 민법상의 불법은 그 의미가 다르며(쉽게 이해하자면 민법상의 불법이 보다 범위가 넓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인한도가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마치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다만, 도덕은 기실 매우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타인의 행동이 불법적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위배한 타인의 행동은 곧 도덕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예를 들어 다이빙 투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나의 자유를 마음껏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박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속 글귀를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오염으로부터 우리 몸 지키기 ④

#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다

글 고소 히로에 (古庄弘枝) / 편역 편집부

### 태어나기 전부터 오염된 인간

‘현대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오염되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은 『뱃줄이 말하는 체내 오염 -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기술평론사, 2008년)의 저자 모리 센리와 도다카 에미코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뱃줄에서 수많은 환경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뱃줄은 태아의 몸 일부이고 산모의 자궁 내에 있을 때 태아의 오염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단서다. 그 뱃줄(11~20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100%) 뱃줄에서 ‘다이옥신’ ‘PCB’ ‘트라이부틸틴’이 검출되었다. 또한, DDP는 85%, 카드뮴은 45%까지 검출되었다.  
 2005년에는 미국 적십자가 채취한 신생아 10명의 태아 제대혈(뱃줄 혈액)에서도 287종의 공업용 화학물질(살충제, 플라스틱 가소제 프탈산류, 다이옥신, 발화 지연제, 테플론 분리물질) 등이 검출되었다. 얼마 후, 네덜란드 연구자도 신생아 30명의 제대혈에서 가정용 세제·화장품·가구 등에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태아기는 그 사람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이미 심상치 않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오염된 사실은, 전 세계의 태아가 외치는 경고의 의미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섭취한 음식이 태아에게 연쇄 작용

일본 신생아의 뱃줄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 다이옥신(PCDD=폴리클로로다이벤조파라다이옥신) 류(100% 검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순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작전에 사용된 제초제로 불순물로서 포함된 것이다. 강력한 급성 독성, 최기성, 발암성을 지닌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의 대표적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란 유사 호르몬으로 생체 내에 들어가 생물의 성장과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이다. 주로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반대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 속에 배출된 합성화학물질을 말한다.

### PCB(폴리클로로비페닐) 류(100% 검출)

공업적으로 생산된 유기염소화합물이다.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변압기 등 전기 제품의 절연유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가네미유증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1973년에 제조·수입이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고소 히로에(古庄弘枝)

오이타 현 구니사키 반도 출생. 논픽션 작가 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식품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논픽션과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있다.

주요 저서  
 『현대전화 망국론—후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 건강오염』  
 『아라카미 건강 캠프촌—일본 최초 화학물질·전자파 과민증 파난시설 탄생』  
 『보이지 않는 오염 전자파로부터 몸을 지키자』  
 『사와다 아미토 이야기—틀어서 만든 꿈의 섬』  
 『모 혁명—산지 낙농으로 청정 우유를 만든다』

### 트라이부틸틴(100% 검출)

독성이 강한 유기주석화합물이다. 예전에는 농약으로, 나아가서는 선박의 하부에 바르는 도료에 섞어 조개 등의 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90년 이후는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외국선을 제외하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것도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다.

### DDP(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85% 검출)

애초 말라리아나 발진티푸스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즉효성에 비해 사람이나 가축에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기적의 살충제로 불린 유기염소계 화학물질이다. 농약, 해충구제제로서 예방적으로 대량 살포되었다. 현재는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 카드뮴(45% 검출)

광물이나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4대 공해병의 하나인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이다. 영화비닐의 안정제나 전지, 안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 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화학물질, 특히 이미 40년 이상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질까지도 왜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것은 환경 속(대기·대지·강·바다)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수십, 수백 년 환경 속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물고기나 동물의 체내로 이동·축적되고, 그것을 섭취한 산모의 체내로 오염되어 그 오염물질이 태줄을 통해 태아에 옮겨간 것이다.

### 화학물질이 유발하는 '후성유전제어' 변이

모리 씨 등은 일본인 189명(20~70대)을 대상으로 혈중 PCB 농도 조사도 시행했다. 조사에 의하면 전원이 PCB 0.09~5.27ng(나노그램)/g(1ng는 10억 분의 1g)이라는 범위 내에서 검출되었다. 검출되지 않은 사람은 제로였다. 그들에 의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PCB가 검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불과 100년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공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넘쳐나고 이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태아까지)은 이미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화학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이 야기하는 후성유전제어(epigenetic) 변이이다.

epigenetic(epi(외)+genetic(유전적인))제어란 유전자 배열은 변함없지만, 유전자 주변의 기능을 제어하는 작용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특정 조직으로 분화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 정보만을 조종해 불필요한 정보는 작용하지 않게 제어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코가 눈이 아닌 코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유전자 중에 코에 관한 부분만이 활동하고 눈이나 입에 관한 부분은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활동하지 말고 주무세요." 하고 지시하는 것이 '메틸화 수식'이라는 기능이다. 이것은 후성면역학적인 유전정보제어 기능의 하나이다.

메틸화 수식이란 시토신에 메틸기(가장 분자량이 작은 알킬 치환기)가 들러붙은(메틸화된) 것이다. 메틸화 수식이 이루어지면 그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아도 좋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해 휴면한다. 참고로, 유전자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4개의 염기 배열로 구성되지만, 메틸화 수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토신뿐이다.

메틸화는 그 세포가 코로 분화하면 코, 눈으로 분화하면 눈이 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패턴으로 발생한다. 코를 예를 들면, 코에 필요한 유전자만이 작용하게 조정되어 정상적인 코의 발생·발달이 완성된다. 메틸화는 세포분열 과정에서도 이어져 제어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에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이 관여하면 후성유전제어에 변이가 발생, 유전자가 손상된 경우와 비슷한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변이 때문에 유전자가 상하지 않더라도 생식독성, 선천이상, 암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포분열이 활발한 태아기 초기일수록 세포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아 후성유전제어는 변이한다.

'후성유전제어 변이'의 발생 빈도는 유전자 자체가 상하는 빈도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그 영향은 차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자가면역질환

근래 화학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자가면역질환(다발성경화증, 관절 류머티즘, 전신홍반성낭창 등 100여 가지 질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이며 신경 과학자인 더글러스 카 등에 의해 보고되었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이물질을 인식하고 배척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가 자신의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에 과잉 반응해 공격하는 제반 증상과 질환의 총칭이다. 서구에서는 과거 40년간 발병률이 두세 배로 급증했으며, 어린이 발병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환자 수는 현재 2,350만 명으로 국민 12명 중 1명, 여성 9명 중 1명이 발병한다고 한다.

'면역의 반역'을 저술한 도나 잭슨 나카자와는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자가면역유발물질'로 명명했다. 그리고 자가면역 유발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로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와 '유기염소계 살충제' 등을 거론했다.

도나는 최근의 논문에서 인간의 PBDE 수치가 2~5년마다 두 배로 급상승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내부에서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





2017년 **BSAC**  
Dive with friends

## 대학생 강사교육과정(ITC) 참관기

나는 다이빙을 하는 부모님을 만나 남들보다 쉽게 다이빙을 경험했고, 재미있게만 그리고 하고 싶을 때에만 다이빙을 했다.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다이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있었다. 여러 환경에서 다이빙하는 강사 후보생 동기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ITC 기간 중 힘든 상황에서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크게 깨달았다.

글 정윤주 (BSAC 강사, 경희대 체육학과 4학년) / 사진 정상근

나의 아버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다. 처음으로 수면에서 물장구치는 것이 아닌 수중을 즐기러 물속에 들어간 날, 신나는 마음 한 편에 불안함을 품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는 물속에서 오로지 장비에만 의존한 채 있어야 한다는 것과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무서웠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잠시였다. 수중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가 날 안심시켰고, 물에 금방 적응해 손조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날 나는 아버지가 참 대단하고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BSAC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강사 교육 과정인 대학생 ITC는 나에게도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기존의 일반인 대상의 ITC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었던

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평가비, 교재비를 면제하여 대폭 낮은 비용으로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과연 강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다이빙을 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어 주춤했지만 오래된 기억 속 강사로서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며 2017년 7월 대학생 ITC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전국에서 모인 미래의 BSAC 강사들

대학생 ITC가 시작되는 날,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분당에 있는 BSAC 본부로 향했다. 도착하니 여러 강사 후보생들이 와있었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 대학생 ITC는 시작되었다. 박종섭 본부장님과 트레이너님들 소개 후



에 강사 후보생들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서울, 경기, 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학교도 전공도 다른 9명의 강사 후보생들은 BSAC 강사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채 동기가 되었다. 소개를 마친 후에 본부장이 ITC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ITC 과정은 크게 인스트럭터 기초과정(IFC), 인스트럭터 해양실습과정(OWIC), 평가과정(IEC)의 3가지로 나뉜다. 우리는 인스트럭터 기초과정(IFC)을 5일 동안 태안 한서대학교 해양 훈련센터에서 진행하고, 5일째 되는 날 제주도에 가서 인스트럭터 해양실습 과정(OWIC)과 평가과정(IEC)을 진행하기로 했다. IFC에는 워터맨십, 수면교육, 수중교육 등이 포함되고 OWIC는 오픈워터에서의 훈련, IEC는 학과강의, 실기교육, 다이빙 리더십, 필기시험 등이 포함된다.

### ‘악으로 강으로’ 버틴 워터맨십 테스트

막 만난 동기들과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점심을 먹고 수지에 있는 수영장으로 향했다. 5M의 잠수품에서 장동국 트레이너님의 지도하에 강사 후보생들이 앞으로 제한수역에서 실시할 마스크 클리어링, 레귤레이터 리커버리, 핀 피봇, 웨이트 탈착, 장비 탈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동작 하나하나 크고 정확하고 천천히 보여주는 시범을 보면서 ‘아, 수중에서의 교육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범의 정석’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실습할 때, 그리고 실제로 강사가 되어서 강습할 때 장동국 트레이너님의 시범을 잊지 않은 채 저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렇게 수중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워터맨십 테스트를 진행했다. 모이자마자 시험을 봐야 한

다는 게 부담이 됐지만 체대생인 나는 워터맨십은 악으로 강으로 열심히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위로를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에 임했다. 워터맨십 테스트는 수영, 잠영, 입영 등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수영 400m가 시작되고 3명씩 출발하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다.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400M의 거리를 수영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기분이 되지 않았다. 내 차례가 됐고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여덟 바퀴를 목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수영 테스트를 보고 잠영을 하는데 나는 숨 참기에 자신이 없었다. 물 밖에서 30초 참는 것도 힘든데 25M를 물속에서 헤엄치며 가야 한다…… 출발을 하고 반쯤 갔을까 숨이 차오르고 뛰쳐나갈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나가봤자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여기서 의식을 잃어 동등 떠오르는 한이 있어도 내 의지로 나가진 말자 생각하고 죽을힘을 다해 버텼다. 하늘에 감사하게도 나는 한 번 만에 반대편의 벽에 닿을 수 있었다. 다음은 입영 테스트였다. 맨몸으로 3분, 2kg 웨이트를 들고 5분, 총 8분 동안의 입영을 해야 했다. 참 많은 물을 먹었다. 그래도 해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근성으로 버틴 워터맨십 테스트였다.

### 수영장에서의 수면&수중 교육

수영장에서 진행된 수면교육과 수중교육은 마스크 클리어링, 레귤레이터 리커버리, 핀 피봇, 웨이트 탈착, 장비 탈착 등에 대한 교육을 강사 후보생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고쳐나가는 실습 과정이었다.

처음으로 다이빙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지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교육을 계획하는 방법, 교육생들 앞에서 올바른 브리핑과 디브리핑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수면과 수중에서의 교육 방법. 이 부분에 대해 정상근 교수님, 최우집 트레이너님, 장동국 트레이너님의 수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나를 포함한 9명의 강사 후보생들은 참 많은 발전을 했다.

첫날 진행했던 교육은 하나같이 모두 두서없고, 정신없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태안에서 마지막 날 제한수역에서의 프레젠테이션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강사의 모습에 한 발짝 가까워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느끼며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 끔찍하고 또 끔찍한 학과 발표

대학생 ITC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학과 발표였다고 말할 것이다. ITC가 시작된 그 날부터 3일 동안 나는 이 학과 발표를 위해 5시간을 잤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5시간이러니…… 잠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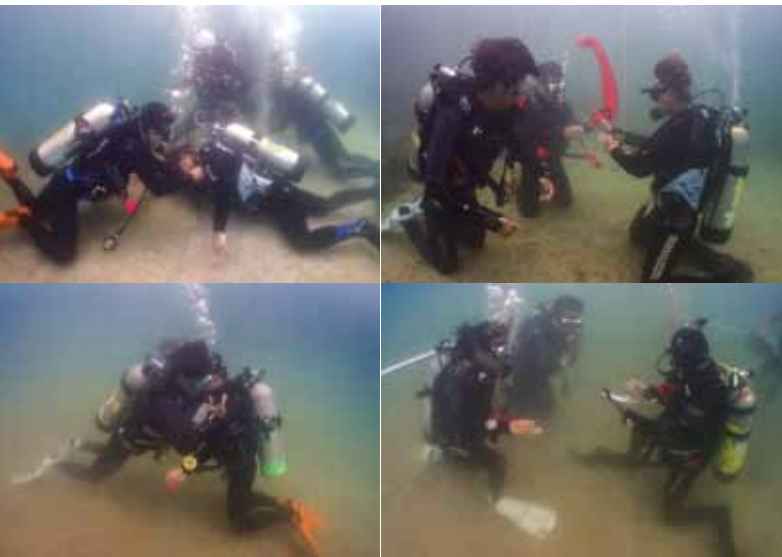
다. 학과 발표는 장비, 다이빙과 관련된 이론, 질환 등 다이버로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에 대한 주제가 주어지면 스케치북에 시각자료를 만들어서 10분 내외로 해야 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각 자료를 만들다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다이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기기들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교육하는 스킬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장동국 트레이너님의 설명을 듣고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발표할 때에는 떨리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에 내 생애 최악의 발표를 했다. 다른 강사 후보생 동기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잠을 더 줄여가며 발표를 준비했다. 학과 발표에 대한 피드백 또한 그때그때 주어졌다. 내가 부족한 부분, 시각자료에 대한 부족한 부분, 재미와 흥미유발에 대한 부분 등 여러 피드백을 받으며 강사 후보생들의 발표 질은 더욱 높고 재밌어지고 있었다.

###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

끔찍해도 가지 않던 시간은 어느새 절반이 흘러 5일째가 되었고, 우리는 해양 실습을 하러 제주도로 향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공항 가는 차안과 비행기에서 청하며 쪽잠의 감사함을 느꼈다. 해양 실습은 내비게이션, DSMB 사용법, 조절된 부력 인양(CBL)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수영장 교육과 동일하게 강사 후보생들이 강사 역할을 하면서 오픈워터에서의 교육을 실습했다. 바다는 넓고, 짜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하는 교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좀 더 어려운 과제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과 달라진 환경은 나를 더욱 긴장케 만들었다. 그렇지만 수영장에서 5일 동안 피드백을 받으며 다져온 교육 방법을 적용시키고, 다른 강사 후보생 동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고하면서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이 수영장에서 했던 실습교육과 가장 달랐던 점은 dry-run을 한다는 것이었다. dry-run은 수중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이전에 땅 위에서 모의적으로 실습해보는 교육이다. 수중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을 연습할 때 육지에서 시범을 보이고 설명하고 시켜보면서 교육생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수중에 가서 실습할 때 훨씬 수월하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내가 강사가 되어 교육생을 강습할 때 좀 더 창의적이고 도움이 되는 dry-run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서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사람 살리는 기술, 레스큐 교육

어느 스포츠나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는 강사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BSAC의 ITC 과정에는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레스큐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양실습에서 진행했던 CBL과 수면에서 조난자를 이동시키는 토잉,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의 CPR, 크게 이 세 가지로 레스큐 교육이 진행됐다. 토잉은 수영장에서 조난자를 끌면서 몇 바퀴를 도는데 구호 외치라, 레스큐 진행하라, 핀킥하라, 생각하라 정신이 없었다. CPR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았다. 실습할 때,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속도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 1분 동안 120회를 오차 범위 1회를 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했다. 에어컨을 뽕뽕하게 튼 강의실



이었지만 등에 땀줄기가 흐를 만큼 가슴압박을 하고 나니 성공할 수 있었다. 레스큐 교육을 담당하셨던 최우집 트레이너님은 레스큐하면서 강사 후보생들이 힘들어 하면, 네 가족, 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조난자라고 생각 하라고 하셨다. 힘이 되고 도움이 된 말씀이었다.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레스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한 채 레스큐 상황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모비딕호에서의 요트 다이빙

보트 다이빙은 많이 해봤지만 요트 다이빙은 처음이었다.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춘 배 위에서 다이빙하는 건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쉬운 건 이렇게 좋은 요트에서 즐기는 다이빙을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배 위에서 낭만을 즐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리더십 실습이었는데, 정해진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계획하고, 내비게이션을 진행하면서, 6개의 구간에서 수심, 시간, 잔압을 체크해 공기소모량을 계산해야 했다. 거기에 상승하면서 CBL 실습에 대해 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감압정지를 한 뒤에는 DSMB를 띄어 상승해 수면에서는 레스큐를 진행해야 했다. 브리핑부터 디브리핑 사이에 많은 걸 신경써야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실수도 많았다.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험이 된 건 분명했다. 앞으로 내가 다이빙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리딩을 해야 할 때가 오면, '한 번은 해봤으니' 하는 생각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리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험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IEC 평가 과정

나는 평가 받을 때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대학생 ITC의 평가받는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반가웠다. 8월 동안 잠 못 자고 힘들게 진행했던 ITC 과정이 이 평가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행복했다. IEC 전날 마지막 학과 발표와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 계획을 준비하면서 다른 날보다 즐겁게 임했던 것 같다. 많이 부족하지만, 첫날부터 평가받는 날까지 트레이너님들께 받아 수용한 피드백과 강사 후보생 동기들과 서로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쌓아온 스킬들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실습을 하며 적응한 탓일까 긴장되지는 않았다. 오픈워터 프레젠테이션은 dry-run, 브리핑, 교육, 디브리핑의 과정을 거쳐 끝이 났고, 학과 발표 평가와 이론 평가를 다 마치면서 길고 힘들었던 대학생 ITC 과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 대학생 ITC를 마치면서

나는 다이빙을 하는 부모님을 만나 남들보다 쉽게 다이빙을 경험했고, 재미 있게만 그리고 하고 싶을 때에만 다이빙을 했다. 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다이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있었다. 여러 환경에서 다이빙하는 강사 후보생 동기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ITC 기간 중 힘든 상황에서 다이빙을 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크게 깨달았다. 다이빙이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강사는 과연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만약 BSAC ITC 과정이 타 다이빙 단체와 비슷하게

어렵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이수할 수 있었다면 난 다이빙의 소중함을 모른 채 강사가 되었을 것이다. 솔직한 마음으로 ITC 4~5일째에는 정말 많이 힘이 들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힘들음을 즐기고 있었다. 이 힘들음을 이겨내면 난 또 성장해있겠지. 때문에 이번 대학생 ITC는 나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과정이었다. 정상근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수한 과정은 좋은 강사가 되는 데 5% 정도만 다가간 것이고 나머지 95%는 앞으로 스스로가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어려울 때 멋있다고 느꼈던 다이빙 강사인 아버지 모습에 가까운 강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박 10일 동안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박종섭 본부장님, 정상근 교수님, 최우집 트레이너님, 장동국 트레이너님과 부족함이 많아 많이 물어보고 도움 청하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고 도와준 강사 후보생 동기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 직장인들의 꿈 세계 여행

# 다이버들의 꿈 세계 물속 여행

회사 책상 앞에 걸려있는 작은 세계 지도를 보며 순간순간 설렘이 차오르던 필자에게

10년 근속 Refresh 휴가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4년 전 다이빙 강사가 된 이후로 대부분의 휴가를 물속에서 보냈지만

47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한없이 짧은 시간을 오롯이 다이빙을 위해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필자는 그동안 필리핀, 태국, 몰디브 등 비교적 가까운 포인트로 다이빙하러 다녔기에 이번 기회에 욕심을 버리고(?) 지중해, 홍해, 카리브해, 태평양을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Sky Team'의 'Round the World(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국가의 항공편을 예약하고, 인근 국가로의 이동은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 경로를 짜면서 여행은 시작되었다.

글, 사진 김충희(SK플래닛 근무/사내 SCUBA 동호회 '그랑블루' 운영 nomadive 강사/PADI Inst. #293391)



2016년 3월 5일(토)~4월 20일(수) 47일간의 세계(물속)여행 루트



47일간의 세계(물속)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 Hawaii





# Hawaii

3월 5일 한국을 출발해 한달 반 만에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

##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와이

한국 → 이탈리아 → 몰타 → 이집트 → 독일 → 마이애미 → 멕시코 → 쿠바 → LA → 하와이 → 한국

Los Angeles를 출발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기내에서 쏘그려 한참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좌석 모니터에는 파란색의 태평양 바다만 보인다.

그렇게 몇 시간이 더 지났을까 고도를 낮춘 비행기 창문 너머로 드디어 작은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눈부시게 푸른 태평양 물결에 작은 섬들이 웅기증기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 아기자기하기만 하다. 그렇게 남들은 신혼여행으로 온다는 하와이를 남자 혼자, 아님 남자 둘이 왔다.





## 남자 둘이서 하와이?

(반가운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

LA에서 하와이로 출발하기 하루 전, 반갑고도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 필자와 함께 회사에서 SCUBA 동호회를 운영하는 선배이자 다이빙 베테랑인 철형님.

남자 혼자 청승맞게 여행한다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라며 LA에 밥을 사주러 오셨다.(철형님이 온 이후로 필자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밥값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형님과 함께 하와이로 갔다. 하와이, 남자 둘이 그것도 와이키키 해변이 바로 발 밑으로 보이는 하얏트 호텔 최고 층에서 5일간 다이빙과 소핑, 그리고 먹방 여행을…….



## Hawaii 다이빙 정보

여행기간 : 2016년 4월 14~18일까지 5일

다이빙 : 총 8회

다이빙샵 : WAIKIKI Dive center

다이빙 포인트 : Honolulu 지역

다이버 : 대부분 미국인

3월 평균날씨 : 한국의 여름 날씨

3월 평균수온 : 26도 (3mm 웨트슈트)

다이빙 특징 : 난파선, Deep 다이빙

투명한 바다, 거북이, 상어



## 하와이 오후섬을 선택한 이유

하와이로 다이빙을 가는 дай버들의 고민 중 하나는 섬 고르기이다.

1. 호놀룰루 공항이 있는 가장 편한 오후섬
2. 야간 만타 다이빙으로 유명한 빅아일랜드 하와이섬
3. 바다도 깨끗하고 겨울 시즌에는 고래를 볼 수 있는 마우이섬

당초 계획은 마우이섬으로 고래를 보러 했으나 시즌이 지나서(1~2월이 피크 시즌) 아쉽지만 제외하고 빅아일랜드로 방향을 돌렸으나, 이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또다시 국내선을 타야 하는 일정과 필자 양손에 들린 짐으로 인해 포기하고 가장 편한 포인트인 오후섬에서 다이빙을 하기로 정했다.

다른 곳은 가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후섬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대도시 앞에 이렇게 깨끗한 바다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투명한 바다에서 딥다이빙 난파선 다이빙, 매일 밤마다 즐길 수 있는 먹거리에 쇼핑까지…….

다이빙 센터는 역시나 PADI App.을 통해 5Star를 찾았다. 호텔과 가깝고 평이 좋은 'WAIKIKI Dive center'로 예약했다. 점심도 안주면서 오전에 2탱크를 하는 스케줄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금액도 좀 깎아줬다.(물론 필자와 철형님은 개인장비를 다 챙겨갔었다) 이럴 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럽다.

## 오후의 바닷속, 난파선&하우스 리프

하와이에서는 호놀룰루에 5일간 머무르며 난파선과 리프 지역에서 총 8회의 다이빙을 했다. 아침 8시 와이키키 다이빙 센터에 모여서 간단한 브리핑을 한 후 Kewalo Basin Harbor으로 이동해 Diving을 시작하게 된다.

첫 탱크는 와이키키 해변 앞쪽의 40m 수심대의 난파선 다이빙과 두 번째 다이빙은 Kewalo Basin Harbor 근처에 있는 하우스 리프에서 한다.(참고로 오후 다이빙 2회 스케줄은 모두 다 Kewalo Basin Harbor 근처의 하우스 리프에서 다이빙이 진행된다)



Sea Tiger Wreck



Sea Tiger Wreck



### Sea Tiger Wreck

투명한 바다, 거북이와 Snapper들의 천국

수심 40m 모랫바닥에 커다란 난파선 한 척이 덩그러니 있는 포인트로 배의 상부인 갑판은 수심이 30m 정도 되는 Deep 다이빙이다. deco가 뜨지 않도록 수심과 시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난파선 주변엔 수많은 어종들과 거북이, 화이트팁 샤크를 관찰할 수 있다. 참고로 입수와 동시에 40m 바닥의 모래와 그 위에 배가 보인다. 그만큼 바닷물이 투명하다.



## YO257 & San Pedro Wreck

YO257 난파선 옆으로 관광잠수함이 지나간다면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잠수함은 못보고 나왔다.

YO257 난파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난파선인 San Pedro Wreck 포인트까지 돌고 오는 코스로 역시나 깨끗한 시야와 дай버보다 많은 거북이들을 볼 수 있다. 이곳도 수심이 20m 이상 되는 포인트라 AOW 이상 이어야 하며 deco를 잘 확인해야 한다.



## Kewalo Basin Harbor Front Reef (Horseshoe Reef & Big Pipe)

모든 다이빙을 시작하는 Kewalo Basin Harbor에서 바로 5분도 안되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리프 포인트이다.

수심은 평균 10m 정도로 조류도 거의 없는 초보자들도 편안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거북이와 스넬퍼 이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로 야간 다이빙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 하와이 여행

다이빙이 없는 마지막 날에는 철형님과 오아후섬 한 바퀴를 돌았다.

섬의 북쪽으로 이동해 스카이다이빙과 글라이더를 타기로 했으나, 하와이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다이빙도 글라이더도 다 타보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다. 그렇게 날씨를 원망하며 차를 돌려 와이키키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 현지인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에 차를 멈춰 세웠다. 필자도 엄청난 낚시 광이다.

무엇이 잡히는지,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히는지로 시작해서 한국 이야기(그의 친척도 한국에 산다고 한다)까지 하다 현지인은 나에게도 낚시를 해보라고 흔쾌히 낚시대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나도 현지인 옆에서 시원하게 캐스팅을 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추를 보니 내 마음도 시원해졌다. 그때까지 내가 낚시를 자주 다닌다는 말을 허풍으로만 생각했는지 옆에서 웃으며 바라보던 현지인의 눈에서 살짝 흔들림이 보였다. 낚시대 끝에서 오는 입질 신호를 보고 낚시대를 바로 하늘로 올리고 릴을 감았다. 근데 좀 허전한 것이 어째 놓친 것 같다. 현지인은 다시금 웃으며 이곳에서는 한 박자 쉬고 챔질을 해야 잡힌다고 하며 천천히 다시

해보라고 했다.

그 후로 나와 현지인 모두 입질이 똑 끊겼다. 현지인에게 너무 즐거웠고 대어를 낚으라는 인사와 함께 다시 와이키키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매일 다이빙을 하러 왔던 Kewalo Basin Harbor에 저녁시간이면 푸드트럭 식당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걸음에 달려가 양손 가득 접시를 들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을 때 저 멀리 와이키키 해변 쪽에서 대형 폭죽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불꽃들, 이 무슨 남자 둘만의 로맨틱한 저녁식사 시간이던지…….

하와이 와이키키 쪽에 여행을 온다면, 꼭 한번 저녁시간 푸드 트럭에 가 보기를 권해본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명한 쉬림프박스부터 바비큐에 다양한 먹거리들 거기에 에피타이저까지 모두 다 맛있다.

더 먹을 배가 남았다면 와이키키 해변가에서 한 블럭 뒤에 떨어진 MI BBQ에도 꼭 가보라 하고 싶다. 미국인에게 추천받은 곳인데, 알고 보니 한식집이었다. LA 갈비를 파는 곳인데, 정말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LA 갈비를 주문하고 있었다. 잡채와 김치도 맛있었지만 LA 갈비는 정말 잊을 수 없다.



### 앞으로, 북극.....

47일 동안 38회의 다이빙이라는 짧은(?) SCUBA 여행은 하와이를 마침표로 끝이 났다. 여행을 다녀온 후로도 몸이 근질근질한지 필리핀 보홀과 일본 이시가키, 태국 사우스안다만 투어를 다녀왔다. 지금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북극지방의 다이빙사이트들을 보고 있다.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봤으니, 이번엔 위아래로 한 바퀴를 돌고자 한다. 북극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이슬란드, 알래스카, 그린란드까지는 가서 다이빙이 가능할 것 같다. 남쪽은 뉴질랜드 남섬에서 쇄빙선을 타고 남극으로 가 다이빙을 한다는 정보도 구했다.

우선 2017년 5월에는 북극곰과 오로라를 보면서 빙하 밑에서 다이빙을 해볼 계획이다. 5월 황금연휴에 맞춰 비행기표와 대략의 다이빙 스케줄은 이미 계획해 놓았다.

벌써 그 날이 기다려진다. 🐻



# 2017년 인도네시아 코모도 PANUNEE 리브어보드에서 100회 기념 다이브를...

글 이지혜 (PADI 어드밴스다이버)  
여행정보 NOMA  
사진 NOMA, Jit cheosakul(Dron), Manisa



## 모든 것은 팔라우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팔라우에서의 다이빙은 아름답고 멋졌지만 딱 한 가지 안타레이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안타레이를 보겠다는 희망으로 출발한 팔라우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마치 하늘 위 구름처럼 멀리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안타레이(로 추정되는) 형상뿐이었다. 숙소로 돌아와 두런두런 다이빙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안타레이에 대한 아쉬움이 화두에 올랐는데, 그 때 '코모도'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코모도에 가면 만타가 동네 명명이처럼 많다'라는 인상 깊은 문장으로 시작된 일행 언니의 코모도 다이빙투어 후기는 마침 그녀의 핸드폰에 들어있던 각종 사진과 함께 감칠맛 나게 이어졌고, 코모도 이야기(라 쓰고 영업이라 읽는다)가 끝났을 즈음에는, 거기 있던 이들이 코모도에 가기로 마음을 굳힌 후였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올해 7월, 우리는 드디어 코모도에 도착했다! 코모도로 쉽게 가는 방법은 글의 뒷부분을 참고 바란다. 인천에서 발리까지 약 7시간, 그리고 발리에서 Komodo까지 약 1.5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이곳, 코모도에서 우리가 5일간 머무를 곳은 Panunee 요트였다.





공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한 부두

**요트 컨디션 : ☆☆☆☆☆**

선실과 샤워룸/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 습기로부터 선실을 쾌적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샤워룸/화장실 자체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뜨거운 물도 잘 나왔다. 갑판의 선베드나 브리핑룸(식당 겸용)도 깨끗하고 정갈했다.



- 1 2층 휴식공간
- 2 2층 선덕
- 3 스위트룸
- 4 2층 포토그래퍼 스튜디오
- 5 다이빙 덩기보트
- 6 다이빙 데크



3



4



5



6



**다이빙 스태프 : ☆☆☆☆☆**

큰 건 엄청나게 크고 작은 건 엄청나게 작다'는 일행 언니의 코모도 영업에 걸맞게 다채로운 수중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이드는 특히 마크로에 집중해서 세세하게 가이드를 해 주었다. 만나나 상어, 거북이는 다이빙들이 알아서 잘 찾아보니 그런 듯하다.

**요트 스태프 : ☆☆☆☆☆**

이쯤 되면 별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찌겠는가. 이 곳 스태프들의 미덕은 '즐거게' 일한다는 점이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정을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다이빙 사이트에 맞는 그림을 그려둔다거나 (예컨대, Manta Alley에 갈 때는 만타 그림) 혹은 팬케익을 별, 하트 모양으로 굽는다거나, 투어 중간에 있었던 생일축하파티 및 farewell ceremony 때 흥겹게 춤을 춘다거나 하는 것은 일을 즐길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야말로 이번 투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이 부분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다이브 사이트 맵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날은 총 2번의 다이빙을 했다. 두 번 모두 동일한 사이트(Wainily)였고 오후 4시, 오후 7시에 각각 체크다이빙 개념으로 진행했다. 체크다이빙이라 천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black ribbon eel, blue ribbon eel, yellow ribbon eel이었다. 이들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색이 수컷은 검은색, 암컷은 파란색, 나이트 암컷은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요트에서 만난 59년차 프렌치 다이버 michelle에게 들은 이야기다. 낯선 다이버를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다이빙 트립의 즐거움이라 할 만하다. 나이트다이빙은 정말이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할 만큼 커다란 누디블랜치가 나타나 자리를 뜰 수 없었으니 말이다.



**Komodo Trip ITINERARY 1**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0630 Morning Call /	0630 Morning Call /	0630 Morning Call /	0630 Morning Call /	0630 Morning Call /
0730 Light Breakfast	0730 Light Breakfast	0730 Light Breakfast	0730 Light Breakfast	0730 Light Breakfast
0830 Manta Alley	0830 Manta Alley	0830 Manta Alley	0830 Manta Alley	0830 Manta Alley
0900 Breakfast	0900 Breakfast	0900 Breakfast	0900 Breakfast	0900 Breakfast
1030 Manta Alley	1030 Manta Alley	1030 Manta Alley	1030 Manta Alley	1030 Manta Alley
1100 Lunch	1100 Lunch	1100 Lunch	1100 Lunch	1100 Lunch
1230 Manta Alley	1230 Manta Alley	1230 Manta Alley	1230 Manta Alley	1230 Manta Alley
1300 Snack	1300 Snack	1300 Snack	1300 Snack	1300 Snack
1430 Manta Alley	1430 Manta Alley	1430 Manta Alley	1430 Manta Alley	1430 Manta Alley
1500 Snack	1500 Snack	1500 Snack	1500 Snack	1500 Snack
1630 Manta Alley	1630 Manta Alley	1630 Manta Alley	1630 Manta Alley	1630 Manta Alley
1700 Dinner	1700 Dinner	1700 Dinner	1700 Dinner	1700 Dinner

두 번째 날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다.(이것이 이후 일정의 근간이 된다)

- 06:30 이른 아침 및 브리핑
- 07:30 1st 다이빙 (Manta Alley)
- 09:00 아침식사
- 10:30 2nd 다이빙 (Manta Alley)
- 12:00 점심식사
- 14:00 3rd 다이빙 (Manta Alley)
- 16:00 스낵타임
- 18:00 4th 다이빙(이 날의 나이트 다이빙은 바다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 19:30 저녁식사



### 대망의 첫 다이빙

Manta Alley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았다! 입수하자마자 만타가 솔하게 나타나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거대한 크기의 만타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 경계심이 없는 건지, 만타는 우리 다이버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명했다. 덕분에 날갯짓하는 것 같은 만타의 모습을 실컷 바라볼 수 있었고, 50분이 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있었다.

두 번째 다이빙 때는 금속 언니의 후드베스트를 빌려 입었는데, 왜냐하면 첫 다이빙 때 수온이 24도까지 나왔기 때문이었다. 27도부터 추위를 느끼는 필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수온이었다. 투어기간(7월 초) 수온은 최저 24도에서 최고 29도를 오갔으니 혹 코모도에서 다이빙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라.

세 번째 다이빙 때는 100로그 celebrating을 했다. 버디인 수진이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100로그 기념 현수막과 함께 수중사진을 찍었고, 출수 후에는 일행의 리더인 노마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노마다이브' 타월에 12인의 일행들이 각각 축하메시지를 적어주었다. 현지 스틱들과 다른 다이버들도 100로그라는 말을 듣고 저마다 축하를 해 주었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라 사실 100로그라 하여 뭔가 특별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덕에, 100로그가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무의미했던 숫자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듯, 별 일 없이 안온하게 흘러가는 일상



코모도의 모습

속에서도 좋은 이들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풍요로운 삶이란, 결국 그런 순간들로 충만한 삶일 테니.

그리고 어느덧 Panunee에서의 세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 날은 총 4회의 다이빙 중 2회가 나이트룩스 다이빙이었다. Dive site는 순서대로 Batu Bolong, Karang Macasar, Mawan Island, Gili Lava Bay(Night diving)였다. 이 날의 테마는 단연 조류였다! 3번째 다이빙까지 모두 조류가 있어서, 조류를 타고 신나게 날았다.

과거에는 조류가 있다 하면 겁이 좀 났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날아갈까 기대를 하게 된다. 조류를 타면서 만타도 (또) 보고 산호도 보고, 잠깐 대기를 할 때는 조류를 거슬러 핀키를 차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던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신이 났다! 특히 Mawan Island에서 마지막 15분 정도 머물렀던 장소는 수심이 10m 전후로 무척 얕은 바다였는데, 바닥에서는 흰색 모래와 빨간색 모래가 섞여 영롱한 색감을 뽐내고, 투명한 하늘빛을 띤 바닷물은 태양빛을 오롯이 받아내느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물 아래에서 올려다본 수면에는 파도로 인한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색감의 조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파장은 기가 막힌 장관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으뜸이와 버금이 물고기를 정했다. fire dartfish와 곰치가 바로 그것이다. 피지에서 만나 같이 다이브트립을 다니고 있는 금속 언니는 박스티를 입을 듯한 모양이 귀엽다며 엔젤피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애착이 가는 물고기가 있으면 다이빙 때마다 그 물고기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다. 다이빙을 즐기는 소소한 팁이랄까.(물론 필자는 만타도 좋아하고 거북이도 좋아하고, 상어도 고래상어도 잭피쉬도 바라쿠다도 좋아하지만 그들은 너무 메이저한 느낌이라, 으뜸물고기와 버금물고기는 좀 더 소소한 어종으로 골라 보았다)

두 번째 site는 Shot Gun이었다. 1~3분 정도로 짧지만 강력한 조류 스팟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사전 브리핑이 무색하게 조류는 약했지만(보름 즈음에 오면 멋진 조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월초에 가서 그런지 조류가 약한 편이었다.) 그걸 충분히 보상할 만큼 멋진 지형을 가진 곳이었다. 가운데가 깊이 파인 bowl 같은 지형으로 진입하는데, 장엄한 기상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다. 우측 상단에는 잭피쉬 무리가 모여 들고 있었는데,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헬름 협곡의 전투'에서, 연합군을 지원하러 등장한 로한의 군사들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 '협곡'을 지나서 잠시 정지해 있을 때, 이번에는 거대한 만타가 다가왔다. 저 멀리에까만 형체가 흐릿하게 보여 혹시나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만타의 형태를 갖추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zoom out되는 만타만 보다가 이렇게 zoom in되는 만타를 보니 감동이 남달랐다. 호흡까지 숨죽이며 미동도 않고 바라보고 있자니 만타는 필자를 스칠 듯이 지나쳐 갔다. 이 때 귀에서는 Ludovico Einaudi의 Experience가 bgm으로 자동 재생되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헤비한 코스 뒤에는 셔벗 같은 것으로 입가심을 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사이트인 Gili Lawa Darat Passage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다이빙을 했다.

Gili Lawat Darat의 백미는 다이빙이 아니라 트래킹이다. 다이빙을 마치자마자 Gili Lawat Darat의 Puncak으로 트래킹을 갔다. (Gili가 '섬'이라는 뜻이고 Puncak은 우리가 오른 언덕의 이름이다)

요트에서 Puncak을 바라봤을 때는 윈도우즈 배경화면이나 텔레토비 동산에 어울릴 듯 아담하고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르니 상당히 가팔랐다. 약 15분가량 거친 숨을 내쉬며 올라갔는데, 정상에 오른 순간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땅에서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능선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다에서는 잔잔하게 파도가 일렁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지점에

서 sunset이 시작되고 있었다. 덕분에 황금빛으로 빛나던 풍경들은 금세 붉은 빛으로 낮을 바꾸었다가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짧았기에 더욱 강렬하게 남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 또한 절경이었음은 물론이다.

Panunee로 돌아온 일행 중 일부는 나이트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갔고, 일부는 배에 남아 파티를 하기로 했다. 파티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다. 바다가 아름다워서, 하늘이 아름다워서, 땅이 아름다워서, 누군가의 생일이 7월이라서, 누군가의 100로그라서(나쁜 아니라 투어 일행인 승아씨도 트림 중 100로그를 맞았다), 그냥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서투에서,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가 '즐거움'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신기하게도, 이번 투어에서는 즐겁지 않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투어 중 한 번쯤은 몸이 힘들다고 느꼈고 한 번쯤은 '이쯤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다이빙을 쉬고 싶었다. 하지만 코모도 투어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속취로 빠진 마지막 날 다이빙은 논외로 하자)

종이 울리면 밥을 먹고, 또 종이 울리면 브리핑을 듣고 다이빙하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또한 얼마 전까지, 이제 다이빙은 충분했으니 서핑 같은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다이빙을 통한 즐거움은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투어를 통해, 다이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마치 화수문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은.

자세나 호흡 등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그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대신 오롯이 내 자신이 물속에서 경험하고 감각하는 데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넓어진 시야 덕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피면서 다이빙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 하는 투어가 이렇게나 즐겁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쓰는 이 글은 코모도에서 발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 발리의 해변에서 짬짬이 완성하고 있다. 다음 글 또한 즐겁게 다이빙 투어를 마치고 쉬는 어느 해변에서, 혹은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쓸 수 있기를 바라며, 2017년 7월, 코모도 리브어보드 투어 후기를 마친다. 🐬



섬의 정상에 올라본 모습

## 코모도 여행을 위한 팁

- Tip 1** 가루다 항공의 수화물은 국제선 국내선 모두 30kg으로 넉넉하니 다이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 항공은 수화물규정이 넉넉지 않으니 가루다항공 연결 편으로 인천-코모도 / 코모도-인천으로 수화물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 Tip 2** 보트는 매주 일요일 13시 출발하여 5박 6일 16회의 다이빙 후 금요일 오후에 하선한다.
- Tip 3** 쉽게 가는 항공 스케줄

인천(INC)-발리(DPS)		발리(DPS)-코모도(LBJ)	
가루다항공 GA871	12:00-18:00	가루다항공 GA 7026	07:30-09:05
대한항공 KE6029	18:10-00:10	가루다항공 GA 7036	10:55-12:25
대한항공 KE6033	16:20-22:20		

발리(DPS)-인천(INC)		코모도(LBJ)-발리(DPS)	
가루다항공 GA870	01:45-09:45	가루다항공 GA 7027	16:00-17:30
대한항공	01:25-09:25	가루다항공 GA 7029	16:25-18:00

### Tip 4 코모도 다이빙을 위한 일반정보

기온 : 낮기온 25~33도, 밤기온 18~23도  
 수온 : 북쪽 26~28 도, 남쪽 22~27 도  
 시야 : 20~50m  
 수트 : 5mm 권장  
 탱크 : 요크 탱크, 나이트록스는 사전 주문  
 전기 : 110~220 겸용(어댑터 불필요)  
 다이브난이도 : 어드밴스 다이버 이상에게 권장

### Tip 5 Panunee의 스케줄

KM1	Komodo-North South	2 Jul 2017-7 Jul 2017
KM2	Komodo-North South	9 Jul 2017-14 Jul 2017
KM3	Komodo-North South	16 Jul 2017-21 Jul 2017
KM4	Komodo-North South	23 Jul 2017-28 Jul 2017
KM5	Komodo-North South	30 Jul 2017-4 Aug 2017
KM6	Komodo-North South	6 Aug 2017-11 Aug 2017
KM7	Komodo-North South	13 Aug 2017-18 Aug 2017
KM8	Komodo-North South	20 Aug 2017-25 Aug 2017
KM9	Komodo-North South	27 Aug 2017-1 Sep 2017
KM10	Komodo-North South	3 Sep 2017- 8 Sep 2017
KM11	Komodo North-South	15 Sep 2017-20 Sep 2017
KCA12	Maumere-Alor-Banda-Ambon	24 Sep 2017-5 Oct 2017
AB13	Ambon-Banda sea	6 Oct 2017-13 Oct 2017
AB14	Ambon-Banda sea	14 Oct 2017-21 Oct 2017
AB15	Ambon-Banda sea	22 Oct 2017-29 Oct 2017
AB16	Ambon-Banda sea	31 Oct 2017-7 Nov 2017
ACR17	Ambon-Banda-Raja Ampat	9 Nov 2017-19 Nov 2017
RA18	Raja Ampat	25 Nov 2017-1 Dec 2017
RAMS21	Raja Ampat (Only Misool)	19 Dec 2017-26 Dec 2017
RAM22	Raja Ampat-Misool	27 Dec 2017-4 Jan 2018
RA23	Raja Ampat	7 Jan 2018-13 Jan 2018
RAM24	Raja Ampat-Misool	15 Jan 2018-23 Jan 2018

RA25	Raja Ampat	25 Jan 2018-31 Jan 2018
RA26	Raja Ampat	2 Feb 2018-8 Feb 2018
RA27	Raja Ampat	10 Feb 2018-16 Feb 2018
RAM28	Raja Ampat-Misool	17 Feb 2018-25 Feb 2018
RAM29	Raja Ampat-Misool	26 Feb 2018-6 Mar 2018
RA30	Raja Ampat	8 Mar 2018-14 Mar 2018
RAM31	Raja Ampat-Misool	15 Mar 2018-23 Mar 2018
RA32	Raja Ampat	24 Mar 2018-30 Mar 2018
RAM33	Raja Ampat	31 Mar 2018-8 Apr 2018
RAM34	Raja Ampat-Misool	9 Apr 2018-17 Apr 2018
CCD35	Cross route Manokwari-Cenderawasih	20 Apr 2018-27 Apr 2018
CD36	Cenderawasih	29 Apr 2018-5 May 2018
CD37	Cenderawasih	6 May 2018 -12 May 2018

## 샘플 일정

### # Brief Itinerary

- Day 1** (2 dives) 8,00 hrs-13,00 hrs Guests arrive Labuan bajo (Komodo) airport, Airport/Hotel pick up to the pier. Check in Panunee. Welcome & Briefing & Lunch. Check dive & Night dive at Wainilu.
- Day 2** (4 dives) Makassar reef, Tatawa Besar, Batu Bolong, Pink Beach
- Day 3** (4 dives) Manta Alley, Cannibal Rock, Torpedo Point, Yellow wall
- Day 4** (4 dives) Batu Bolong, Castle Rock, Shot gun, Gili Lawa
- Day 5** (2 dives) Castle Rock, Crystal Rock, searching for Komodo dragon in the afternoon
- Day 6** (0 dive) 6,00 hrs-8,00 hrs Check out after breakfast. Transfer to Airport/hotel in Labuan Bajo Dive site & Necessary information

### # Panunee 요트 예약문의

예약문의는 현지 연락처 Panunee 요트 예약문의

PT. Panunee Sea Master  
 Jakarta, Indonesia  
 sales@panunee.com  
 +66 8192 69623

### 한국어 예약대행

Dive Space : 변병흠 대표  
 070-4025-2229

노마다이브 : 김수열 대표  
 02-6012-5998  
 nomadive@gmail.com



# IT'S TIME TO BE SMART.

- 1초, 0.5초, 0.25초 간격의 데이터 샘플링으로 신속정확한 데이터 전송
- 고용량 메모리
- 수심, 다이빙 시간, 회복, 속도, 하이드레이션을 사용자에게 맞게 알람 설정 가능
- 수영 및 수중 훈련시에 타이머로 작동 가능
-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및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  
(USB 인터페이스 별도 구매 가능)
- 최신 펌웨어 2.0버전 출시





# 시파단 투어 후기

글 김가림(온더코너 회원, PADI Rescue Diver, LG생활건강 ABM)  
 사진 신동현(온더코너 책임강사, PADI MI)

## Malaysia Sipadan



씨벤처스 가는길



씨벤처스 리조트 밤

### 들어가며 - 다이빙과 6펜스

다이빙은 제 일상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일상에 묶이면 바다가 품고 있는 야성과 관능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서머릿 몸은 '달과 6펜스'에서 둥근 은빛 형태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달에, 안정적인 일상생활은 6펜스짜리 은화에 비유하며 급작스레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타히티로 떠난 고갱의 삶을 소설로 그려냈습니다. 서머릿 몸도 영국에서 의사로 일을 하다 소설이 당선되자 과감하게 본업을 그만두고 소설에만 정진했으니, 작가 자신이 고갱의 삶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았을 터입니다. 헤비 다이버들의 열정은 늘 저에게 이 소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안정적인 일상을 내던지고 바다를 향해서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열기. 이 열기는 소시민적 일상파인 저에게 밀물처럼 부담으로 밀려왔다 썰물처럼 허전함을 남기고 빠져나갑니다. 바다가 태연한 표정으로 그 수면 아래 감추고 있는 아름다움, 환상성은 고갱의 달처럼, 일상의 반대편에 있는 걸까요. 답을 내지 못한 질문과 함께 시파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 씨벤처스 리조트

6월 5일 아침 7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한 후, 타와우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선을 탑승했습니다. 타와우까지는 비행시간으로 5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타와우 공항에서 얇이 넓은 아자수가 가득한 포장도로를 90여 분

정도 차를 타고 간 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망망대해를 이동하면, 바다 한 가운데에 다소 생경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붉은 기둥과 파란색 판자벽의 씨벤처스 리조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양쪽으로 가득 달린 철근으로 만들어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마치 테마파크에 온 듯 파란 티셔츠를 입은 씨벤처스 리조트 직원들이 양쪽으로 손을 흔들며 맞아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온더코너 이름이 적힌 커다란 테이블에 '웰컴주스'가 11잔 놓여 있습니다. 롤백에서 다이빙 장비를 꺼내 장비덱에 풀어 놓으면, 직원분들이 방까지 남은 짐을 옮겨다 줍니다.

## 시파단섬

씨벤처스 리조트에서는 하루 11명이 시파단 퍼밋을 받을 수 있고, 퍼밋을 받은 날은 새벽 6시에 시작하여 오전 3회, 오후 2회 총 5회의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2004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시파단섬의 모든 리조트를 수중환경

보호를 이유로 철수시킨 이후로는, 시파단섬에서의 숙박은 불가하고 주변 다른 섬의 리조트를 이용하여 퍼밋을 받고 다이빙을 합니다. 저는 씨벤처스 리조트에 머무르는 동안, 6월 6일 3회, 6월 8일 5회, 총 8회에 걸쳐 시파단 다이빙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씨벤처스 리조트에서 시파단 섬까지의 이동시간은 보트로 40분 정도입니다.

## 코랄가든 포인트

6월 6일 새벽 6시에 입수했던 포인트입니다. 시야가 좋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얇은 수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물속까지 바로 내리꽂는 햇살에 반짝이는 다양한 종의 산호가 아름다웠습니다. 첫 포인트로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에는 큰 흉터를 달고, 치석이 잔뜩 낀 이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범프헤드패럿피쉬 수십 마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군청색과 잿빛이 섞인 듯한 색의 두터운 비늘이 덮인 직각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1



2



3

- 1 씨벤처스 리조트 하우스리프\_프로그피쉬와 다이버
- 2 코랄가든\_범프헤드패럿피쉬와 다이버
- 3 사우스포인트\_거대부채산호와 다이버



드랍오프\_벚꽃산호와 다이버



바라쿠다포인트\_잭피쉬와 거북이



1



2

- 1 일가든(Eel Garden)\_얕은 수심
- 2 랍스타월\_엘로스내퍼와 дай버
- 3 파라다이스 2\_거북이
- 4 파라다이스 1\_수중 구조물
- 5 팡리마\_얕은 수심



3



4



5

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둔한 표정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정지된 화면 속에 들어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이렇게 기괴하고 커다란 생명체를 때로 만나니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바라쿠다 포인트

시파단섬의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6월 8일 오전에 이곳에 입수하였을 때, 엄청난 양의 잭피쉬 스쿨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는 될 것 같은 잭피쉬에 둘러싸여 장관을 감상했습니다. 가이드가 잭피쉬 스쿨링 아래쪽에 바라쿠다 떼가 있었는데, 감압 한계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일단 출수했으니 휴식 후 다시 바라쿠다 포인트를 들어가자고 하여, 시파단섬에서 휴식 후 출수했던 그 위치로 입수했습니다. 이미 떠났을 거라 생각했던 잭피쉬 떼가 출수하기 전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이언트 트레발리 두 마리와 참치 한 마리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잭피쉬 떼 사이로 거북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을 신동헌 강사가 카메라로 담은 동안, 가이드가 가리키는 곳에서 줄지어 이동하는 자이언트 바라쿠다 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한 수중생물들이 저희의 주변을 춤추듯 돌고 돌았습니다.

### 웨스트릿지

시파단섬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극심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북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시파단섬을 거북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 환경 보호 노력을 한 점에 높이 평가받아 영유권을 인정받을 만큼, 시파단은 거북이가 잘 보존된 섬입니다. 6월 8일 네 번째 다이빙 때 웨스트릿지에 입수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산호 벽을 쪽 따라 월 다이빙을 하는 동안 수십 마리의 거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거북이들은 콘트라베이스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우리 팀은 중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짹짹기를 시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가슴



일가든(Eel Garden)\_ 불가사리와 다이버



파라다이스1\_ 난파 스쿠터



팬리마\_ 얕은 수심에서 다이버

아픈 장면을 목격했는데, 다음날 시파단을 방문한 다른 팀은 거북이 두 마리가 상당히 오래 짝짓기를 하는 낭만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 마블섬

씨벤처스 리조트에서 보트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섬으로, 마크로 다이빙 천국이자, 제한된 시야와 모랫바닥에서 특이한 작은 생명체를 만나는 데 초점을 두는 최고의 머크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파라다이스 1, 2, 팡리마라는 이름의 포인트에 입수했습니다. 가이드가 알려주는 곳의 모래를 열심히 보면, 고스트파이프피쉬, 만티스쉬림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2에는 재미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난파선, 오토바이 등 수중 구조물이 있습니다. 난파선의 배 갑판 위에서는, 쉬고 있는 작은 거북이 한 마리를, 그리고 배 바닥 쪽에서는 입을 짹짹 벌리는 크로커다일 피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 하우스 리프

씨벤처스 리조트의 하우스 리프는 일부러 다른 리조트에서 보트를 타고 와 다이빙을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마블섬, 카팔라이섬 못지않은 다채로운 어종과 물고기 수에 놀라게 됩니다. 리조트를 지지하고 있는 붉은 기둥을 수백 마리의 전갱이나 수십 마리의 뱀피쉬들이 둘러싸고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철망 안에 상주하고 있는 셋노란 프로그피쉬와 2m가 넘는 그루퍼, 블루링옥토퍼스도 하우스 리프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미니언즈, 스파이더맨과 함께한 강남스타일

씨벤처스 리조트에서 다이버들과 함께 했던 밤은 더 특별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다이버들이 미니언즈와 스파이더맨으로 분장을 하더니, 오후 5시부터 섀넉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식사 끝나고는 상어와 공룡 코스튬까지 더해져 씨벤처스 리조트를 어슬렁거리며 춤을 춥니다. 흑시

배우거나 유사 직종에 종사하냐고 물어보니, 배우는 아니고 'just for fun'이라고 대답합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일행이 밴드보컬에게 요청해 강남스타일을 부르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미니언즈들까지 떼창으로 강남스타일을 따라 부르는 동안 온더코너 사람들은 무대 앞에서 단체로 말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지 않은 날에는 리조트 게임룸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섀넉에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밤들 속에, 쓸데없는 짓만이 줄 수 있는 간지러운 행복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 마치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레저형 인간도 아니고, 운동신경도 둔한 제가 다이빙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를 철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은 늘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절대 돈만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자본주의적 개념의 레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이빙 투어를 결제할 수 있어도, 바다의 컨디션과 보고 싶은 수중생물들까지 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클릭하면 감상할 수 있는 VOD 서비스가 아니고, 수중생물이 전시된 수족관이나 자연사 박물관도 아닙니다. 열마를 지불했든, 누구도 바다의 그 불친절함에 항의할 수 없고, 그저 간절히 운이 따르길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도 바다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이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온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쿠다를, 그리고 잭피쉬를, 고래상어를, 만타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돈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향해 아낌 없이 돈을 지속해서 지불하는 정신 나간 행동, 이것이야말로 바다가 자본주의 홀러코스터 속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원천이고, 일종의 체제 반항적인 의식이며, 영원히 철들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동시에 늘 통장 잔고를 빈약하게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바다의 상황은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면서도, 데려온 사람들이 좋은 것을 못 보고 가게 될까, 투어 내내 마음을 써주었던 온더코너 스탭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허니문을 대하는 дай버의 자세

**축, 난파선**

**그리고 무인도에서의 일주일**

글/사진 임성현 (PADI DM, NB Divers)

mail@nbdivers.com/카카오톡 : @nbdivers



## 사진 한 장에 꽃혀 먼 길을...

'일본 후지텔레비전 『죽기 전 보고 싶은 세계의 절경 100선』 프로그램에 소개된 명소 중 투표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곳'. 크리스털 블루의 바다와 하늘 가운데 웅기종기 모인 아자수가 눈길을 끄는 한 장의 섬 사진 앞에서 이처럼 거창한 미사여구의 언어는 무력해진다. 마치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남국(南國)의 파라다이스를 현실에 재현해 놓은 듯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축 주(Chuuk State) 지프섬(Jeep Island)의 사진을 처음 만날 날, 머릿속에 남겨진 것은 거창한 수식어구가 아니라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여행하는 인간'(Homo Viator) 본연의 원초적 욕망이었다. 그리고 이차원의 사진은 실제로 마주한 삼차원의 풍경 앞에서 힘을 잃었다. 한 장의 사진이 목적지를 고민하던 소원과 나의 결정을 대신 내려 주었고, 축의 난파선과 무인도는 우리의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다이빙 외의 할 것은 전혀 없다'던 후기는 빛나감이 없었다. 사이판과 괌 두 번을 경유하는 힘든 비행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숙소였던 블루 라군 리조트는 특하면 정전되어 '전기 시간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무인도에서 하룻밤은 밤새 울어대는 커튼 뒤 도마뱀과, 빗물을 받아 양동이로 하는 자연식 샤워로 정점을 찍었다. 과연 이곳은 '정글의 법칙' 촬영지가 맞았다. 이 모든 역경의 기억들을 단지 허니문의 달콤함을 핑계 삼아 즐거운 추억거리로 포장해 버리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섬으로의 여행은 강렬하고 날것 그대로의 자연과 타임캡슐에 담겨진 전쟁의 참상을 가감 없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추측컨대)

한국인이 신혼여행지로는 처음 선택했을 축섬으로의 여행은 평생의 버디가 되기로 작정한 다이버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자 축복이었다.

## 힘난했던 축 가는 길

한 해의 마지막 날 결혼식을 올리고 새해 첫날 밤, 인천에서 사이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상 발권하기엔 유나이티드 항공 독점노선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은 사이판, 괌을 거쳐 축에 도달하는 여정이다. 축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괌에서 무조건 환승을 해야 한다. 완행버스처럼 괌에서 출발해 하와이까지 가는 동안 미크로네시아 축, 폰페이, 코스레와 마셜제도의 마주로, 괄잘렌을 모두 들리는 유나이티드 항공 UA154/155편(일명 아일랜드 호퍼Island Hopper 노선)은 전 세계 항공 마니아들에게 꿈의 노선이다. 목적지 축의 공항코드는 TKK, 경험 많은 항공사 직원도 생소해 하기 일쑤다.

축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열시. 열다섯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축 공항은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도 없는 시골 공항이다. 자신의 짐이 트랙터에 실려 도착하면 바로 손으로 건네받는 시스템이다. 하루에 한번 들리는 비행기를 구경하러 주민들이 몰린다. 예약해 둔 블루 라군 리조트(Blue Lagoon Resort)에서 마이크로 버스로 마중을 나왔다. 축 라군 웨노(Weno)섬의 남쪽 꼭짓점에 위치한 리조트까지는 공항에서 5km 남짓이지만 폭격 맞은 듯 곳곳에 파인 도로의 크고 작은 웅덩이 때문에 버스는 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했다. 길거리에는 폐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최근 출판된 김훈의



- 1 블루 라군 리조트 내에 위치한 다이빙 센터
- 2 하루에 한 대 내리고 뜨는 유나이티드 항공
- 3 수면휴식 장소로 쓰이는 에텐섬(Eten Is.) 드론사진. 과거 일본군 비행장이 있던 곳으로 바로 옆에 스노클링으로 볼 수 있는 제로 전 투기가 수장되어 있다.



1



2



3



4

1 에일리 플라잉 보트 다이빙 사진

2 후지카와 마루의 모습

3 후지카와 마루의 창고에서 본 일본군 방독면 잔해

4 넷째 날 첫 번째 다이빙 니포 마루(Nippo Maru) 35m 지점에 위치한 일본군 정글용 미니 탱크

5 후지카와 마루의 갑판 위에 올려진 각종 유물들

6 키요스미 마루(Kiyosumi Maru) 갑판 위의 유물

7 블루 라군 다이브 리조트의 전형적인 식사(일식)



5

소설 「공터에서」에도 마이크로네시아의 이런 길거리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훈은 축식을 방문하여 소설 줄거리 일부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폐차된 차량과 차량의 주위를 배회하는 주민들을 보는 동안 삼십분이 흘렀고, 열한시쯤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 방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블루 라군 다이빙 리조트는 난파선 포인트들을 최초로 개발한 원주민 키미우 아이섹(Kimiuo Aisek)이라는 다이버의 후손들이 경영하는 곳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4박, 그리고 블루 라군 다이빙샵의 사유지인 폰오무섬(Fonomu Island)에서 1박을 했다. 공항이 위치한 웨노(모엔)섬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에서 유일하게 해변에 맞닿아 있는 리조트이다. 석양 쪽 방에선 매일 저녁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앞 맑은 해변에서의 스노클링도 즐길 만하다. 1박에 방당 150불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되며, 각 방마다 퀸사이즈 침대 두 개가 있다. 물론 냉장고와 나오지 않는 TV도 있다. 와이파이에는 레스토랑과 로비에서만 가능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레스토랑에 모여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다이버를 볼 수 있다. 온수도 곧잘 나오는 편이다. 시설은 조금 허름하지만 뽕뽕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열대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때론 예고 없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정전도 금방 해결되니 조금급해하지 말도록. 현지인 아주머니 한분이 운영하는 마사지샵도 리조트 내에 위치해 있다.

### 점심식사, 그리고 다이빙 센터

여행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먹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던 것 같다(여행에 동행한 평생버디님의 말씀이다). 짐을 풀고 점심을 먹기 위해 들린 리조트 레스토랑은 매끼 사먹어야 하지만 적절한 가격과 다양한 음식으로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그런지 일식이 많았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재료 조달이 안 되어 몇몇 음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다. 특히 격일로 저녁 식사 때 주방장 엄선 오늘의 코스요리를 약 25불 정도에 먹을 수 있는데, 가성비가

훌륭한 코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0~20불 사이에 주문해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산지 직송 참치 요리 등이 맛있었으며 디지털로 주문할 수 있는 과일 샐러드도 빼먹지 않고 시켜 먹었다. 식사 후 방 번호를 불러주고 사인만 하면 마지막 날 숙박비 정산 시 함께 계산되는 시스템이었으며 다이빙 투어를 위한 런치박스 등도 전날 저녁에 미리 주문이 가능했다. 일정 내내 세 끼(런치 박스를 포함하여)를 동일한 식당에서 먹은 셈이었으나 함께한 미식이 버디의 까다로운 입맛을 군소리 없이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단, 열대 여행지의 특성상 느



긋한 기다림의 자세는 조금은 늦게 나오는 음식의 맛을 더욱 감칠맛 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점심식사 후 리조트 한켠에 위치한 다이빙센터로 향해본다. 미리 메일을 주고받아 이날 오후 체크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특별한 성수기가 아니고서는 당일 오전 중에 찾아와도 다이빙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이빙 전용 보트만 열 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매일 대 여섯 대가 다이빙 트립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다이빙계의 대기업 수준이다(참고로 리조트와 다이빙샵의 주인이 같다) 다이브마스터의 수도 그만큼 배정되어 있다. 테크니컬 다이빙도 활발하여, 매일 나가는 보트의 반 이상이 테크니컬 다이버들이었다. 이번 일정에서 함께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팀 일행은 일본에서 온 두 명의 남성 다이버와 중국에서 온 여성 다이버, 그리고 우리 커플 둘, 총 다섯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Abo라는 현지 다이브마스터가 5일간의 모든 다이빙 일정을 함께하며 안내하였다. 축의 거의 모든 포인트는 보트로 5~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운 곳은 탱크마다 리조트에 다시 들어오고 먼 곳은 한 번 나가서 두세 탱크를 하고 돌아온다. 먼 곳을 나가는 경우 다이빙을 마친 후 해산하기 전에 다음날 런치박스 주문 여부를 알려주며, 수면 휴식 중에 식사를 하게 된다. 수면 휴식은 축 라군 안에 산재한 리조트 소속 사유지에서 가지게 되는데, 일본군 비행장이 있던 에텐섬(Eten Is.)이나 지프섬, 폰오무섬 등의 무인도를 이용하게 된다. 나이트록스를 포함한 테크니컬 가스 블랜딩도 완벽히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EANx30을 사용하지만 30m 넘게 들어가는 경우엔 일반 공기를 사용하여 원탱크로 들어간다(Nippo Maru 등). 하지만 보통 유명한 난파선 포인트들이 수심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에, 오픈워터를 갓 떠난 초심자부터 테크니컬 다이버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축이었다.

### 본격적인 난파선 구경

축 제도의 가장 큰 다이빙 볼거리는 바로 난파선이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요 기항지였던 축은, 거함 야마토가 장기간 머물기도 했던 천혜의 요새다(실제로 다이빙을 나가다가 야마토 함이 정박했던 거대한 앵커 잔해를 볼 수 있다). 1944년 2월 16~17일 양일간 이어진 미군의 폭격으로, 축은 삼시간에 세계 최대의 선박 공동묘지로 변하고 말았다. 오늘날 모든 다이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욕구를 충족해주는 축의 난파선은 이처럼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셈이다. 상당수의 징용된 한인들도 남양군도라 불리던 축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 섬이 언제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천국은 아니었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과거 이 섬을 지배했던 일본의 후손들, 그리고 폭격했던 미국의 후손, 그리고 피해자인 한국인의 후손이 한데 어울려 다이빙을 즐기는 모습은 참으로 낯선 풍경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비극의 장소는, 오늘날 다이버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 내가 당시 어드밴스드 다이버라 포인트 제약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워낙 난파선이 많아 총 열한 번의 다이빙 동안 한 번도 포인트를 겹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 난파선의 수심 또한 수면 바로 아래에서부터 40m 이상 이르기까지 다양해 모든 난파선 마니아들이 꿈꾸는 궁극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유명한 포인트로는 니포 마루(Nippo Maru), 아이코쿠 마루(Aikoku Maru), 샌프란시스코 마루(San Francisco Maru), 후지카와 마루(Fujikawa Maru), 신코쿠 마루(Shinkoku Maru) 등이 있으며 수심이 깊어 원 탱크로는 가지 못하는 곳도 많다.

첫날 체크 다이빙은 Betty Bomber라는 일본군 폭격기 난파 사이트에서 진행되었다. 비교적 동체의 형체가 보존이 잘 된 편이며, 고트피쉬의 스쿨링 및 동체 내부의 글라스피쉬 무리가 볼 만한 포인트이다. 조금은 북적북적한 다이빙이었지만 다음날부터 있을 본격적인 편다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다이빙이었다. 2일차에는 수많은 사케 병과 자전거를 볼 수 있는 리오 데 자네이로 마루(Rio de Janeiro Maru)와, 또 다른 비행기 난파 포인트인 에밀리 플라잉 보트(Emily Flying Boat)를 방문하였다. 옆으로 누워 침몰된 리오 데 자네이로 마루에서는 거대한 난파선의 위용을 처음 느낄 수 있었으며 에밀리 플라잉 보트에서는 화려한 연산호가 가득 붙은 쌍발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멋진 영상을 남길 수 있었다. 3일차에는 신코쿠 마루와 더불어 축에서 가장 아름다운 난파선으로 손꼽히는 후지카와 마루(Fujikawa Maru)를 시작으로, 키요스미 마루(Kiyosumi Maru), 질 어뢰폭격기(Jill Torpedo Bomber)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였다. 후지카와 마루는 일본군 후손들이 마련한 위령비와 브릿지, 함포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잭피쉬 스쿨링을 종종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세 번째 다이빙으로 들어간 어뢰폭격기의 경우 블루 라군 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지만 크게 볼 만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4일차에는 35m 지점에 보존된, 갑판 위의 정글용 미니 탱크를 볼 수 있는 니포 마루(Nippo Maru),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산키산 마루(Sankisan Maru), 그리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침몰하여 가장 상부의 수심이 1.5m밖에 되지 않지만 화려한 스쿨링을 감상할 수 있는 고세-마루(Gosei Maru)를 방문하였다. 특히 산키산 마루의 경우 수천 발이 넘는 기관총 탄알, 지프 트럭, 버려진 수백 개의 약병 등 전쟁 당시의 모습을 마치 타임머신처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함께 다이빙한 모두들, 이날이 가장 즐겁고 볼게 많은 보람찬 다이빙이었다고 입모아 말했다. 그리고 비행금지시간에 맞추어 다이빙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첫 다이빙으로 헤-안 마루(Heian Maru)를 방문하였다. 축에서 가장 큰 난파선이기도 한 이곳은, 잠수함에 사용되던 각종 부품과 장비를 실던 지원선으로 여분의 잠망경, 어뢰, 도자기 파편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平安丸'라는 이름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비록 한 번의 다이빙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몇 번이고 들어가도 워낙 배가 크기에 매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나서 수면 휴식을 위해 우리는 드디어 지프 섬에 방문할 수 있었다. 다이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이곳에 머무르거나 데이트립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다이버들은 수면 휴식 때 종종 이 섬을 방문하게 된다. 섬에는 섬을 관리하는 아주머니와 아들, 그리고 개 세 마리만 외로이 남아 섬을 지키고 있었다(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무인도는 아닌 셈이다). 숙박 시설은 남녀가 나뉘어 호스텔 같은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분이 소요된다. 유명한 섬이다 보니 다들 점심 도시락은 뒷전이고 섬의 구석구석을



- 1 넷째 날 두 번째 다이빙 산키산 마루(Sankisan Maru)의 지프차 잔해
- 2 산키산 마루의 기관총
- 3 고세-마루 이모저모
- 4 산키산 마루의 흩어진 약병들
- 5 Welcome to Jeep Island!
- 6 포노무섬의 마지막 저녁, 바비큐를 준비해 주는 스태프
- 7 지프섬에서 부부 한 컷



4



5



6



7

돌아보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나 또한 드론을 날려 섬을 촬영하고 아내를 위해 여러 컷의 사진을 찍은 후에서야 식사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마지막 다이빙으로 지프 섬 리프지대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대왕조개를 무더기로 볼 수 있으며, 유물 관찰 등에 집중했던 난파선 다이빙에 비해서는 조금은 심심한 다이빙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산호 발을 주시하면 흥미로운 영상, 사진 피사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지막 다이빙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오니 어느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 빗물 샤워로 신혼여행의 정점을 찍다

마지막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온 후 보트는 약속대로 우리 부부를 포노무 섬에 내려 주었다. 다이빙샵의 사유지인 이곳은, 지프섬과 비슷한 크기로 섬의 가운데에 더블사이즈 침대가 하나 놓인 방 네 개짜리 작은 방갈로가 위치해 있다. 이날은 우리 부부 외에 혼자 여행 온 일본인 하나, 이렇게 셋이서 섬을 전세내었다. 평상시에 관리인 한 명이 교대로 상주하며, 1박에 135불(1인당 오가는 거리가 꽤 멀고, 스태프가 한 명 더 불기에 요금 좀 센 편이다)을 받는다. 요금에는 오가는 교통편, 첫날 저녁 바비큐, 둘째 날 아침과 점심 세 끼, 그리고 물이 포함된다. 말 그대로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인 셈인데 몰디브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뭔가 애매한 올 인클루시브라 할 수 있다. 1인당 150불을 내면 숙박과 더불어 무제한으로 주변 산호지대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패키지도 있으나 우리는 마지막 날 비행 전 24시간 다이빙 금지시간에 걸려 선택하지 않았다. 어차피 다이빙 금지시간에 걸려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포노무섬에서의 일박은 다양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다.

신혼여행에서 빗물 샤워가 웬 말인가 하지만 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은하수를 볼 수 있는 포노무섬에서의 하룻밤이라면 그 정도 대가는 치를 만했다고 남편은 생각한다. 지금도 종종 아내의 친구 모임 사이에서 전설적 일화로 회자되곤 하는 이 빗물 샤워는, 모아 놓은 빗물을 수도꼭지에서 대야로 퍼서 씻는 형태인데 의외로 씻을 만했다. 샤워를 마치고 해변에 위치한 해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스태프가 소시지, 닭고기, 돼지고기로 구성된 바비큐를 차려온다. 전날 오후 블루 라군 리조트에서 돼지 먹따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섬을 지키는, 평소에는 본체만체 하던 세마리의 개들도 무릎 꿇고 옆에 앉아 다소곳이 고기를 기다린다. 섬의 뒤편에는 새끼 블랙팁 상어들이 수십 마리 거주하는데, 남은 고기를 던지면 생생한 사크 사파리를 볼 수 있다. 방에는 도마뱀이 함께 살고 있으며, 에어컨은 없지만 도둑이 있을 리 만무하니 방문을 활짝 열고 밤새도록 치는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날 새벽, 파도소리에 잠깐 잠에서 깨어 화장실 다녀오다 본 은하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평생을 서울 도심에서 살아온 아내는 이날 은하수를 처음 보았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느긋하게 블루 라군 리조트로 돌아가 정산을 한 뒤 공항으로 향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여행은 막을 내렸고,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의 장막이 열리게 되었다. 다이버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우리에게 허락된 축에서의 한 주는 참으로 축복이었다. 마지막으로 스쿠버다이빙 잡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축을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픈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현지인과 결혼하여 지금도 축에 살고 있는 김도현의 「세상 끝에 살고 싶은 섬 하나」(달 출판사, 2009)와 주강현의 「적도의 침묵」(김영사, 2008). 축을 다이빙 포인트로서가 아니라 여행지로 대할 때, 그곳은 나에게 살아 있는 장소로 말을 건넬 것인데 이 두 책은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인상 깊게 읽은 책의 저자 김도현 씨를 뵈지 못했고, 적도태평양 거대한 문명사 맥락 속에서 축의 역사와 풍습을 엮고 해석해낸 주강현의 책은 한국에 돌아와서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울 터이다. 🐼

독자 투어기

서울환경영화제  
‘소녀와 난파선’을 보고 다녀온  
울진의 나곡수중

글/사진 이상훈





1



2

제14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소녀와 난파선'이라는 영화를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극장에서 상영을 했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김하늘담은 수중사진작가를 꿈꾸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0대 소녀였다. 그리고 나곡의 난파선에서 그림을 그리는 수중화가가를 만나 둘은 사진과 그림을 난파선 포인트에서 수중전시회를 한다는 내용의 영화였다. 한 시간 남짓한 영화가 끝날 때쯤엔 나도 나곡수중의 바닷속을 구경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내가 해양실습으로 오픈워터를 처음 했던 바다도 나곡이었다. 97년도에 오픈워터 C카드를 받고 2002년 강사가 된 후, 그 뒤로 여러 번 나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지난 10년 동안은 어쩌다 나곡을 가보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소녀와 난파선'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동안 나곡의 바닷속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나곡에서 다이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을 이용해 지난 6월과 7월 이렇게 2번을 다녀왔었다. 울진군 북면 나곡으로 가는 길은 바닷가를 따라 꼬불꼬불 가던 예전과 달리 고속도로처럼 넓고 시원하게 길이 뚫려서 서울에서 4~5시간이나 걸리던 거리는 3시간 30분만에 갈 수 있었다.

6월의 다이빙은 영화 속의 주인공 김하늘 님은 소녀가 다이빙을 했던 난파선 포인트를 첫 다이빙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수중 고착 생물이 잘 보존된 꽃동산에서 다이빙을 했다. 난파선 포인트는 어느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모습답게 그 흔적은 많이 사라지고 선수의 일부와 선미의 뼈대 같은 앙상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앞서 먼저 내려간 다이버의 하얀 버블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간다. 덩달아 깊은 수심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점점 그 깊어지는 수심에 하강라인의 끝자락에 흐릿하게 난파선의



3

- 1 가운데 필자와 함께 다이빙을 한 최규홍 씨(좌측), 박환 씨(우측), 박환 씨도 거제도에서 다녀갔다.
- 2 7월에 함께 다이빙을 했던 황민수 씨 가족의 꽃동산에서 안전정지중, 멀리 거제도에서 주니어 오픈워터인 아들, 딸과 함께 다녀갔다.
- 3 난파선에 모여 있는 물고기 무리들, 다이버가 다가가도 별로 도망가는 기색이 없다.



- 1 침선과 дай버 (모델 - 최규홍씨)
- 2 6월에 함께 다이빙을 했던 선아 누나의 해맑은 모습
- 3 마지막 다이빙을 했던 기잠 포인트에서
- 4 7월에 잠수한 침선 포인트에서 (이날 시야가 너무 좋아서 멀리 난파선의 끝자락도 훤히 보인다)
- 5 7월에 함께 다이빙을 했던 황민수씨 가족의 꽃동산에서 안전정지 중 멀리 거제에서 주니어 오픈워터인 아들, 딸과 함께 다녀갔다.
- 6 침선 포인트에서
- 7 6월에 꽃동산 포인트에서 본 눈꽃송이갯민숭달팽이





흔적이 보인다. 많은 무리의 물고기가 예전부터 자기 집처럼 살아 왔다고 다이버의 방문을 환영하듯 도망을 가지 않는다.

최대 수심 22m, 바닥 수온은 8도, 다이빙 시간은 25분. 생각보다 추운 바닷속에서 그리 길지 못한 다이빙 시간을 마치고 상승했다. 두 번째는 꽃동산 포인트였다. 하강라인을 따라 내려가니 커다란 암반에 어른 주먹보다 큰 멍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일질 채집을 못하게 하다 보니 지난 세월만큼이나 멍게의 크기는 상상외로 컸었다. 역시 아직은 낮은 수온 때문인지 그리 오래 다이빙을 못하고 1차와 동일하게 25분 만에 상승 했다.

6월에는 이렇게 2번의 다이빙을 마치고 아쉬운 마음에 7월 어느 주말에 다시 울진에 나곡수중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민섭 강사님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나곡수중의 다이빙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첫인상에 살포시 웃으면서 친절히 대하는 모습과, 같이 다이빙 하면서 유유히 흘러 파란 바닷속을 중성 부력만 이용 해 상승하는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아마 이날 시야가 너무나 좋아서 내 기억이 더 영롱한 것 같았다. 역시 이날도 첫 다이빙은 난파선을 들어갔다. 6월보다는 시야는 더 좋아졌고 수온도 7도가 오른 15도 이었다. 여전히 도망가지 않고 물려있는 물고기 떼를 구경하고, 두 번째 다이빙은 꽃동산으로 진행 했었다. 6월에는 추워서 제대로 구경을 못한 꽃동산 포인트이지만 이번에는 6월보다 시야가 더 좋고, 수온이 오른 덕분에 커다란 암반을 한 바퀴 돌고서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전에 못 봤던 여러 종류의 갯민숭달팽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40분가량의 다이빙을 마쳤다. 세 번째 다이빙은 일부로 침몰을 시킨 침선 2호를 들어갔다. 하강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커다란 침선의 모습이 거의 한눈에 들어온다. 시야가 동남아시아의 어느 포인트 못지않다. 배의 주변에는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배를 보호하고 있었다. 배의 크기는 약 30~40m 정도 되는데, 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한 시야였다. 나도 모르게 호흡기를 문 입 속에서는 훈젓말로 종얼종얼 환호성이 나온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이빙의 깊은 매력에 마법처럼 순간 빠져들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맑은 시야에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된 침선의 곳곳을 살펴보며 컴퓨터에서는 상승을 알리는 무감압 한계 시간에 다 달았는데도 모두들 상승하기를

아쉬워한다. 이날 멀리 거제도에서 올라온 황민수 씨도 멀리 온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가는 내내 멋진 침선 다이빙포인트에 대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7월의 어느 주말 3회의 다이빙을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곡수중의 이민섭 강사님이 다이빙을 한 번 더 하라고 권하신다. 4번째 다이빙은 서비스로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신다. 모두 멀리서 새벽에 움직여 몸은 지쳤지만 맑은 시야를 보고 와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에 서비스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모두들 OK를 한다. 그렇게 네 번째 포인트는 10m 내외의 낮은 수심인 기잠으로 향했다.

보트를 타고 약 5분이 걸리지 않는 가까운 지역으로 초보자 교육하기 좋은 포인트다. 바닥에 많은 암반이 깔려 있고 수심이 10m부터 5m까지 완만하게 이어져서 안전정지를 하고 상승하기도 부담이 없는 포인트다. 다이빙 내내 드라이를 입고했지만 마지막은 한기가 느껴지면서 약간의 추위가 찾아온다. 물론 시야는 여기서도 10m 이상은 나왔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수신호를 해도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힘이 없이 여유롭게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멀게만 생각되었던 나곡이 오늘은 가깝게 생각이 되고, 자주 오고 싶다고 느껴진 다이빙이었다. 특히나 하늘빛만큼 파란 물속에서 바닥이 유난히도 흰히 보이고, 큰 배의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다이빙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다. 많은 다이빙을 다녀 보지만 오늘처럼 한국 바다가 시야가 좋다면 그 곳이 어느 지역이든 다이빙 여행이 지루하거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한국 바다는 제주도 말고는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같은 한국 바다를 보았다면 한국의 바다도 정말 멋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 같다.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오늘처럼 맑은 시야의 바닷속에서 물고기와 인간이 더 이상 바다가 더럽혀 지지 않고 같이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한다. 부유물 하나 없이 유난히도 물이 맑아서 아직도 내 머리의 침선 포인트의 잔잔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곡수중을 다시 찾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나 혼자 만이 아니고 함께 다이빙 했던 일행들 모두의 추억이 담긴 아쉬움이었다. 🐚

#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즐기자!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 투어 안내

※ 최소 3일 다이빙 일정 기준



## 필리핀

Philippines



레이테

### 리브어보드

유네스코 바다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는 곳  
**투바타하리프**

최소경비 : 3,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6월만 접근 가능

특징 : 오염되지 않은 필리핀 솔루씨 한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섬. 손상되지 않은 바다환경과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5/6월

###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마кро생물과 고래상어를 만나는 곳  
**레이테/소고드베이**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가능/12~1월 고래상어시즌

특징 : 고래상어 스노클링, 파드레블고스 피어의 마크로 천국과 나판타오에서 만나는 화려한 물고기 퍼레이드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9/10월



투바타하리프

### 리조트

화산지대의 특별한 풍경을 즐기자  
**까미권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화산지대의 독특한 지형으로 갯민숭달팽이가 많고, 광각 풍광도 좋은 편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0년 0/0월

### 리조트

슈퍼마크로의 천국  
**롬브론섬**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

특징 : 마크로를 넘어선 슈퍼마크로 생물의 보고, 특별한 가이드의 세심한 배려를 만날 수 있는 곳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3/4월

## 태국

Thailand



시밀란제도

### 리브어보드

맛난 음식과 다양한 수중생물

### 시밀란제도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11~5월/1~3월 베스트

특징 : 집채만 한 바위 사이사이를 누비는 특별한 지형과 만타레이, 레오파드사크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 떼의 화려한 조화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7년 3/4월

## 미얀마

Myanmar



북안다만해

### 리브어보드

자연 그대로 보존된

### 북안다만해(버마뱅크, 메르퀴제도)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12~4월

특징 : 수중 바위의 경관과 상어나 만타레이, 고래상어 등의 대물들을 볼 수 있는 때 묻지 않는 곳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5/6월

## 인도네시아

Indonesia



발리

###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신들의 천국에서 만나는 해양천국

### 발리

최소경비 : 1,6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다이빙은 연중 가능하나 3~10월이 베스트, 7~9월은 몰라몰라 시즌

특징 : 다이빙+휴양+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다양한 호털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의 숙박과 맛있는 먹거리 투어를 즐긴다. 만타와 몰라몰라를 볼 수 있는 여를 성수기, 리버티릭의 웅장하고 아기자기함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5/6월

###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다양한 아름다움을 함께 만나는 곳

### 코모도국립공원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3~10월/6~9월 성수기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 리조트

최소경비 대비 최상의 편안함

### 마나도/부나켄섬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11월~

특징 : 부나켄국립공원의 아기자기한 물속 환경과 최고의 마크로 포인트를 자랑하는 롬베 1일 투어 일정을 함께 하면 최상의 다이빙 일정이 가능하다. 최소경비 대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마나도의 다이빙리조트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2년 1/2월

### 리조트

마크로 천국, 수중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인 곳

### 마나도/롬베해협

최소경비 : 1,5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3~10월, 7~9월이 수온은 낮지만 마크로가 다양

특징 : 최고의 마크로 사이트로 수중사진가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사진가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부터 최고급의 리조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마크로 다이빙을 메인으로 하는 지역이라 연중 다이빙이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3/4월



롬베해협

### 리브어보드 리조트

묻지도 않고 떠나도 되는 믿음만한 그곳

### 라자암팟

최소경비 : 4,500,000원~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11~3월

특징 : Coral Triangle로 알려진 해양 생태계의 보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한곳에 모아둔 그곳, 라자암팟!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3/4월



라자암팟



코모도

### 리브어보드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 반다씨

최소경비 : 5,350,000원~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가능, 9~11월 망치상어 시즌

특징 : 반다 지역은 물이 맑고 대형 어종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불, 가을로 라자암팟을 도는 리브어보드들이 양본-반다씨 루트를 진행한다. 특히 11월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망치상어 떼를 만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지역이기도 하다. 망치상어 떼 하나라도 반다씨를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 리브어보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

### 데라완제도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

시즌 : 4~11월

특징 : 데라완제도는 유명한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부 연안(동 칼리만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데라완제도는 데라완, 마라투아, 카카반 및 상알라키의 주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오래 해변과 함께 작고 산호섬을 형성한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소로 간주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투어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http://www.dive2world.com)/이메일 [bluemjl@hotmail.com](mailto:bluemjl@hotmail.com)

## 말레이시아

Malaysia

리조트 호텔+다이브센터

### 바다거북의 천국 시파단

최소경비 : 1,99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3~6월 성수기

특징 : 거북이, 바라쿠다, 잭피쉬, 상어는 기본.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다이빙천국. 아름다운 수 상방갈로 리조트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리조트 그리고 리브어보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 시파 단 본섬 다이빙 제한이 있어 일정 중 1일 다이빙이 진행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0년 11/12월



시파단

리조트

### 망치상어를 만나는 곳 라양라양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8월만 운영/4~5월 베스트

특징 : 인공섬에 만들어진 리조트 라양라양. 수많은 해양생물과 산호. 만타와 상어 등의 대형 어종과 망치상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3/4월

리조트

### 푸른 바다위에 홀로 떠 있는 산호섬 랑카안

최소경비 : 2,99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4~11월

특징 : 랑카안 섬은 얇은 대륙붕위에 형성된 산호섬으로 따뜻한 수온과 풍부한 플랑크톤 그리고 잘 발달된 산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산란하는 산란장 역할을 한다. 특히, 4~6월 고래상어(Whale shark)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라양라양

리조트

### 말레이시아 수중사진 전문가가 운영하는 다이브센터 르당

최소경비 : 1,3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3~9월만 다이빙 가능

특징 : 끝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산호 군락.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고기 떼의 장관을 만난다. 필리핀만큼 저렴한 현지경비에 편리한 시설과 뛰어난 환경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9/10월



르당

## 남태평양

South Pacific



통가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사크피딩으로 유명한 곳

### 피지

최소경비 : 2,5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4~10월/7~9월 겨울로 수온은 낮아지나 가장 좋은 시야

특징 : 상어피딩. 2m가 넘는 7~8여 종의 상어에게 손으로 일일이 구분하여 먹이를 직접 던져주는 피딩 마스터의 눈썰미와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타이거 사크에 감당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화려한 산호 군락도 함께 만나는 아기자기함을 겸비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호텔+다이브센터

혹등고래와의 꿈같은 만남

### 통가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7~10월

특징 : 북극의 빙하여행을 끝내고 남쪽의 섬으로 돌아온 혹등고래는 이곳 통가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게 된다. 육아를 하고 있는 혹등고래 부모들은 조금은 예민해져 있지만 새끼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어 환상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11/12월

## 호주

Australia



대보초

호텔+다이브센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산호초 지대

### 대보초/코랄씨

최소경비 : 3,0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6~7월 링크고래

특징 : 호주 대륙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는 대보초라는 이름을 갖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 우리와 반대의 계절을 갖는 호주는 12~5월의 우기에 습도가 높으나 28도의 따뜻한 수온, 6~11월의 건기에 쾌청하나 21도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예전만큼 멋진 산호초는 이제 케인즈 인근에서는 만날 수 없으나 그 래도 대보초 이름은 분명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소 4박 이상의 리브어보드로 진행되는 코랄씨에서는 아직도 간강한 호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물고기에 휩싸여 보이지 않는 그곳

### 용갈라렉

최소경비 : 문의

최소일정 : 문의

시즌 : 연중

특징 : 난파선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해양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동지를 틀고 있다.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뻥뻥이 들어 차 있는 고기들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하루나 이틀 다이빙이면 충분한 곳으로 이곳만을 위한 여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호주 여행 중에 일정을 더해 가볼 만한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11/12월

투어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http://www.dive2world.com)/이메일 [bluemj@hotmail.com](mailto:bluemj@hotmail.com)

## 북태평양

North Pacific



팔라우

호텔+다이브센터

### 많은 물에서 만나는 수중 절경 사이판/티니안/로타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8월, 12월 태풍발생 가능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그로토의 멋진 풍광, 잠수함 포인트의 즐거움과 B29 포인트에서의 기념사진 그리고 티니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이판을 즐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7/8월

호텔+다이브센터

### 많은 물에서 만나는 수중 절경 팜

최소경비 : 1,700,000원~  
최소일정 : 4박 5일~  
시즌 : 연중/8월, 12월 태풍발생 가능  
특징 : 맑은 물에서 만나는 즐거운 다이빙. 제1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코모란호와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도카이 마루가 한 자리에 있는 특별한 곳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5/6월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 민고 가는 그곳, 팔라우 팔라우

최소경비 : 1,800,000원~  
최소일정 : 4박 6일  
시즌 : 연중/1~2월 만타 짚시기 시즌, 8월 12월 태풍발생 가능  
특징 : 상어를 동네 강아지처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팔라우. 블루홀, 블루코너, 저먼채널 ...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다이빙지역.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들리에 케이브와 1시간 여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 이동하며 즐기는 특별한 팔라우 락아일랜드 그리고 해파리호수와 산호머드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팜

리조트

### 만타의 고향 압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1~2월 만타시즌  
특징 : 만타를 비롯해 건기에는 외해의 거대한 상어 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월 만타 짚시기 시즌이 되면 수많은 만타의 페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06년 11/12월

리조트 리브어보드

### 격이 다른 난파선 다이빙 츄

최소경비 : 2,400,000원~  
최소일정 : 5박 6일~  
시즌 : 연중/12~4월 건기로 가장 좋은 시야  
특징 : 시력이 시야인 곳 특히 건기에는 100m 이상의 난파선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난파선은 심심하다는 편견을 깨는 츄의 난파선은 화려한 연산호와 색색의 고기떼 그리고 난파선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3년 11/2월

## 이집트

Egypt



남홍해

호텔+다이브센터 리브어보드

### 홍해... 그 이름만으로 시나이반도(삼엘세이크, 다합)

최소경비 : 2,900,000원~  
최소일정 : 6박 7일~  
시즌 : 연중/10~11월 바다는 좀 거칠지만 가장 좋은 시야  
특징 : 붉게 물든 사막과 푸르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해, 석양이 지면 바다조차 붉게 물들어 버리는 이곳의 물속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낮다. 유명 휴양지인 삼엘세이크는 다이빙 외에 사막투어 등의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2~4일씩 운항하는 리브어보드 추천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1년 1/2월

리브어보드

### 특별한 만남의 여행 남홍해(후루가다, 마르사알람)

최소경비 : 2,800,000원~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연중/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취소되거나 조정  
특징 : 홍해 남쪽을 지나 수단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루트로 겨울엔 환도상어, 여름엔 망치상어 그리고 봄에는 만타와 고래상어 시즌이 번갈아 펼쳐진다. 운이 좋으면 듀공도 만날 수 있는 남쪽 루트는 시나이반도 쪽의 삼엘세이크보다는 수온이 높긴 하나 겨울 시즌에는 여전히 21도 이상 내려가기도 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 인도양

Indian Ocean



몰디브

리브어보드

### 허니문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몰디브 몰디브

최소경비 : 3,400,000원~  
최소일정 : 8박 10일~  
시즌 : 연중/3~4월 Deep south/10~11 North Route  
특징 : 다이빙 보트가 별도로 있어 럭셔리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리브어보드 여행지. 시즌에 따라 시야는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시야와 알록달록 색색의 어종을 만날 수 있다. 야간 상어 다이빙, 고래상어 스노클링과 만타 다이빙은 다시 몰디브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4월에 최남 쪽까지 내려가는 루트에서는 고래상어 나이트 스노클이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2월, 2017년 3/4월

리조트

### 인도양의 보석 세이셸/모리셔스

최소경비 : 문의  
최소일정 : 문의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세이셸 군도의 내부 제도는 연산호와 스폰지나 돌인 바위를 볼 수 있는 흔한 화강암 암초 다이빙과 수많은 아름다운 물고기 무리를 볼 수 있다. 섬 바깥 쪽 다이빙은 작은 월과 계곡에서부터 만타레이이동, 수많은 난파선 및 최고의 부채산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한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갈라파고스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하와이**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8박 9일(리브어보드)~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야간 만타레이 다이빙과 블랙워터 다이빙이 압권인, 돌고래, 바다거북, 고래상어 등을 볼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리브어보드

망치상어, 망치상어, 망치상어

**코코스섬**

최소경비 : 3,2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3~10월/6~9월 성수기

특징 : 저렴한 최소경비에 최고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 화려한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해양생물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은 리브어보드로 다이빙 최적화 지역이다. 이 외에 3~5월 만타 짝짓기 시즌에 만나는 만타 100% 확률의 리조트 다이빙도 가능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4년 11/12월



하와이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돌고래와 춤을...

**바하칼리포니아 (라파즈/코테즈해/소코로섬)**

최소경비 : 6,500,000원~

최소일정 : 11박 12일~

시즌 : 11~6월

특징 : 다이버들과 놀아주는 돌고래, 2인 1만타와 헤엄치기, 숨죽이고 만나는 헤머헤드사크 떼는 물론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교감을 나누는 다이빙은 그 감동이 배가 된다. 승선 후 꼬박 하루를 향해 만나는 소코로 섬은 유네스코 해양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7년 1/2월

리브어보드 **호텔+다이브센터**

신비한 동굴의 빛을 찾아

**유카탄반도(칸쿤/톨룸/코즈멜섬)**

최소경비 : 3,800,000원~

최소일정 : 7박 8일~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동굴의 두려움을 찬란한 빛으로 극복한다. 초보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케번다이빙부터 전문 동굴다이빙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동굴이 있는 톨룸, 교육을 받아야 즐길 수 있는 코스이지만 그 가치는 충분하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9/10월

리브어보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갈라파고스라는 이름 앞에

**갈라파고스제도**

최소경비 : 9,000,000원~

최소일정 : 10박 11일~

시즌 : 연중/건기와 우기 계절이 바뀔 때가 베스트 시즌

특징 :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당신이 생각 하는 물고기는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6~11월의 고래상어 시즌과 연중 볼 수 있는 망치상어는 수온이 낮아지는 7~12월의 건기에 그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특히 갈라파고스에서는 몰라몰라와 다이버들을 홀리는 바다사자의 묘기에 자칫 몰보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5년 7/8월

리브어보드

남미의 파라다이스

**카리브해 (벨리즈/바하마/쿠바/케이만제도)**

최소경비 : 문의

최소일정 : 문의

시즌 : 연중 가능

특징 :

참조 : 스쿠바다이버 0000년 0/0월



코코스섬

리조트

**남아공 사딘런/베이트볼**

최소경비 : 4,000,000원~

최소일정 : 9박 10일~

시즌 : 6~7월

특징 : 대형 그루퍼, 우리에게 낯선 레기사크 다이빙, 거친 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만나는 가마우지, 수천 수만의 돌고래떼, 혹등고래 가족 그리고 정어리떼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 Bait Ball, 다크멘터리에서 보던 자연의 먹이사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참조 : 스쿠바다이버 2016년 7/8월

투어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홈페이지 www.dive2world.com/이메일 bluemj@hotmail.com

다이빙 여행을 갈 때  
스마트폰, 태블릿에

「격월간 스쿠바다이버」  
매거진을 담아가자!



다이빙전문여행사

(주)액션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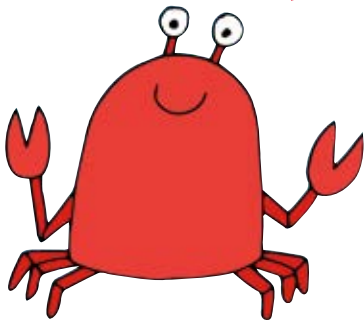
Tel.02-3785-3535

Web : www.dive2world.com

Email : bluemjl@hotmail.com

Mobile : 010-8521-4707

Talk : AngelaMinjung



## 다이빙투어는 액션투어와 함께

-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고 싶은 개인 및 단체
-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 데 번거롭다고 느끼는 개인 및 단체

★ 5/60대 дайвер들이 다이빙샵의 젊은 강사들과 다이빙투어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주)액션투어로 연락주세요.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현지 언어가 불편한 분은 적은 비용으로 가이드 동행도 가능합니다.

개인/동호회/다이빙샵 불문하고 연락주세요.

다이빙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 드리기 위해 (주)액션투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2017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 현충일 연휴를 이용해 떠나는 코모도 리브어보드

일정 2017년 8월 12~19일

특징 연휴를 이용한 코모도 일주일

#### 2017년 추석 스페셜 ①

일정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특징 단 하루의 휴가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여행!! 16인승 범선 TAMBORA로 떠납니다.

#### 2017년 추석 스페셜 ②

일정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특징 따뜻한 바다에서 만나는 망치상어의 환상 군무와 암본의 마크로 천국

#### 2017년 11월 라자암팟

일정 2017년 11월 예정

특징 다이버천국 라자암팟으로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 2017년 12월 소코로 스페셜

일정 2017년 12월 예정

특징 BBC 다크에서 보던 바로 그 명장면, Mobula Jumping!! 그리고 만타, 돌고래와 1:1 다이빙을 하는 소코로 지역으로 떠납니다. 멕시코로 고고씹~

#### 2017년 마무리와 2018년의 시작을 팔라우 리브어보드에서

일정 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8일

특징 RED SNAPPER 찢찌기 장관을 만날 수 있는 팔라우를 리브어보드로 편하게 다이빙합니다.

## 2018년 다이빙투어 상품 안내

### 몰디브 남쪽 스페셜투어

**일정** 2018년 3월 18~31일

**특징** 2~4월에만 스페셜하게 진행되는 몰디브 남쪽으로 떠나는 Deep South Special!! 몰디브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납니다.



### 피지 리브어보드

**일정** 2018년 6월 10~22일

**특징** 상어피딩을 비롯한 피지의 스페셜한 다이빙을 최고의 리브어보드 Siren Fleet 과 함께 합니다.



### 코모도 리브어보드

**일정** 2017년 6월 예정

**특징** 이제는 잘 알려진 코모도 아름다운 수중 환경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코모도로 2018년에도 떠납니다.



### 과달루페 백상아리 다이빙

**일정** 2018년 7~8월 예정

**특징** 백상아리를 만나는 가장 안전한 방법, Cage Diving 리브어보드입니다. 하루 종일, 원하는 대로 상어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 없죠? 여기에 추가적인 일정을 계획중입니다.



### 데라완 리브어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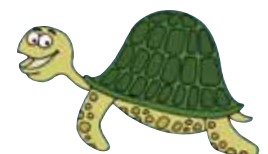
**일정** 2018년 7월 예정

**특징** 2017년 문지마 투어로 기획했던 데라완. 만타, 방치상어, 바라쿠다 잭피쉬 등의 대형어종과 해파리호수, 아기 거북이 방생 그리고 고래상어까지... 알찬 투어를 만납니다.

### 몰디브 북부 리브어보드

**일정** 2018년 가을

**특징** Hannifaru Reef의 만타퍼레이드와 또 다른 몰디브의 모습을 만납니다.



# The World Diving S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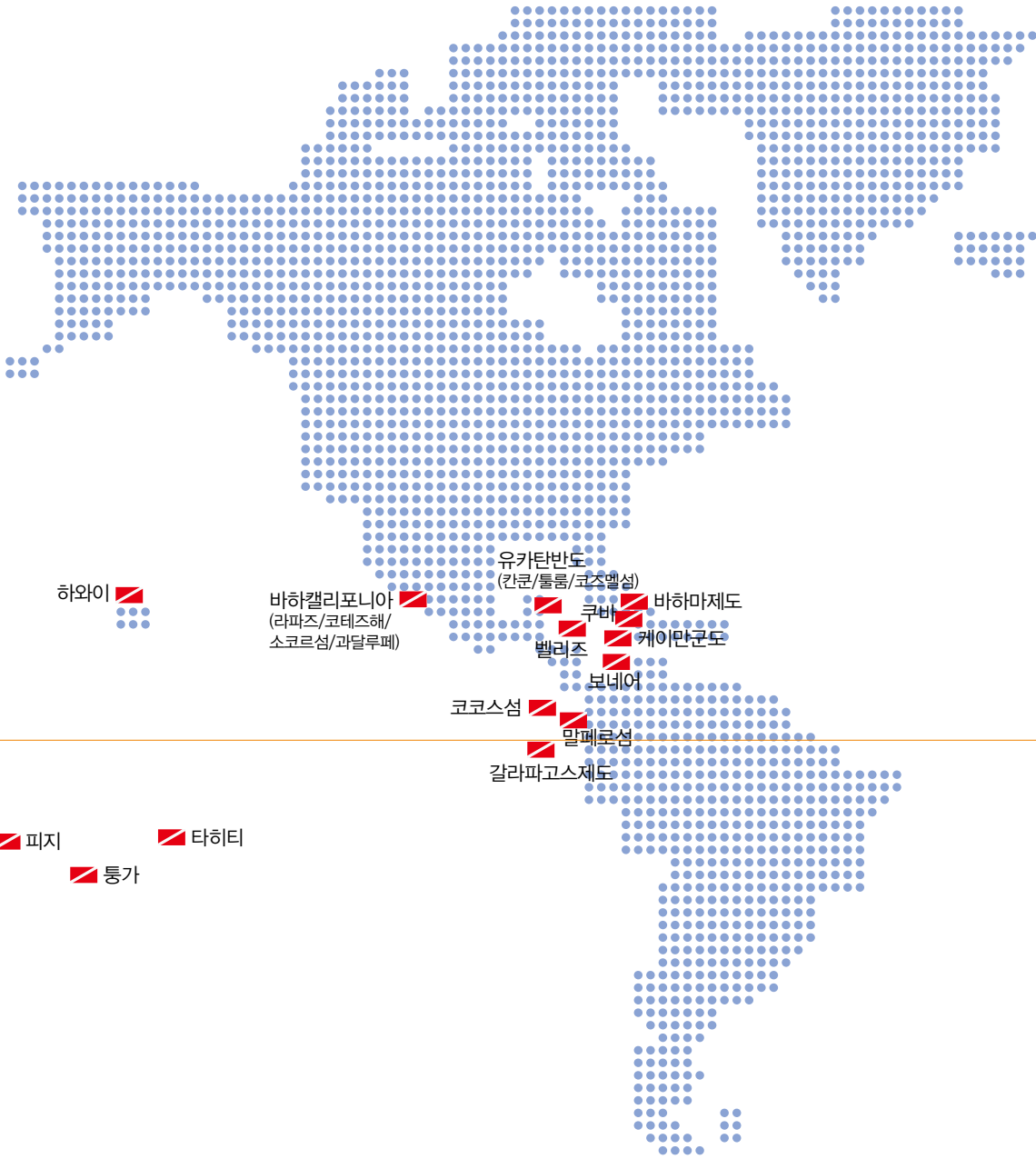
라자암팟



하와이



몰디브



scuba diver



코코스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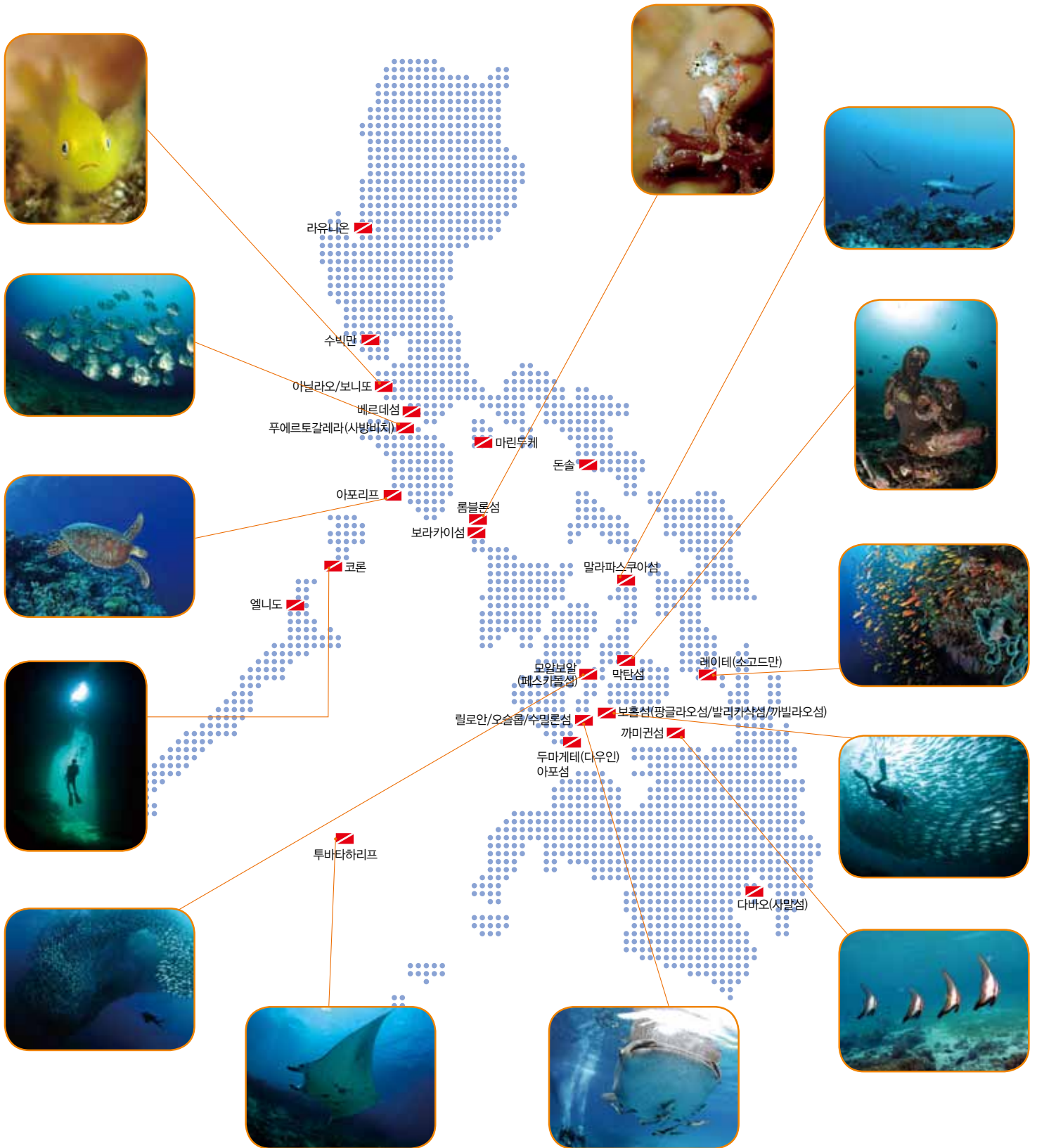


사이판



피지

# The Philippines Diving Sites



# 안전 다이빙을 위한 주의사항

1 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 다이빙을 한다.

3 다이빙은 허용 한계 수심을 지키고, 무감압 한계 시간을 지킨다.

2 하강을 할 때는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바닥 근처에 다다르면 중성부력을 맞추어 산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다이빙 중에 요요 다이빙을 하지 말고, 상승속도는 분당 9m 이내로 최대한 천천히 한다.

5 다이빙 중에 호흡은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6 공기 잔압 체크는 자주 하고, 공기는 70바가 남으면 상승을 시작해서 수면에 올라와서 50바가 남도록 한다.

7 수면 상승 시에는 수심 5m에서 3분 이상 안전정지를 한다.

11 다이빙 중에 수중생물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수면 상승 시에는 반드시 소시지를 띄우고, 수면에 보트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상승한다.

9 국내 다이빙을 할 때는 반드시 칼을 착용한다.

10 자기 실력에 맞는 사이트에서 다이빙을 한다. 또한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나쁘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14 다이빙을 한 후에는 로그북을 작성하고 수중생물이나 생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13 다이빙 후에는 반드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휴식 후에 고도가 높은 지대에 올라가거나 비행기 탑승을 한다.

12 다이빙을 할 때에는 현지 가이드나 인솔 강사의 지시를 잘 따른다.

16 컴퓨터를 나이트록스 모드에 세팅한 채로 일반 공기를 사용하는 다이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다이빙 장비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2년에 한 번 이상 오버홀을 한다.

17 독이 있는 생물을 습득하여 독이 있는 생물을 조심한다.

18 다이빙 전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19 다이빙을 할 때에 보조호흡기나 컴퓨터를 늘어뜨리지 않도록 몸에 바짝 붙인다.

20 평소에 운동하여 체력을 키운다. 특히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



# 다들! 여행자의 항공편



항공권 문의처  
(주)액션투어 Tel.02-3785-3535 bluemj@hotmail.com

매월 최신 일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017년 7월 16일 기준]

## 필리핀 편

### 인천 ↔ 마닐라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621	인천 → 마닐라	08:00	10:50		●	●	●	●	●	●
	KE623		20:05	23:00		●	●	●	●	●	●
	KE624	마닐라 → 인천	00:30	05:20	●	●	●	●	●	●	●
	KE622		12:20	17:15	●	●	●	●	●	●	●
ASIANA AIRLINES	OZ701	인천 → 마닐라	08:05	11:05	●	●	●	●	●	●	●
	OZ703		08:50	11:50	●	●	●	●	●	●	●
	OZ702	마닐라 → 인천	12:15	17:05	●	●	●	●	●	●	●
	OZ704		13:00	17:50	●	●	●	●	●	●	●
Philippine Airlines	PR467	인천 → 마닐라	08:10	11:20							
	PR469		20:35	23:55	●	●	●	●	●	●	●
	PR466	마닐라 → 인천	01:00	06:00							
	PR468		14:30	19:35	●	●	●	●	●	●	●
Cebu Pacific	5J189	인천 → 마닐라	21:35	00:40[+]	●	●	●	●	●	●	●
	5J188	마닐라 → 인천	15:00	20:10							
AirAsia	Z20885	인천 → 마닐라	12:55	16:15	●	●	●	●	●	●	●
	Z20884	마닐라 → 인천	07:10	12:10							
JEUair	7C2305	인천 → 마닐라	19:35	22:40	●	●	●	●	●	●	●
	7C2306	마닐라 → 인천	23:55	04:50[+]	●	●	●	●	●	●	●

### 부산 ↔ 마닐라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SIANA AIRLINES	OZ705	부산 → 마닐라	21:30	00:10[+]	●	●	●	●	●	●	●
	OZ706	마닐라 → 부산	03:30	08:00							
Philippine Airlines	PR419	부산 → 마닐라	21:00	23:45	●	●	●	●	●	●	●
	PR418	마닐라 → 부산	15:00	20:00	●	●	●	●	●	●	●
Cebu Pacific	5J185	부산 → 마닐라	21:40	00:25[+]	●	●	●	●	●	●	●
	5J184	마닐라 → 부산	16:15	21:09							

### 인천 ↔ 클락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hilippine Airlines	PR493	인천 → 클락	23:15	02:35			●	●	●	●	●
	PR492	클락 → 인천	16:55	22:15			●	●	●	●	●

\* 필리핀항공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천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매일 1회 운항한다.

### 인천 ↔ 보홀 (딱빌라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hilippine Airlines	2P2483	인천 → 보홀	02:30	06:00	●	●	●	●	●	●	●
	2P2482	보홀 → 인천	17:05	22:05							

### 인천 ↔ 세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631	인천 → 세부	19:20	22:40	●	●	●	●	●	●	●
	KE5781		07:30	11:05	●	●	●	●	●	●	●
	KE632	세부 → 인천	00:05	05:30	●	●	●	●	●	●	●
	KE5782		12:35	18:05	●	●	●	●	●	●	●
ASIANA AIRLINES	OZ709	인천 → 세부	21:30	01:00[+]	●	●	●	●	●	●	●
	OZ710	세부 → 인천	02:00	07:30							
Philippine Airlines	PR485	인천 → 세부	08:30	12:00	●	●	●	●	●	●	●
	PR484	세부 → 인천	00:50	06:25							
AirAsia	Z29047	인천 → 세부	20:55	00:25	●	●	●	●	●	●	●
	Z29048	세부 → 인천	14:25	19:55							
JEUair	7C2405	인천 → 세부	20:50	00:00[+]	●	●	●	●	●	●	●
	7C2461		10:45	14:10							
	7C2406	세부 → 인천	01:20	06:50	●	●	●	●	●	●	●
	7C2462		15:05	20:35	●	●	●	●	●	●	●
JIN AIR	LJ021	인천 → 세부	07:30	11:05	●	●	●	●	●	●	●
	LJ025		19:45	23:20	●	●	●	●	●	●	●
	LJ022	세부 → 인천	12:35	18:05	●	●	●	●	●	●	●
	LJ026		00:35	06:05	●	●	●	●	●	●	●

### 부산 ↔ 세부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IR BUSAN	BX711	부산 → 세부	21:05	00:30	●	●	●	●	●	●	●
	BX712	세부 → 부산	01:25	06:30							

### 인천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hilippine Airlines	PR487	인천 → 깔리보	08:25	11:45	●	●	●	●	●	●	●
	PR489		06:50	10:10	●	●	●	●	●	●	●
	PR486	깔리보 → 인천	01:10	06:30	●	●	●	●	●	●	●
	PR488		23:15	02:35	●	●	●	●	●	●	●
AirAsia	Z20039	인천 → 깔리보	16:55	20:15							
	Z20037		06:55	10:10	●	●	●	●	●	●	●
	Z20038	깔리보 → 인천	10:40	15:55							
	Z20036		00:40	05:55							

### 부산 ↔ 깔리보(보라카이)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Philippine Airlines	PR483	부산 → 깔리보	19:35	22:35			●	●	●	●	●
	PR482	깔리보 → 부산	13:30	18:30							
AirAsia	Z20059	부산 → 깔리보	20:00	23:00							
	Z20058	깔리보 → 부산	13:55	18:50							



## 기타 편

### 인천 → 덴파사르(발리)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629	인천 → 덴파사르	18:10	00:10[+1]	●	●	●	●	●	●	●
	KE5629		12:00	18:10	●	●	●	●	●	●	●
KOREAN AIR	KE630	덴파사르 → 인천	01:25	09:25	●	●	●	●	●	●	●
	KE5630		01:45	09:45	●	●	●	●	●	●	●

### 인천 → 사이판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SIANA AIRLINES	OZ625	인천 → 사이판	19:40	01:10[+1]							●
			20:15	01:45[+1]	●	●	●	●	●	●	●
ASIANA AIRLINES	OZ626	사이판 → 인천	02:20	06:00	●						
			02:50	06:30		●	●	●	●	●	●
JEJUair	7C3402	인천 → 사이판	09:30	15:00							
	7C3404		22:10	03:40[+1]	●	●	●	●	●	●	●
	7C3401	사이판 → 인천	16:00	19:45							
	7C3403		04:45	08:30							

### 인천 → 코롤(팔라우)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677	인천 → 코롤	20:50	01:45[+1]				●			
	KE678	코롤 → 인천	02:55	08:05	●				●		
ASIANA AIRLINES	OZ609	인천 → 코롤	22:10	03:00[+1]			●				●
			23:10	04:00[+1]				●			●
	OZ610	코롤 → 인천	04:00	09:10					●		●
			05:00	10:10	●				●		

### 인천 → 코타카나발루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Jin Air	LJ061	인천 → 코타카나발루	19:05	23:15	●	●	●	●	●	●	●
	LJ062	코타카나발루 → 인천	00:30	06:40							
EASTAR JET	ZE501	인천 → 코타카나발루	19:30	23:35							
	ZE502	코타카나발루 → 인천	00:30[+1]	07:00[+1]	●	●	●	●	●	●	●
			00:45[+1]	07:10[+1]							

### 인천 → 말레(몰디브)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473	인천 → 말레	23:30	07:00[+1]	●		●			●	
	KE474	말레 → 인천	15:40	07:00[+1]		●		●			●
SINGAPORE AIRLINES	SQ607	인천 → 싱가포르	09:00	14:20	●	●	●	●	●	●	●
	SQ452	싱가포르 → 말레	20:45	22:10							

\* 대한항공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콜롬보를 경유하여 운항  
\* 싱가포르항공 인천-몰디브(몰디브-인천) 노선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운항

### 인천 → 푸켓(태국)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637	인천 → 푸켓	19:00	23:10	●	●	●	●	●	●	●
	KE638	푸켓 → 인천	04:00	08:50							
ASIANA AIRLINES	OZ747	인천 → 푸켓	19:20	00:10[+1]	●	●	●	●	●	●	●
	OZ748	푸켓 → 인천	01:30	09:35							

### 인천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735	인천 → 오키나와	15:40	17:55	●	●	●	●	●	●	●
	KE5217		10:35	12:50							
	KE736	오키나와 → 인천	19:05	21:35	●	●	●	●	●	●	●
	KE5218		13:50	16:05							
ASIANA AIRLINES	OZ172	인천 → 오키나와	09:40	11:55		●	●	●	●	●	●
	OZ171	오키나와 → 인천	13:00	15:20	●	●	●	●	●	●	●
JEJUair	7C1802	인천 → 오키나와	13:30	15:45		●	●	●	●	●	●
	7C1801	오키나와 → 인천	16:35	18:55							
Jin Air	LJ245	인천 → 오키나와	10:35	12:50	●	●	●	●	●	●	●
	LJ246	오키나와 → 인천	13:50	16:05							

### 부산 → 오키나와(나하)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SIANA AIRLINES	OZ170	부산 → 오키나와	08:30	10:25			●		●		●
	OZ169	오키나와 → 부산	11:25	13:25							

### 인천 → 호놀룰루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출발	도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OREAN AIR	KE053	인천 → 호놀룰루	21:20	11:10	●	●	●	●	●	●	●
	KE001		17:40	10:00							
	KE054	호놀룰루 → 인천	13:10	17:35[+1]	●	●	●	●	●	●	●
	KE002		11:55	19:25[+1]							
ASIANA AIRLINES	OZ232	인천 → 호놀룰루	20:20	10:30							
	OZ231	호놀룰루 → 인천	12:10	17:10[+1]	●		●				
HAWAIIAN AIRLINES	HA460	인천 → 호놀룰루	22:00	12:10	●					●	●
	HA459	호놀룰루 → 인천	15:00	20:00						●	●

\* 대한항공 KE001, KE002 노선은 도쿄(NRT)를 경유하여 운항합니다.

- 항공 스케줄 및 편명은 각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이빙 후 비행시간 최소화를 위한 직항 스케줄만 표시하였습니다.



# 해외여행 갈 때 알아야 할 투어상식

## 해외여행 중 의사소통 ‘저스트 터치 잇’ 하나면 끝!

JUST TOUCH IT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오픈!  
 Google play(<https://goo.gl/Puvs4F>)  
 App Store(<https://appsto.re/kr/bxfDP.i>)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여행 중 위급 상황 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을 8개 언어로 확대 서비스한다.

‘저스트 터치 잇’은 기존 6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에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추가됐다. 해외여행 중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별 300여 개의 픽토그램이 담겨 있고, 한글·현지어 병기와 음성 재생 기능이 탑재돼 외국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2013년 9월 출시 이후 8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저스트 터치 잇’은 한 번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통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데이터 요금 부담이 없고, 비행기 안과 같이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영사콜센터·주요 재외공관 긴급 콜 기능과 사용자 위치 문자 발송 기능 등 위급 상황 대응 기능을 탑재해 해외여행자의 사건·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 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적용되어 당황하면서 비행기를 탑승한 경험을 겪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2만 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하 'SDR') 단위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 에스디알(SDR, 175만 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또한, 예고 없이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항공권 구입 시기와 무관하게 여행 출발 당일 유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도록 하여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하여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하여 탑승이 안 되거나 비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물론,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하여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SDR :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1SDR은 1,558.71원 수준



DIVING DOCTOR

잠수의학

Q & A



본지의 홈페이지(www.scubamedia.co.kr)  
 잠수의학 Q&A에 다이빙 질병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강영천 박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글 강영천  
 이비인후과 전문의, SSI ITD/IC(평가관)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잠수의학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그리고  
 게시판 내용을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게재하겠으나 언  
 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감압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반 질병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이 좋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위해서는 외국 다이빙 의학 전문 사이트도 가뭇거리고 국내 다이빙 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  
 였으나 간혹 그들의 의견과 다른 제 경험에 의한 개인 의견도 답변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스쿠바다이버 지나 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의 이름을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대로 게재합니다.

한국 다이버 긴급전화(24시간) 운영

연락처 : 010-4500-9113 ※ 다이빙 질병과 관련된 긴급상담에 응합니다.

**Q** 서울 인근 챔버 시설?

해외 투어 중 감압병 증세가 있어 현지에서 챔버  
 치료를 받았고, 아직까지는 허반신에 약간의 마비  
 증세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 의사의 말로는 한국  
 가서도 챔버 치료를 더 받아 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혹은 신뢰할 만한 잠수병 치  
 료시설이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챔버 시설

서울 가까운 곳에는 감압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압  
 력으로 가압해줄 수 있는 챔버는 없습니다.(적어  
 도 이 질의를 받을 때까지 : 2017년 7월 현재 상  
 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답변 그대로 옮  
 깁니다) 현재로서는 경남 통영의 세계로병원과 사  
 천의 삼천포서울병원이 유일한 시설이고, 그 쪽으  
 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비가 온 지 어느 정도이고 챔버치료를 몇 번이  
 나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2~3일 이내 온 증상  
 이라면 현지에서 1주 정도 더 치료받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항공기 탑승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챔버 치료를 1주 이상 받은 상태라면 이미  
 기포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고 손상된 신경(뇌) 조  
 직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귀국하  
 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이내에 챔버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추가적인 챔버치료와 물리치료를  
 겸하는 것이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얼른 쾌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이명

일주일 전에 잠실에서 스킨만 열심히 했습니다.  
 귀가 잘 안 터지는 스타일인데 아파도 조금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별탈은 없었는데 빠~ 하고 4일  
 째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왜일까요? 알려주세요.

**A** 이명/귀울림

압력평형과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이명은 제한적  
 입니다.

첫째, 압력평형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무리하게  
 하강을 계속하면 중이의 압착이 오고 - 그 압착  
 으로 인해 내이가 자극 받아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그다지 오래 가지 않고 차차  
 호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무리한 압력평형이 두개골 내의 압력(두개내  
 압)을 올리고 이것이 내이로 전달되어서 내이액이  
 정원창을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미약  
 하면 이명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청력  
 을 완전하게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히 지속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셋째, 외이도 혹은 고막이 자극을 받거나 부어오르면 이명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 이명은 조금 약하고 쉽게 소실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도 어느 경우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의 수에 의한 것인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 귀 고막 사진
- 청력 검사
- 전정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다시 연락주시면 조언을 드리가 수월할 듯합니다. 얼른 쾌차하길 바랍니다.

### Q 압력평형에 좋은 약?

교육생 중에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줘도 귀 한쪽이 되지 않아서 다이빙 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듣기로는 이퀄라이징에 도움을 주는 약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한 약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A 다이빙 전 약물 복용?

아니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단, 코의 점막을 수축시켜 코 막힘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 약은 감기에 걸렸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어 꼭 해야 하는 다이빙을 한 차례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압력평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단지 압력평형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은 없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압력평형 요령으로 귀가 아파지기 전에 미리 미리 불어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해보기를 권합니다. 또 발살바 방법과 턱을 돌려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해보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꼭 호전되어서 재밌게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Q 귀가 먹먹

안녕하세요? 다이빙 초보입니다. 해외에서 다이빙을 배우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네요.

며칠 전 다이빙 시 압력평형을 미리 못하고 귀가 아파서 압력평형을 했더니 곧 괜찮아져 계속 다이빙을 했는데 물 밖에 나와서 귀가 조금 멍멍하

니 선명하지가 않고 움직이면 약간 소리가 납니다. 보통 때는 하품을 하거나 좀 지나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멍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 2주간 다이빙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사도 놓고 알약과 코에 뿌리는 약을 줬어요. 하루쯤 쉬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괜히 걱정됩니다.

### A 중이 압착

압력평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강을 하다 보니 중이강에 압착이 왔고, 다시 압력평형을 하니 호전되었지만 일단 압착이 왔을 때 손상된 고막과 중이강 점막이 부어올라서 며칠 동안 불편함을 초래한 듯합니다.

현재 많이 좋아진 느낌이라면 이대로 호전될 것입니다. 다시 다이빙할 때(그리고 꼭 다시 자주 많이 다이빙하기를 기원합니다만) 압력평형을 귀가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강을 시작하기 전 수면에서 미리 한 번 하고 내려가면서 귀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압력평형 동작(발살바 방법)을 해주면 압착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Q 압력평형

저는 지상에서 이퀄라이징을 발살바로 시도하면 왼쪽은 쉽게 고막이 부풀어 오릅니다.

살짝 간질거리다가 부욱 하는 느낌이 있지만 오른쪽 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전에 수영장에서 오픈워터 교육을 처음 받을 당시, 오른쪽 귀가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아 그날은 수업을 중단하였는데 감기약을 복용하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퀄라이징이 완전 잘되더군요. 하강하면서 침만 삼켜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감기약을 먹으며 지금까지 20회 정도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병원을 여러 군데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전에 받은 압력상해로 이런 증상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자각하고 나니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신경이 쓰이네요. 코를 풀면 오른쪽에 뭔가가 들어있어 진동을 하는데 안 나오고, 침을 삼키면 오른쪽 부분에 가래 같은 게 걸려있는 듯하고 뱉으려 해도 안 나오고, 침을 삼키면 오른쪽이 불편한데 귀는 깨끗하네요.

계속 알레르기에 약하고 스프레이만 주고(한달 넘게 먹어도 침삼킬 때 오른쪽 부분에 뭔가가

는 듯한 증상은 지속) 내시경을 봐도 콧속은 깨끗하다고 해요. 이전에 이어폰처럼 생긴 기계로 이관검사를 할 때, 왼쪽은 먹먹하더니 고막이 쉽게 부풀어 올랐는데, 오른쪽은 순간적으로 크게 통증이 있더군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래프가 정상이라고 하시고, 병원을 다섯 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증상개선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서 뭐라고 증상을 이야기해야 하며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 A 약을 먹고 다이빙하는 것은 위험

약을 복용하고 압력평형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그 감기약 속에는 비강 점막을 수축시키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 있어서 복용하고 나면 이관 입구를 포함하는 콧속 점막을 쪼그라뜨려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을 먹고 다이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발이 다이빙 중 떨어지면 상승 시 역압착이 와서 정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요즘 약들은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약물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그날의 다이빙을 마치는 시간을 잘 조절하면 꼭 약을 먹으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콧속을 본다고 해도 실제 이관의 입구를 보는 분은 별로 없고, 또 실제 본다고 해도 육안적으로 압력평형을 방해할 만한 소견이라도 단정 지을 수 있는 소견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일 생활하다가 비염이나 부비동염(축농증)이 심해지면 코를 수술할 수 있고 그 이후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디 수술 없이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도 압력평형에 문제가 없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다이빙을 오래 오래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Q 압력평형

저는 한쪽이 이퀄라이징이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는 걸 발견한 것은 2009년 푸켓여행 때였습니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스쿠버다이빙을 할 때(이때가 첫 다이빙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대로 물 밖에서 해보고 입수하였어요. 약 3~4m 부근에서 왼쪽 귀에 심한 압박감과 통증을 느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해서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 다이빙 사고 를 위한 응급 처치

누군가 다이빙 후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 통증 (관절통)
- 무감각, 저림
- 허약감 혹은 마비
- 불안정한 의식 상태
- 호흡곤란
- 시아 혹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 다른 신경학적 증상

## 필수적인 조치로는:

- 다이빙을 변평하게 늘리기
- 기본 인명 구조법 BLS 실시 (필요하다면)
- 가능한 100%에 가장 가까운 산소 공급
- DAN 응급 전화(Hotline) 연결
- 수분 공급 (가능하다면)
- 신체, 신경 검진 (검진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면)
- 다이빙의 징후 및 증상, 응급 처치와 치료의 자세한 내역 기록

다이빙-응급 처치를 배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DAN 과 함께 다이빙 하십시오

DAN 회원이 되십시오



www.danap.org

두 번째는 작년 신혼여행 때었는데 이것도 이퀄라이징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탔을 때 착륙하려고 고도가 낮아지자 왼쪽 귀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돌아올 때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데 형이 스쿠버다이빙이나 헬멧다이빙을 하자고 합니다.

물론 이비인후과에 가봐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박사님께 질문 글 남겨봅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어보면 왼쪽이 구멍이 좀 더 작은 느낌인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 A 압력평형

이퀄라이징 관련 문의가 세 개가 동시에 들어왔네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다이빙할 때 이퀄라이징이 안되는 것만 큼 난감한 일도 없습니다. 꼭 호전되기를 기원합니다.

### Q 두통

증상에 앞서 기본적인 몸 상태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경추의 문제로 일상 생활 중 두통 증상이 있었으나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거의 회복된 상태에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이빙 중 1회 수온이 너무 낮았을 때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 다이빙(수온 30도) 도중 알 수 없는 두통이 발생했고 구역질이 났 습니다. 출수 이후 배에서 휴식하면 1시간 이내로 괜찮아집니다. 이틀간 6회, 같은 증상이 점점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3월 똑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해서 계획된 12회 다이빙 중 3회밖에 못했어요ㅠ. 입수하고 나서 두통이 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두통(대부분 미식거림을 동반 합니다)이 시작된 후 빨리 출수할수록 회복시간이 짧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기보다는 머리통 전체가 날카롭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납니다. 원래 지병 인 두통과는 아예 다른 종류의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하강 시 귀의 통증문 제는 전혀 없으며, 코피나 가래 등은 1cc도 없습니다.

이 컬럼에 부비동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지난 여름 기관지염과 심한 부비동염으로 1개월간 투약했고 현재 일상생활에는 지 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두통증상이 종종 있는 건가요? 다이빙 전 단기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발병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멀미약에 두통약, 근육이완제(경 추관련)까지 복용하고 다이빙을 해봤지만 전혀 소독이 없었습니다.

### A 골치 아픈 두통

두통은 의학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것도 다이빙 관련 두통이라면 정말 어렵 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째, 오염된 공기로 인한 두통입니다. 생각보다 리조트의 컴프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다이빙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둘째, 감염병으로 인한 두통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런 경우 즉, 입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염병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면 반드시 PFO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지럼증이지만 다른 모든 감염병 증상을 당연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 100% 확립된 것은 아니 나 PFO가 편두통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만(실제 본인은 부인하지만) 입수나 중성부력 공기 고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고 다이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은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째, 비특이성 두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 원인을 찾지 못하는 두통으로 가끔 측두동맥염과 연관되기도 하고(이건 편두통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괴로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빙하다가 생기는 두통이라고 다이빙과 100% 연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신경과를 찾아 진찰을 한번 받아보고 필요하면 뇌와 뇌혈관에 대한 MRI/MRA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디 잘 극복하셔서 멋진 다이빙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Q 귀

다이빙 때 이퀄라이징을 미리 못해 귀가 아파오면서 조금 참고 이퀄라이징을 하다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데 병원에 다녀온 후 약 2주간 다이빙하지 않고 오토리빈과 알약을 주어 복용하고 훨씬 나아졌는데도 계속 입을 움직이면 귀속에서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빨리 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전문 이비인후과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동 쪽이나 분당, 용인쪽에 혹시 전문 이비인후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A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길

압력평형할 때 귀에서 기포가 나오면 일단 고막이나 고막이 끼어 있는 곳에 틈새가 있다는 뜻입니다만 육안으로는 천공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큰 문제없이 다이빙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력평형을 할 수 없는 경우 약한 귀가 빨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경우는 하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귀에서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강을 계속한

다면 이것은 하강 방법 혹은 압력평형 방법이나 시점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태로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으로 가보셔도 적어도 현재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양재동뿐 아니라 서울 쪽에 제가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 Q 뇌출혈

뇌출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손은 약간의 둔함이 있고, 말이 조금 어둔하며 맛을 잘 못 느끼는 상태에서 호전되어 지금은 거의 정상이고, 다리 저림으로 인한 통증만 견딜 수 있을 정도입니다. 뇌출혈 환자도 계속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수압과 혈압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답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제가 월래 혈압이 103에 140정도에서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고요. 맹장염 수술을 하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수술 시작하였으나 대장까지 염증이 발생하여 약 3시간 정도 수술 후 어떤 이유인지 혈압이 170~180 정도로 오르더니 퇴원 때가 되어 진통제 등 약을 끊고 나니 오른쪽 저림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A 증풍

아래는 최근 동일한 주제로 받았던 질문에 제가

답한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두개골 수술과 다이빙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을 몇 차례 받은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완전히 회복되었고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않으실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다이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두개골 내부의 수술은 재발과 발작을 막기 위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합니다.

만일 출혈의 재발과 발작의 발현이 수중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나 다이빙 강사/가이드라도 "예 다이빙 하십시오" 할 수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그 이해와 판단에 기초한 결정을 따르십시오.

압력평형만 된다면 저는 어떤 분들에게도 다이빙을 말리지 않는 아주 못된 의사입니다.

### 답변에 대한 답글

네~ 박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 및 발바닥이 심하게 저리고 저림 통증이 있었으나 약물치료 후 많이 완화된 상태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재발이 잘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국내 긴급 전화상담 및 재입챔버 운용현황

### ■ 한국 다이버 긴급 상담전화

Tel. 010-4500-9113(강영천 박사)  
24시간 다이버 긴급 전화 문의 서비스

■ 진해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부 Tel. 055-3549-5896

### ■ 한국잠수응급구난망

경남 통영시 정동2길 58번지 통영세계로병원 고압의학센터  
Tel. 055-648-8275(내선 230, 710)  
010-8556-7529(고압산소치료실장)

■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70-4947-0275(오투치료)

■ 제주도 제주의료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64-720-2275

■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Tel. 064-730-3000~3003

■ 대구광역시 광개토병원 고압산소치료실 Tel. 053-565-1190~1

#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 전원켜기

자동제세동기(AED) 전원을 켜다.



## 패드 부착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패드를 부착한다.



## 분석하기 및 제세동 시행

분석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 심폐소생술 실시

제세동 버튼을 누른 후 30: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

##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어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지는지 관찰한다(대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 +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깎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만든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똑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 +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집어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갈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 + 회복 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Palau**의 코롤은 물론 페렐리우까지  
 팔라우 다이빙의 모든 것을  
 한번에 만나는 **리브어보드 여행**이 시작됩니다.

# SOLITUDE ONE

## Liveaboard

[www.solitude-one.com](http://www.solitude-one.com)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www.dive2world.com/bluemjl@hotmail.com](http://www.dive2world.com/bluemjl@hotmail.com)



영덕 **제이다이버스** (전길동)  
054-732-8884, 010-5466-7375  
jdivers@naver.com



부산 **씨킹스쿠버** (배봉수)  
051-405-1339, 010-3853-5085  
cafe.daum.net/DIVERZU  
www.seakingscuba.com



부산 **아쿠아리우스** (백인택)  
051-744-2194,  
010-6420-7535busan100@gmail.com  
blog.naver.com/skinscuba100



서울 **서울YMCA** (류지한)  
02-738-7799, 010-5312-7851  
ymcacpr@daum.net  
www.ymcalesuire.kr



동해 **DR-PDIC** (김성문)  
010-5364-4747  
pegym@hanmail.net



대전 **K-다이버스** (김명기)  
070-7627-5900, 010-5420-8844  
tel5177@hanmail.net



광주 **와이스쿠버** (박찬)  
010-3689-4100  
scubajiang@gmail.com



대전 **대전잠수교실** (이인환)  
042-625-6533, 010-8259-6091  
pdicins@daum.net  
www.escuba.kr



광주 **와이스쿠버** (최영일)  
062-269-8484, 011-601-2394  
minos993@naver.com  
www.yscuba.co.kr



부산 **부산스쿠버아카데미** (박복후)  
051-503-8896, 010-8384-8837  
just3477@naver.com  
www.scubaschool.co.kr



전북 **전주스쿠버** (서규열)  
063-226-4313, 010-3600-8805  
skr1114@naver.com  
www.jeonjcuba.com



대전 **탑-다이버스** (정구범)  
042-585-0528, 010-8456-2591  
optpro@naver.com



부산 **동부산대학교** (심경보)  
051-540-3775, 010-9313-9029  
rokmc688@hanmail.net  
www.dpc.ac.kr



창원 **PDIC-SEI 경남교원센터** (정세홍)  
010-3860-0567  
yjs4049@naver.com



서울 **한국민간해상보안협회  
PMC훈련센터** (배민훈)  
02-338-3517, 010-5208-3517  
http://blog.naver.com



인천 **(사)한국구조인협회** (피성철)  
010-5419-1436, www.dhuc.co.kr/  
p9511@hanmail.net  
cafe.daum.net/korea.lifesaver



거창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 (신성규)  
055-943-8526, 010-5711-9448  
cafe.daum.net/tgtg119  
www.거창수상인명구조대.kr



창주 **청주마린스쿠버** (정진영)  
043-292-4578, 010-4578-1188  
cafe.daum.net/marinscuba  
wlsud7723@naver.com



부산 **고신대학교** (김성진)  
051-990-2263, 010-3583-2363  
sjkim@kosin.ac.kr



부산 **김스마린** (김학루)  
010-3804-3862  
kimsmarine@naver.com  
www.kimsmarine.co.kr

- 우리는 다른 어떤 교육단체보다 완성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즐거움, 안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 우리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교육자료와 교육과정 그리고 실제로 직접 해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교육과정은 다이버와 짝이 물 안이나 밖에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교육하게 고안되었습니다.
-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버가 됩니다.
- 강사 여러분이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이 유연함을 제공하기에 독립강사 여러분에게도 적합합니다.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과 미국 35개 주에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50년 이상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장애가 있는 다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친절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헌신적인 스태프와 함께 다이버와 강사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9년, 최초의 스쿠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를 양성한 **YMCA SCUBA!**  
 1969년, 최초의 전문 스쿠버 강사 양성 대학, **최초의 스쿠버 구조 프로그램 개발 PDIC!**  
 2008년, YSCUBA의 역사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세계 최고의 비영리 다이빙 협회 S.E.I!**  
 2011년, 세계 최고의 다이빙 교육지도자 연합회 **S.E.I-PDIC International 창설! WRTSC의 멤버!**  
 2016년, 57년의 영광스런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TRAINING PROGRESSION

## DIVER LEVELS

MASTER DIVER LEVEL 4  
 ↑  
 ADVANCED DIVER LEVEL 3  
 ↑  
 ADVANCED DIVER LEVEL 2  
 ↑  
 ADVANCED DIVER LEVEL 1

## SPECIALTIES

U/W Navigation  
 U/W Archaeology  
 Search & Recovery/Public Safety  
 Reef Ecology  
 Nitrox Diver  
 Night Diver  
 Ice Diver  
 Full Face Mask Diver  
 Equipment Service  
 Dry Suit Diver  
 DRAM Rescue Diver

## LEADER LEVELS

COURSE DIRECTOR  
 ↑  
 INSTRUCTOR TRAINER  
 ↑  
 INSTRUCTOR  
 ↑  
 ASSISTANT INSTRUCTOR  
 ↑  
 DIVEMASTER/DIVE SUPERVISOR

OPEN WATER DIVER

Scuba Introduction  
 Diver Refreshed – Review & Update  
 Snorkeling



www.sei-pdic.com



S.E.I. is the only US organization to offer dual certifications with CMAS through the Underwater Society of America



The knowledge and skill-based programs offered by PDIC are a result of many years as a member of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WRTSC) that is responsible for forming and maintaining standards for scuba instruction.



Dive the Future  
Dive ANDI



**ANDI** INTERNATIONAL



# CALENDAR



## 2017 8월 AUGUST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 DAY	SATURDAY	SUNDAY
7월 29일~ IANTD KOREA 여름캠프	1 BSAC KOREA 강사/센터 재등록 공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SD/TDI/ERDI KOREA 장애인 스쿠버다이빙(Scubility) 강사 과정	19	20
21	22	23	24	25	26 PADI 강사 시험(E)	27
28	29 PADI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30	31 SD/TDI/ERDI 북경 ADEX Show			

## 2017 9월 SEPTEMBE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 DAY	SATURDAY	SUNDAY
				1	2	3
4	5 PADI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CDTC)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사)한국수중레저협회(가칭)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협회로 등록하기로 결정

지난 2017년 7월 13일 한수연(회장 신명철) 회의에서 다이빙 교육단체, 각 지역 리조트연합회, 다이빙장비수입업체, 다이빙잡지사 등의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가칭 (사)한국수중레저협회 사단법인 협회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범다이빙계를 대표하는 진정한 사단법인의 탄생은 다이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현재 다이빙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

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등의 시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다. 이런 법률 제정에 다이빙계의 의견 수렴과 대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한수연의 신명철 회장은 다이빙계는 (사)한국수중레저협회를 관심있게 지켜봐주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당부했다.



414쪽 · 값 15,000원

##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스쿠바다이빙 교육에서는 비교적 많은 이론과 실전을 가르치지만, 이것들을 몸에 익히려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실전경험과 시행착오 또는 혼나는 일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위험을 만나게 된다.  
본서에는 수많은 스쿠바다이버들이 겪었던 솔직한 실전경험과 실수들이 드라마틱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나의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억 속에 확실히 남아 다이버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정한 교과서이다.



값 10,000원

## Diving Log Book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기록해 보자. 단순히 수심과 시간 등의 수치만 기록하기보다는, 동시에 돌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보자. 짝과 함께 수중동물을 관찰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림도 그려보자. 평범한 다이브 로그를 기록하는 대신, 보다 깊이 있는 자신만의 관찰기를 적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해양생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해수부, 최대 30km 무선 수중통신 실해역 시험 성공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해양개발·국방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수심 100m의 수중에서 실시한 통신거리 30km의 양방향 통신시험에 성공하였다고 밝히며, 시험 의의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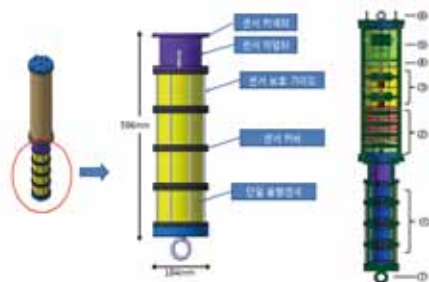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방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수중 무선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호서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음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근거리·장거리 통신장비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5월 3일까지 제주도 동북방 약 23km 거리 해역에서 수심 100m, 거리 간격 30km 지점 간 측정기(모뎀)를 설치하여 음파를 사용한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상황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최대 30km 거리에서 송신된 신호를 왜곡 없이 수신하는 데 성공하여 기존에 신호 왜곡 없이 통신이 가능하였던 최대거리(12km)를 2배 이상 뛰어넘었으며,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육상과 달리 매질의 밀도가 높은 수중에서는 전자파, 광파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음파를 통한 제한적인 통신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장거리 수중 무선 통신이 다양한 조건의 수중 환경에서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문자 정보뿐 아니라 다이버의 음성 정보, 수중 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까지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통신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 이동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우선 잠수함 간 장거리용 통신장비 등 국방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07년 개발)와 수중건설로봇('19년 개발예정) 등 장비들을 사용하여 해저 자원개발·구난 작업을 진행 시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원격제어가 용이해져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장거리 수중무선통신기술 시험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개발 분야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를 개발·보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수중 통신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 연구목적

해양 자원개발 등 수중에서 작업 시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육상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중광역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발.

### 연구개요

- 연구기간/총 연구비 : 2012~2020/270억 원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임용곤)
-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		'14까지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20 이후	계
투자 실적	정부	4,500	1,000	1,800	1,800	3,000	-	-	12,100
	민간	150	-	-	-	-	-	-	150

### 주요 연구내용

- 수중 장거리(30km, 100bps)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수중 근거리(200m, 100kbps)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수중 광역 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계 및 개발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적용 개념도

## 수중 장거리 통신기술의 실해역 시험 현황

### 실해역 시험개요

- 일시 : 2017. 4. 29~5. 3
- 실험장소 : 제주도 동북방으로부터 23km 해역
- 송신 / 수신 : 33°40'26.75"N 127°29'38"E / 33°40'26.75"N 127°29'38"E
- 운용수심 : 약 100m

- 실험항목 : 수중 장거리 통신 시스템의 전송거리 성능 측정
- 측정장비 : 개발된 장거리 통신모뎀
- 거리별 성능측정 : 1/3/6/9/12/15/18/21/24/27/30/33km

### 수중 장거리 통신시스템

- 수중 장거리 통신 시스템 목표사항
- 주파수 : 6.25kHz ± 1kHz
- 전송거리 / 속도 : 30km / 100bps

# 동부산대학교 해양산업잠수과



## The Dept. of Marine Commercial Diving

해양산업기술개발인력 1%, '바다에서 미래를, 바닷속 해결사'

- 산업잠수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잠수 및 스쿠버잠수 기술, 해난 구조 및 응급처치, 일반 해양 산업 및 수중토목 기술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이론 및 실기를 통해 익혀 산업잠수 및 해양레저 전문 기술인을 양성
- 수영장, 잠수 풀장, 태중대 감지 해변, 기타 잠수 현장 등 교외수업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수중 구조물 및 선박하부 상태 촬영 및 조사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 및 교체 인력 양성
- 수중측량, 해양기술개발, 수산 광물자원 개발 등의 해양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 해양 레저 산업, 잠수장비 제조 및 필드 테스트, 스쿠버 리조트 관련 기술 인력 양성
- 수상안전, 아쿠아리스트, 응급처치, 인명구조 관련 수상안전 인명구조 전문가 양성
- 해난구조, 수중토목, 수중 구조물 설치, 선박 접안 시설, 항만 준설 및 암파쇄 등의 수중 시설 시공 분야 전문가 양성

### • 학과장 심경보 교수

051-540-3775, 010-9313-9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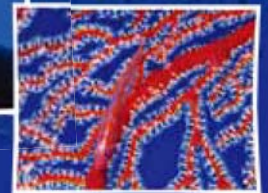
### • 학과 사무실

051-540-3869



## 수중사진의 모든 해법!

**디카, 필카 불문하고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 수중사진 교육과 투어, 촬영장비 판매 및 A/S

✓ 이미지 대여, 작품집 및 편집대행, 촬영용역



### 황스마린포토서비스

Hwang's marine photo service

Tel. 064-713-0098, 010-3694-0098

Fax. 064-713-0099

제주시 우령6길 57 (1층)

대표 황윤태 [www.marine4to.com](http://www.marine4to.com)

#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에 갈 수 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강원도보다 더 오지라던 영덕 지역이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3시간이면 영덕에 갈 수 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상주-영덕 구간으로 지난 2016년 12월 26일 개통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상주~영덕을 3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2시간 30분 단축해서 1시간에 갈 수 있다. 이제 서울에서 영덕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기존 5시간에 비해 2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거주 다이버들은 영덕 지역 다이빙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서 양양까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90분!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강원도 양양 속초 강릉까지 90분 시대가 열리면서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 다이빙 투어가 훨씬 쉬워진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90분이면 속초까지 갈 수 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착공 10년 만이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90분대로 단축하는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 구간 완전 개통을 의미한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도 다이빙 여행이 편리해진다. 사실상 동서고속도로 개통은 그동안 영동고속도로와 미사리-동흥천간 고속도로만 의존했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강원도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 I ♥ PALAU Dive Resort

전화 **070-7436-3308**

현지 **+680-775-2257**

- 대표 곽윤석(Romeo)
- 메일 jywang81@hotmail.com
- 카톡 palauromeo



### 아이러브팔라우 다이브리조트 특징

- ✓ 해변에 위치한 **블루오션뷰호텔**내에 위치
- ✓ 호텔내에 수영장이 있어 다이빙 교육이 용이
- ✓ 대형 스피드보트 소유하고 있어 편안한 다이빙
- ✓ 친절한 강사진으로 다이빙 진행
- ✓ 전화만 하면 공항 픽업부터 다이빙 후 공항 센딩까지 완벽한 서비스 제공

## 부산에서의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스포츠교실**로 오세요!



- 오픈워터에서 강사까지 교육가능
- 부산 최고의 포인트 나무섬, 형제섬, 외섬 투어(사전예약)
- 해양실습하기에 최적의 장소
- 체험다이빙, 스킨다이빙
- 강의실 구비
- 마레스 A/S 지정점



### 해양스포츠교실

Tel. 051. 405. 4111 / Fax. 051. 405. 8335 / Mobile. 010. 7704. 3338(유성용), 010. 4573. 2212(조미진)  
 카페. club.cyworld.com/해양스포츠교실, club.daum.net/해양스포츠교실  
 E-mail. ssi3338@hanmail.net

# 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업계 집단적으로 반발

권역별 현장설명회 파행

2017년 5월 30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을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법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18일에 강원·경북권, 5월 22일에 제주·전라권, 5월 23일에 부산·경남권에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스쿠버다이빙업계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모든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다.

한 스쿠버다이빙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한국잠수협회에 한 현장설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다른 곳엔 공문조차 발송치 않고 있다가 5월 16일 이후 각 리조트업체에 형식적으로 전화로 참석을 연락했다"며 "수중레저법 실행 요건을 맞추기 위한 즉속적인 현장설명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중레저법 시행이 임박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다 보니, 현장설명회 일정이 빠듯해서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고 설득력이 없는 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업계가 수중레저법 시행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6조 '자발적 협약' 조항 때문이다.

일부 지역 어촌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다이빙업체들로부터 많게는 연간 수천만 원씩 '입수료'를 받아온 현실에서 '자발적 협약' 조항이 포함된 수중레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해녀나 어촌계 측의 대가 요구가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는 게 스쿠버다이빙업계의 우려이다. 이외에도 이법에는 다이빙계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스쿠버다이빙계의 인식이다.



# 맹독성 파란고리문어(Blue Ring Octopus)가 거제도에서 발견

바닷가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맹독성 파란고리문어가 제주도에 이어 육지인 거제도 해역에서도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강준석)에 따르면, 파란고리문어는 10cm 내외의 작은 크기지만, 복어류가 가지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성 물질 1mg은 사람을 치사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파란고리문어의 독은 적은 양으로도 신체 마비, 구토, 호흡곤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 등에도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한편, 2015년 6월 우리나라 제주도에 처음으로 파란고리문어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파란고리문어(Blue Ring Octopus)

# 제주 바람소리 스쿠바 & 펜션



네이버 카페에서 바람소리 스쿠바 검색  
<http://cafe.naver.com/baramsorii>

- 완전 리모델링으로 새로 단장한 호텔식 룸과 화장실
- 천정식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
- 전 일정 식사 제공, 공항 픽업 가능
- 넓은 잔디밭에서 제공되는 바베큐 파티
- 보팅 위주의 편안한 체험 다이빙 및 편 다이빙
- 다이빙 교육
- 나이트룩스 및 트라이믹스 등 테크니컬 다이빙 완벽 지원 (더블탱크, 데코탱크 대여)
- 스쿠터 교육 및 대여(최신형 스쿠터 8대 완비)
- 수중사진 촬영 및 교육

연락처 **010-7425-9088**



## 수중랜턴의 괴물(6000루멘)

# 씨 몬스터 SEA MONSTER

LED : 50W

밝기 : 5500~6000lm

CCT : 5500~6000K

바디 : 항공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스위치 : 트위스트 냉식 스위치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 500회 총방전

충전시간 : 1시간 20분

사용시간 최고광량 : 3시간

전멸 시까지 12시간 소요

렌즈각도 : 110도

수심 : 100m

크기 : 길이 157mm x 지름 90mm x 높이 90mm

무게 : 1364.8g

소비자가격 : 85만 원



### 미래테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48번지 세기빌딩 102호 | Tel : 02-2269-1044, 010-5274-5177 | E-Mail : jws1044@hanmail.net

#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스킨스쿠버 등의 해양레저 주의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저자 : 남종영  
 출간 2017-05-15  
 ISBN 9791160400557  
 페이지수 420페이지  
 154 X 216 X 28 mm/670g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는 2011년 7월 불법포획된 돌고래들이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국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총 420쪽 4부 1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한민국 돌고래쇼의 역사에서부터 돌고래 불법포획의

문제, 돌고래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복지와 생명 정치의 문제, 제돌이시민위의 출범과 야생방사, 그리고 방사된 돌고래의 최근 모습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히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돌고래와 동물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 프롤로그

### 1부 물 아래로부터의 역사

- 1장 아무도 그들을 모르던 때
- 2장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삼총사
- 3장 고리와 래리의 공연 거부

### 2부 남방큰돌고래는 돌고 돌고 돈다

- 4장 큰돌고래, 아니 남방큰돌고래!
- 5장 JBD009는 서울에 있었다
- 6장 제돌이의 운명
- 7장 야생방사는 가능하다
- 8장 프리 월리, 프리 제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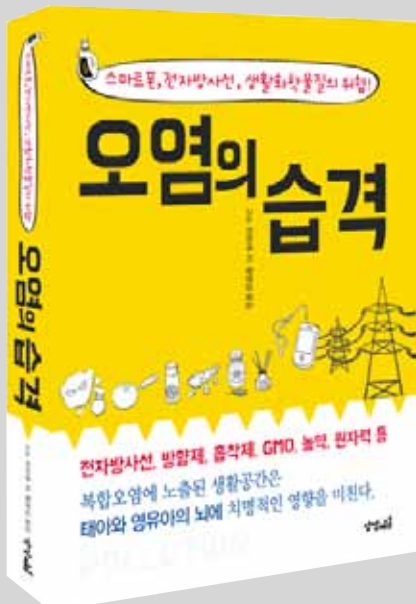
### 3부 생명정치와 돌고래의 저항

- 9장 돌고래 정치의 개막

- 10장 야생의 몸에서 수족관의 몸으로
- 11장 자유, 저항, 공존
- 12장 마지막 쇼
- 13장 돌고래 재판-사건 2012도16383
- 4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않고 돌고래는 떠났다
- 14장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 15장 생명정치의 실패
- 16장 태산이, 복순이와의 약속
- 17장 오래된 미래

## 에필로그

대한민국 돌고래쇼의 역사  
 찾아보기 참고 문헌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의 위협!**

## 오염의 습격

최근에 가슴기 피해로 어린생명들의 귀한 목숨이 희생된 후 각종 생활화학 물질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위협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특집으로 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GMO 식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이 일면서 전자방사선의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다.

상상채널에서 발간된 오염의 습격은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합성세제, 유연제, 방향제, GMO 식품, 애완동물용 살충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내 화장실은 없어도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대인,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자!

출판사 : 상상채널  
 고소 히로에 지음 | 황명섭 옮김  
 정가 : 17,000원 | 430쪽 | 2016.10.10  
 ISBN : 979-11-87510-01-7 (03400)

# 2017 SEACAM SHOOTOUT

## 2017년 씨캠 수중사진 촬영대회

### 부상내역

- 씨캠 하우징과 기타 카메라 장비
  - 몰디브지역 리브어보드 탑승권
  - 인도네시아지역 리브어보드 탑승권
  - 현금 1,500 | 1,000 | 500 \$US
- 계속해서 상품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촬영대회 리브어보드 일정

- Komodo 2017년 7월 22~31일, 8월 2~11일, 8월 13~18일
- Komodo - East Flores 2017년 9월 7~19일
- East Flores - Alor - Forgotten Islands 2017년 9월 21일~10월 3일
- Raja Ampat 2017년 11월 12~24일, 11월 26일~12월 6일

## 수중카메라 하우징 전문업체인 씨캠 주관으로 2017년 수중사진 촬영대회가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ILIKE 에 지정 날짜에 승선, 촬영한 내용으로 심사하게 되는 이번 사진촬영대회에는 씨캠 하우징, 인도네시아 리브어보드, 몰디브 리브어보드 등 푸짐한 부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리브어보드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해 봅니다.

액션스쿠바에서는 8월 12~17일 코모도 일정을 차터, 광복절 연휴를 이용해 사진촬영대회에 참가합니다.

많은 수중사진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www.seacamshootout.com](http://www.seacamshootout.com)

[www.dive-away-liveboards.com/en/ilike](http://www.dive-away-liveboards.com/en/ilike)

[www.dive2world.com](http://www.dive2world.com)

### 액션투어 풀차터 일정

**Komodo** 2017년 8월 13~18일  
수중사진가 작가님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02-3785-3535

[www.dive2world.com](http://www.dive2world.com) | [bluemjl@hotmail.com](mailto:bluemjl@hotmail.com)



## (주)마레스 코리아

### 2017 마레스 디스트리뷰터 미팅!



6월 마지막 주, 마레스는 전 세계 디스트리뷰터 미팅을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라팔로에서 열었다. 먼저 올해에는 세계 다이빙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마레스와 각 분야별 장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마레스의 확고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2015년 디스트리뷰터 미팅에 비하여 라팔로는 확실히 더욱 활기를 띤 모습이었다. 빠른 더위와 함께, 휴가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였고, 특히 리조트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이 커짐에 따라서 유럽 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다이빙 시장의 추세를 보면, 유럽 내 휴가 활동 증가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큰 증가가 있었고 중동이나 리조트 지역이 많은 아시아 지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다이빙은 감소하는 경향이나 다른 워터스포츠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시즌 동안 빼놓을 수 없는 다이빙계의 큰 소식은 역시 PADI를 중국 WANDA GROUP이 매입한 것이었다. 큰 충격에 비하여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며, 다이빙계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레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며 XR과 프리다이빙 분야가 성장을 보였다. 시장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레스는 큰 성장을 하는 한 해였다. 다만, 일부 BCD나 핀 등의 생산이 시장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한 공급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크게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BCD 생산 라인도 2배의 확장을 진행하였고 핀 생산 라인도 확충함에 따라 앞으로는 마레스의 제품을 원하는 дай버들께 더욱 원활히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레스의 XR 장비들은 소위 테크 니컬 다이빙 업계의 후발주자이면서도 동굴, 광산, 아이스다이빙 등의 영역에서 깊은 신뢰를 받으며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생산라인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이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마레스 코리아에서는 조금이라도 한국의 дай버들에게 더욱 많은 제품을 원활히 공급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 한국 시장에 반가운 소식은 20여 년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핀 수영용 클리퍼 핀이 더욱 새로운 디자인과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뉴 클리퍼로 돌아온 것이다. 독특한 EVA 소재의 탄성과 한국인에 잘 맞게 설계된 발집, 다양해진 색상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릴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XR 및 프리다이빙 분야에서도 дай버들을 만족시킬 신제품들이 개발 중에 있다.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호흡기 1단계, 진정 모드 것을 갖춘 호흡기 2단계, 만족을 더할 다이빙 컴퓨터, 다양한 필요를 채워드릴 XR 장비들, 보다 안정적이며 근본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프리다이빙 장비들까지 개발의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 마레스의 제품에 부족함을 느끼는 дай버께서는 앞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레스는 다이빙 장비의 처음부터 끝을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다이빙 장비 업체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품들은 국내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갖는 Team Building을 수영장에서 가벼운 프리다이빙을 맛보는 기회로 가졌다. 이는 프리다이빙이 전 세계의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진행된 프리다이빙 워크샵에는 우대혁 사장이 본사 인원의 설명에 따라 신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경험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레스 코리아는 미팅 기간 동안 매일 밤 늦은 시각까지 프레젠테이션과 본사 인원과의 미팅 및 지역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장, 부사장 등과의 비공식적인 저녁 식사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여기에는 마레스 외에 SSI 본부의 인원과의 미팅도 있었으며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한국에서 최적화된 코스와 교육 운영을 위한 협조도 얻을 수 있었다. 마레스와 SSI는 한국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장비와 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추구하고 있다. дай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Diving Pool Paradise 넓고 깊은 바닷속의 도전과 모험!

### ■ 뉴서울 다이빙 풀 ■

상시개장  
365일 24시

#### 간편한 이동거리와 주차 장비판매장과 구매연계

- 수중테마 중심의 조각품 투하설치
- 놀이중심의 기능성 잠수풀(알까기 외 2종)
- 선명한 수중거울(최초 시도)
- 편리한 부대시설(반경 5m 이내)
- 쾌적한 최고의 실내환경과 시야 (수중기, 연무와 결로현상 제거)
- 수면/수중 편리한 안전바(바텐) 설치



## Mares의 신뢰와 명성

마레스서울 [www.marseseoul.com](http://www.marseseoul.com)

- ▶ 수도권 마레스 전문점(Pro Shop)
- ▶ 마레스 랩(A/S) 지정점
- ▶ 마레스 전 품목 전시장
- ▶ 타사 제품도 취급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61-1 조일프라자 지하3층  
(1호선 독산동 하안동 방향)  
02-892-4943(대표번호) 010-3735-4942  
대표 : 김영중 <http://www.scubapool.com>

# (주)우정사/오션챌린저

## (주)우정사/오션챌린저-SHARKSKIN 국내 공급 계약 체결

(주)우정사/오션챌린저는 지난 5월 24~25일까지 호주의 AQUANAUT 사와 기능성 슈트 브랜드인 SHARKSKIN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영업담당 Mr. Mick Robertson의 주관 하에 영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SHARKSKIN 기능성 슈트는 특수 제작된 원단으로 땀 배출과 방풍성이 뛰어나 수상 스포츠, 열대바다용 슈트 또는 부틸 드라이슈트 내피로 적합하다. (주)우정사/오션챌린저는 2017년 하반기부터 SHARKSKIN 기능성 슈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국의 온/오프라인 딜러들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 2017 (주)우정사/오션챌린저-TABATA JAPAN 영업 미팅

6월 13~15일까지 3일간 (주)우정사/오션챌린저와 TABATA JAPAN 양사의 상반기 영업 미팅이 (주)우정사 서울 본사 및 하남 사업소에서 이루어졌다. 본 미팅에는 (주)우정사 영업 담당자들과 TABATA JAPAN 해외영업담당 Mr. Nishida Tatumasa와 해외구매담당 Mr. Huang Chih-Chien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번 미팅은 웨트슈트 신상품 품평과 신규 마린 아이템 출시 계획 협의, 한일 양국의 시장 현황 공유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 2017 (주)우정사/오션챌린저 하계 워크숍

지난 6월 24~25일까지 2일간 (주)우정사/오션챌린저 하계 워크숍이 강릉 경포다이브리조트에서 신상품 테스트와 신입 직원 오픈워터 다이빙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금번 워크숍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포다이브리조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력 12년의 코스디렉터가 호주, 태국,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합니다”

# 아직도 PADI 강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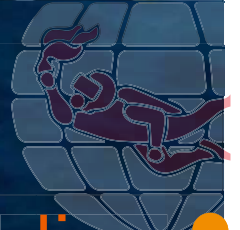
한국과 푸켓에서 활동하는 두명의 코스디렉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강사개발교육

- ✓ IDC(강사개발교육 - 한국)
  - 교육일정(매일반) : 9월 30일~10월 22일 연휴/주말반
  - IE(강사시험) : 10월 28~29일(울진)
- ✓ IDC(강사개발교육 - 푸켓 연합과정)
  - 교육일정(매일반) : 12월 4~14일
  - IE(강사시험) : 12월 16~17일



**김수열**  
 노마다이브 대표  
 2006년 PADI 캘리포니아 CDTC 졸업  
 PADI Tec Deep Trainer외 23개  
 aSSIST 경영대학원 MBA 석사  
  
 서울 마포구 토정로14길 23, #102  
 02.6012.5998 | 010.7114.9292  
 www.nomadive.com | nomadive@gmail.com

**변병흠**  
 푸켓 다이브스페이스 대표  
 2013년 말레이시아 CDTC 졸업  
 PADI Specialty Trainer외 23개  
 Gull, XDeep, Halcyon, Gopro 등 푸켓 총판



노마다이브 **nomadive.**

## ◆ NOMADIVE 소속강사

###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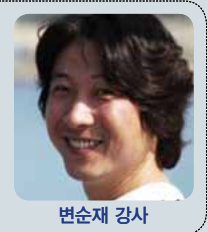
### 경기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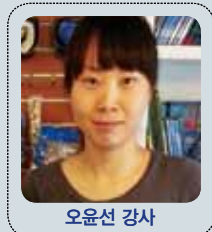
### 경기 광명



### 분당지역



### 대전지역



### 영어교육



### 인천지역/일어교육



### 기업담당



### 프리다이빙



### 어린이교육



### ROTC 특수교육



### 피지



PADI Instructor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YOU



## 디퍼다이브 리조트

### 장태한 PADI CD의 2017년 두 번째 IDC

지난 2017년 7월 16~25일까지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에 위치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장성훈, 천승환, 김도형, 이용희, 권별해, 이지수, 백용재, 장현석, 이윤재, 진유근, 김동호 강사 후보생들과 이상원, 장진우 IDC 스태프 강사가 참여한 장태한 PADI 코스디렉터의 2017년도 두 번째 IDC가 개최되었다. 참가한 11명의 모든 강사 후보생들은 7월 26~27일 디퍼다이브 리조트에서 열린 IE를 통과하여 모두 PADI 강사가 되었다.

다음 정규 IDC는 2017년 11월 3~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고 강사 후보생들을 위한 사전 교육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가능하다. PADI 강사에 관심이 있으신 강사 후보생들과 IDC 스태프 강사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문의처 : 디퍼 다이브 리조트 홈 페이지 [www.deepper.co.kr](http://www.deepper.co.kr)

인터넷 폰 : 070-7667-9641, 070-8221-9713

카카오톡 아이디 : hanbuty/deepperdive



### PADI TEC DIVING 교육

2017년 5월 28일~6월 7일까지 11일 동안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PADI TEC 40 코스가 진행되었다.

7일 동안 TRIM(트림), BALANCE(밸런스), BUOYANCY(부력), POSITION(포지션), PROPULSION(추진력, 킥) 등 TEC 다이빙에 관련된 기초 교육을 받고 4일 동안은 TEC 4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PADI TEC 다이빙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디퍼 다이브 리조트로 문의하길 바란다.



### 2017년 하반기 IDC 일정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의 2017년 하반기 IDC는 11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IDC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 부터 1박 2일 동안 IE를 보게 되는 합리적인 일정이다. 강사 후보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

### 헬시온 신상품 전시회 및 세미나

필리핀 보홀 팡글라오섬의 유일한 5스타 IDC 리조트이며 PADI TEC CENTRE인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지난 6월 24일~25일 필리핀 헬시온 제품의 딜러인 텍 아시아의 데이브씨가 아시아 총판인 그레엄씨가 주최하는 헬시온 신상품 전시회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새로이 출시된 프리머리 라이트와 다양한 색상의 싱글 탱크용 블레더가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디퍼 다이브 수영장을 이용하여 직접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해 보기도 하였다. 저녁에는 텍 아시아의 데이브씨가 필리핀 사마르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굴 탐사 프로젝트(AKEP)에 관해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국적 탐사 дай버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대학생들을 위한 PADI 'GO 다이브 마스터' 교육

'잘 배우는 것'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교육'을 모토로 2017년 6월 26일~7월 15일까지 한양대, 명지대, 서경대,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래의 유능하고 참신한 PADI 강사를 목표로 PADI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2일간의 어드밴스 교육을 시작으로 5일 동안의 레스큐 교육 및 EFR 응급 처치 교육과 11일 동안의 다이브 마스터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두를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모두 PADI 다이브 마스터가 되었다. 이들의 다이브 프로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PADI WOMEN'S DAY 이벤트 실시

디퍼 다이브 리조트에서는 2017년 7월 15일 PADI 우먼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9~15일까지를 우먼스 데이 특별 주간으로 선정하여 특별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7월에 7일간 7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의미의 '777' 이벤트가 그것이다. 이 기간 중에 디퍼 다이브를 이용하시는 여성 다이버들에게는 '777' 이벤트가 제공되었다.

첫 번째 수중에서 더욱 멋진 여성 전용 헤어밴드 증정, 두 번째 새로운 디자인의 디퍼 다이브 신상 로고 북 증정, 세 번째 호흡기 1단계에 부착하는 수중 액세서리 증정, 네 번째 여성 전용 마스크 무료 렌탈 서비스, 다섯 번째 다이빙 후 보홀에서 가장 맛있는 망고 셰이크 증정, 여섯 번째 라이센스만 있다면 무료 나이트룩스 다이빙 서비스, 일곱 번째 7월 15일 당일 무제한 제공되는 삼겹살 바비큐 파티가 그것이다. 내년에도 많은 여성 다이버들의 참여를 바란다.



PADI WOMEN 디퍼다이브와 함께!  
2017.07.09~07.15

Enjoy pure balance

**페가수스 (PEGASUS)**  
 현대전용 BC/무게 23kg/1' 사이즈 기준  
 다이빙의 대장마차 없이 심층에 갈라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백어몽토 양식과  
 높은 부력을 갖춘 페가수스 BC는 모든 조건이 가능하며  
 물론 BC에 장착시킵니다.

**하이리프트 (HIGH LIFT)**  
 기존 전통 양식의 무게 구애를 벗어난  
 모든 사이즈가 보다 높은 부력을 제공합니다.

**백어몽토 (BACKMOUNTED)**  
 모든 부력의 백어몽토 부력장치라는 별칭이 지어지  
 었기에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합 웨이트 시스템 (MRS PLUS)**  
 단순한 웨이트를 통합하여 통합 웨이트 시스템을  
 활용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  
 \* 페가수스 BC는 얼마 내키면으로 특별 저렴한  
 가격입니다. 라스트가 높은 부력에서는 모든  
 사이즈의 웨이트 BC는 수면에서 부력을 잃기가  
 위험합니다. (수면) 감시원과 상의하여 구매  
 시기를 권장합니다.

**mares**  
 diving  
 water

# PADI Asia Pacific

## PADI 강사 개발 업데이트

### 서울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실 및 잠실 수영장에서 Thomas Knedlik(Territory Director)의 주관으로 PADI 강사개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김부경(Manager of Korean Market), 김진관(Regional Manager),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Consultant)이 함께 참가하여 총 4명의 PADI 스태프에 의해 진행되었다. 12명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19명의 IDC 스태프 강사들까지 총 31명의 PADI 강사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으며, 강사 개발과정 중에 새롭게 출시된 PADI 디지털 제품들의 교육법 및 강사 개발과정의 평가와 마케팅에 대해 다뤄졌고 수영장에서 실질적인 강사개발 평가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영장에서 연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오픈워터 다이빙 코스의 스킬 시범으로 PADI 강사시험을 위한 강사 개발과정에서의 평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PADI 강사님들과 원활한 업데이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잠실 수영장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제주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제주 서귀포 더 블루 호텔에서 Thomas Knedlik(Territory Director)의 주관으로 PADI 강사개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김부경(Manager of Korean Market), 김진관(Regional Manager), 영희 심슨(Regional Training Consultant)이 함께 참가하여 총 4명의 PADI 스태프에 의해 진행되었다. 7명의 PADI 코스디렉터들을 비롯하여 11명의 IDC 스태프 강사들까지 총 18명의 PADI 강사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참가하였으며, 강사 개발과정 중에 새롭게 출시된 PADI 디지털 제품들의 교육법 및 강사 개발과정의 평가와 마케팅에 대해 다뤄졌고 수영장에서 실질적인 강사개발 평가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영장에서 연습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오픈워터 다이빙 코스의 스킬 시범으로 PADI 강사시험을 위한 강사 개발과정에서의 평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업데이트에 참가한 모든 PADI 강사님들과 원활한 업데이트 진행에 도움을 주신 제주 더 블루 호텔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PADI 강사 시험-제주 2017년 6월 24(토)~25일(일)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PADI 강사 시험을 '제주 더 블루 호텔'과 '서귀포 다이브 센터'에서 6월 24~25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강사 시험에는 조광현, 박동균, 정우혁, 한상현, 최기호, 이정연, 임종식, 유민욱, 김건오, 박광민, 채부건, 김혜영, 정희영, 장사무엘, 조규철, 김봉한, 최승주, 임상호, 문성일, 현진석, 홍장표, 한상욱 총 22명의 강사 후보생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강사 시험관으로는 영희 심슨, 김진관 씨가 IE를 진행하였다.

PADI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한국 다이빙 업계의 발전과 안전 다이버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PADI 강사님들께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PADI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로페셔널하고 유능한 강사 후보생들을 배출한 정희승, 김수열, 임호섭, 주호민, 노명호, 이상호, 정혜영, 김진호 PADI 코스 디렉터들과 이번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제주 더 블루 호텔'과 '서귀포 다이브 센터'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 공지사항(Notice)

### 강사 시험(IE) 안내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27일(일)

장소 : 추후 공지

###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안내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장소 : 추후 공지

### 코스 디렉터 트레이닝 코스(CDTC) 안내

▶ Punta Cana, 도미니카 공화국(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19일(수)

▶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Kota Kinabalu, Malaysia)

일시 : 2017년 9월 5일(화)~13일(수)

### 제 3회 PADI 우먼스 다이브 데이

일시 : 2017년 7월 15일(토)

문의: PADI 다이브 센터 및 리조트



##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

에머전시 퍼스트 리스폰스(Emergency First Response) 강사 트레이너 코스가 2017년 6월 29일(목) 서울 아이눈 스쿠버(대표 이달우)에서 영희 심슨 (Regional Training Consultan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번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에는 박승호, 이태영, 김한진, 이미랑, 박성훈, 박형철, 이영한 총 7명의 강사 트레이너 후보생이 참가하였다. 모든 후보생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EFR 트레이너 코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안전한 응급 처치 강습을 위해 참고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FR 강사 트레이너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 1) EFR 강사(케어포 칠드런 강사 자격 포함)이며
- 2) 25명의 EFR 코스 완료 자격증을 발급했음  
(또는 5회의 EFR 코스를 가르쳤음)
- 3) 지난 12개월 동안 증명된 품질 보장 문제가 없음

다음 EFR 강사 트레이너 코스는 2017년 8월 29일(화) 코스가 예정되어 있다. 참가에 관한 문의는 영희 심슨(Younghee.simpson@padi.com.au)으로 하면 된다.



## PADI 다이브 센터 & 리조트 안내

### 신규 EFR 센터

▶ 다이브 홀릭(S-26126)

대표 : 조영우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법환상로 23번길 5 (법환동)

전화 : 010-7795-6348

▶ 민트 오션(S-26139)

대표 : 이동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테라타워1 B동 819호

전화 : 010-9395-3798

### 신규 다이브 리조트

▶ 넵툰 다이브 리조트 - 남해(S-26140)

대표 : 이천중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32-8

전화 : 010-4524-0300



# SSI KOREA

## IT, DCSI 업데이트 세미나

SSI 진신 본부장의 주관으로 2017년 5월 11~12일 2일간 SSI 본부 세미나실에서 IT, DCSI 업데이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업데이트된 학과/수중 강습과 평가 양식에 관한 주제를 시작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다루었다.

- 학과/수중 강습 및 평가 양식
- 수중 스킬 변경
- 2017년 훈련 기준 리뷰
- 프로페셔널 등록 서류 확인

세미나에는 박성웅 IT, 천현수 IT, 박남규 DCSI, 고승일 DCSI, 조취섭 IT, 김원국 IT, 윤대건 IT, 전석철 IT, 서병주 IT 총 9명의 IT, DCSI가 참석하였고 위의 세미나 주제 외에도 SSI 디지털 어플을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IT, DCSI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5월 강사 정기평가(IE)

SSI 본부는 2017년 5월 13~14일 2일간 SSI KOREA 본부 세미나실과 광명 뉴서울잠수풀에서 5월 정기 강사평가를 실시하였다.

김태훈 IC가 주 평가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김선혜, 홍조(진스타이브), 정기섭(SSI 아카데미, 고대훈) 3명의 후보생이 참가하였고, 2일간의 평가 후 총 5명의 명예로운 SSI 신규 강사가 배출되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마친 신규 강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뉴서울잠수풀(김영중 IT)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SSI 제주도 딜러 모임

SSI 진신 본부장은 2017년 5월 제주도에서 SSI 소속 딜러 모임을 가졌다. 디퍼프리다이브(김봉재 강사)에 모여 제주도 전역 SSI 소속 딜러들을 만나 친목도모를 다지며, 앞으로의 SSI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딜러들에게는 본부에서 준비한 SSI 머그컵, 플래그, 스티커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 6월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SSI 진신 본부장의 주관으로 2017년 6월 17일 부산해양스포츠교실에서 SSI 강사 업데이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강사 업데이트는 SSI KOREA 본부와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부산 지역의 많은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참석해 주었다. 업데이트 주제는 SSI KOREA의 현재와 미래, 강사 IMP 회원 안내(전문인배상책 임보험), 스페셜티 강사 인증, SSI 디지털 어플 사용소개가 다루어졌으며 특히 이날 강사 정기 평가에 의해 배출된 신규 강사들도 참석하여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더불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SSI 다이브 프로페셔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후 정기적인 강사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SSI 공식 페이스북 또는 SSI KOREA 본부로 문의를 바란다.

## 6월 강사 정기 평가 (IE)

SSI 본부는 2017년 6월 16~17일 2일간 부산 DIT 잠수풀장과 태종대 해양스포츠교실에서 6월 강사평가를 실시하였다.

김태훈 IC가 주 평가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정두용(동서대학교, 소훈 IC), 김준우, 남영주, 배현준, 장지선(DIT 잠수풀장, 윤대건IC) 5명의 후보생이 참가하였고, 2일간의 평가 후 총 5명의 명예로운 SSI 신규 강사가 배출되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마친 신규 강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다이브 프로페셔널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이번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DIT 잠수풀장, 해양스포츠교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1st rEvo XR ITC,IE

SSI 본부는 2017년 6월 6~15일 6일간 세부 오슬롭 진스다이브에서 1st rEvo XR ITC와 IE를 실시하였다.

Andreas Kron(CCR Hypoxic Trimix Instructor Trainer)과 Michael Keimes(CCR Technical Extended Range Instructor)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섭(더 크라켄 스킨스쿠버), 우영수(옥토퍼스) 후보생을 교육 및 평가하였고 총 1명의 rEvo XR 보조강사(Assistant Instructor)가 배출되었다.

교육과 평가를 주관한 Andreas Kron과 Michael Keimes, 그리고 열심히 과정에 임해준 후보생 분들에게 수고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번 교육과 평가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와 도움을 준 진스다이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6월 리액트 라이트 강사 세미나

SSI 본부는 2017년 6월 18일 부산 해양스포츠킴에서 리액트 라이트 강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리액트 라이트 강사 세미나는 실제 다이빙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시,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는 방법인 리액트 라이트 프로그램을 강사로서 교육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세미나이다. 윤대건 IE에 의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고영관, 김준우, 남영주, 배현준, 장지선, 정선미, 최정희 총 7명의 다이브 프로페셔널이 참가하였으며, 모두 훌륭한 성적으로 세미나를 이수하였다. 앞으로 리액트 라이트 강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교육문의 : SSI KOREA 본부)

## 김영기 IT XR Professional 최고 레벨 인증

김영기 IT (XR KOREA CENTER) 가 2017년 5월 SSI 교육과정 중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의 최고 등급인 XR Hypoxic Trimix를 인증받았다.

XR Hypoxic Trimix 과정은 깊은 수심에서 산소의 부분압을 조절하기 위해 산소농도가 줄어든 트라이믹스 블렌드로 다이빙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배우는 것으로 감압 및 트레블 가스를 선택하는 것과 3개 이상의 감압 실린더를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김영기 IT의 XR Hypoxic Trimix 인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XR 교육 문의-김영기 IT(010-2698-9948)

## SSI 신제품 안내

### ▶ 큐카드(렛노트)

SSI 본사는 선진화된 전체 교육스킬을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는 큐카드(렛노트)를 업데이트하여 출시하였다. 기존 큐카드와는 달리 최신의 업데이트 스킵 이행 기준

에 맞춰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디자인과 재질, 사이즈, 필기구 등을 보완하여 사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 ▶ 롤백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욱 세련된 SSI 롤백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2문구동의 보완된

바퀴를 사용한 SSI 롤백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튼튼한 내구성을 지녀 다이빙 여행 시 장비를 수납하여 이동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 ▶ SSI 인쇄물 교재

SSI 교육용 인쇄물 교재가 전면 컬러, 최신의 업데이트 내용으로 출시되었다.

- OPEN WATER DIVER
- ADVANCED ADVENTURER
- SCIENCE OF DIVING • PERFECT BUOYANCY
- REACT RIGHT • WRECK DIVING



## 신규 다이브 센터 안내

### ▶ 아라다이브

대표 : 이훈선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49  
연락처 : 010-8980-4444

### ▶ 그린레포츠

대표 : 김정명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 4길 5(영랑동)  
연락처 : 010-3737-0109

### ▶ 프리다이브 오르카

대표 : 부유한  
주소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80-3 3층  
연락처 : 010-6700-5674

### ▶ 제로프리다이브

대표 : 안형준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 6-17 1층  
제로프리다이브  
연락처 : 010-5001-0620

### ▶ 넵튠 다이빙샵

대표 : 오승룡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동광로 41  
연락처 : 010-3012-4512

# SDI/TDI/ERDI KOREA

## 다이빙 엑스포(KDEX) 참가

SDI/TDI/ERDI KOREA에서는 5월 25일(목)~28일(일)까지 한국다이빙엑스포(KDEX)에 참가하였다.

SDI/TDI/ERDI는 그 동안 한국 다이빙엑스포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 글화된 풍부한 교재 및 시청각 교안 등을 선보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는 에코다이빙(임영훈 트레이너)과 일산의 블루오션 다이빙&트래블(황재필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하였다.



## 강사 업데이트 세미나

SDI/TDI/ERDI에서는 이번 전시회 기간인 5월 27일(토) 오후 2시에 다이빙 엑스포 행사장인 KINTEX 세미나실에서 소속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본부 및 국제본부의 새롭게 변화된 정책 및 상품, 프로모션, 앞으로 변화될 것들에 대해 보고되었으며 연안법 및 수중레저법 등으로 인한 한국 다이빙 환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강사 트레이너 과정

SDI/TDI/ERDI에서는 6월 1~8일까지 강사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 김광오 강사(두마게티 알다이브)
- 김성문 강사(경북 영덕)
- 이재학 강사(K Divers)

이상 3분의 강사가 참가하였고 함께 진행한 ITE 과정에 아래의 5명의 트레이너가 참가하였다.

- 김동준 트레이너(모알보알 클럽 하리)
- 박정훈 트레이너(서울 BM스쿠버)
- 이주언 트레이너(경남 고성 스쿠버)
- 이성오 트레이너(대구 데코스탑)
- 양승훈 트레이너(서울 아쿠아텍)

한국 본부가 주관하여 후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ITW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사 트레이너 대상으로 국내/외 지역의 서비스 센터 개설과 직접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함께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북경 DRT Show

SDI/TDI/ERDI에서는 7월 6~8일까지 3일간 북경에서 개최되는 DRT



Show(Dive Resort and Travel)에 참가하였다.

## 경기소방 응급구난다이빙(ERDI) 과정

2017년 6월 12~23일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응급구난다이빙(ERDI) –ERD 1, ERD 2, ERD Tender– 과정을 경기도 용인과 양평 등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 재난본부와 함께 산하의 일선 서의 30명의 소방관들이 참가하였으며 본부의 성재원 사무국장이 주관하여 경기 소방의 신인철, 이치원, 이수학 ERDI 강사와 아쿠아텍의 양승훈, 윤희준 트레이너와 본부의 박장혁 강사가 스태프로 참가하였다.

ERDI(Emergency Response Diving International)는 세계 유일의 국제적인 조직의 공공 안전(Public Safety) 교육기관으로 ERDI 프로그램은 공공안전다이빙 시 구조자의 안전을 중시하여 2차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절차의 운용과 적용을 중시한다.



## 중국 우한(Wuhan) 강사 트레이너 과정

6월 26일~7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우한에서 강사 트레이너 과정과 강사 트레이너 평가관(ITE)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에는 총 7명의 트레이너와 평가관 후보자들이 참가하였고 향후 발전하는 중국 시장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

## 11기 SDI/TDI 장학생 강사 과정

한국 다이빙 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 강사 과정을 6월 29일(목)~7월 7일(금)까지 7박 8일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모인 22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본부의 성재원 사무국장이 주관하여 최성기 트레이너(Atty Dive), 권성훈 트레이너(사이판 DPIS), 함민재 트레이너(인천 해상수중), 양승훈 트레이너(아쿠아텍)와 본부의 박장혁 강사가 스태프로 참가하였다.

이번 11년째를 맞는 장학생 강사 과정을 통해 SDI는 100명이 넘는 장학생 강사를 배출하였으며 그들은 현재 다이빙 산업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으로 국내 다이빙 동아리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Enjoy Pure Ease

### 파프로 + (AVANTI QUATTRO +)

다이빙 전문가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오리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이빙 오리발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추진력에 더욱 좋아진 반응력이 최상의 성능을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다이빙 컨디션에서도 다른 오리발보다 앞서 나갑니다. 특성화된 새로운 번지스트랩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 번지스트랩 장착에 매력적인 외관
- 새로운 재질인 하이플렉스 블레이드의 효율성을 최적화
- 4개의 물골로 4배의 추진력을 발휘
- 안정된 트림 탭
- 스테빌라이저로 안정성을 높이고 발목 뒤틀림 현상을 억제

## 예정 사항

### 장애인 스쿠버다이빙(Scubility) 강사 과정

SDI/TDI/ERDI KOREA에서는 8월 18~19일까지 울산 문수수영장에서 장애인 스쿠버다이빙(Scubility) 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쿠빌리티 과정은 장애인들을 위한 스쿠버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으로 SDI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 스쿠빌리티 스노클 다이버
- 스쿠빌리티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서피스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오픈워터 다이버
- 스쿠빌리티 어드밴스드 다이버 개발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다이브 버디 프로그램
- 스쿠빌리티 강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장애인들이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끄는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강사들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쿠버 강습과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

으로도 SDI/TDI/ERDI는 다양하고 선진적인 다이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쿠빌리티 강사 과정의 참가를 원하는 강사들은 본부로 문의하기 바란다.

본부 : 070-8806-6273



# SCUBA DIVING

## 이창호의 스쿠버다이빙교실

- \* 자유로운 시간에 1:1 맞춤형 스쿠버다이빙 교육 가능
- \* 체계적이면서 안전하게 다이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지도
- \* 세심하면서 유연한 명품강사의 스페셜한 명품교육
- \* 해외에서도 다이빙교육 가능
- \* 수시로 회원들과 스페셜한 해외 다이빙 여행 가능

**이창호 대표**

- 스쿠버다이빙 트레이너
- 스쿠버다이빙 강사
- 스페셜티 강사 트레이너
- EFR(응급처치) 자격보유(심폐소생술, 인명구조)
- 산업잠수 기술사

이창호의 스쿠버 교실 검색

### 010-9412-9433 / 070-7715-9433

다이빙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북경 ADEX Show

2017년 8월 31일(목)~9월 3일(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ADEX 쇼에 참가할 예정이다. ADEX는 Asia Diving Expo의 약자로 매년 북경 및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의 다이빙 전시회이다.

SDI/TDI/ERDI는 작년 3월 중국 신진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이후 꾸준히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며 성장하고 있다. SDI/TDI/ERDI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 지역의 다이빙 전시



회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 지역의 다이빙 사업 및 다이빙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부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





푸에르토 갈레라 + 베르데섬

# 파라다이스 다이브 리조트

단 한분의 다이버라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63 (0)928 719 1730

인터넷전화 070 7563 1730

www.paradise-dive.net / diver\_ricky@hotmail.net  
Paradise Dive, Sabang Beach,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Philippines

- 최신의 나이트룩스 다이빙 시스템
- 체계적인 다이빙 교육 • TDI/SDI 강사교육
- 무선 인터넷 사용 • 모든 객실이 비치뷰
- 파라다이스처럼 환상적인 다이빙 안내
- 최신의 컴프레서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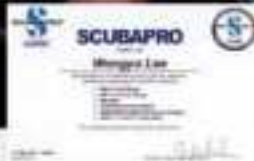
## 전 브랜드 레귤레이터 수리가 가능한 다이빙 전문점 리콴스쿠버

아텍스 | 아쿠아링 | 다이브웨이즈 | 마레스 | 스쿠버프로 전문가 과정 수료



국내 최대 공구 보유  
1~2단계 정밀 조절 장비 보유

IANTD 오픈워터 다이버-어드밴스드  
나이트룩스 강사 교육



LICOOM SCUBA

리콴스쿠버 대표 | 이원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B1(성내동) | Tel. 070. 7776. 5288 | www.iantd.co.kr/leewonyoung

# BSAC KOREA

## 강사 해양교육 및 평가 과정 완료

지난 6월 11~20일까지 필리핀의 아우라 다이브 센터에서 강사 훈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다. 총 4명(송영수, 안상영, 류재문, 진경재)의 강사후보생 교육과 평가가 마무리되었으며, 스태프로는 최중인, 최우집 트레이너의 참가와 함께 박성진 강사가 트레이너 인증을 위하여 참가하였다.



## 제 10회 BSAC 수중사진공모전 공고

BSAC Korea는 매년 дай버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째인 본 공모전은 필름이나 디지털, 광각, 접사 등의 촬영 분야와 소재에 제한이 없으며, 총 1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BSAC에서 매년 제작하고 있는 BSAC 기념달력 제작이나 BSAC 홍보물 제작에 이용될 것이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부상 등이 지급된다.

- 마감-2017년 11월 10일까지
- 대상-BSAC дай버 또는 강사가 직접 촬영한 광각, 접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중사진
- 접수 파일 온라인접수: 웹하드 업로드(www.webhard.co.kr / ID 및 비밀번호는 본부 문의)
- 출품수-접사 : 2작품, 광각 : 2작품



## 대학생 강사과정 완료

지난 7월 1~10일까지 대학생 강사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학생 강사 교육을 위한 IFC(강사기본과정)는 충남 태안의 한서해양스포츠훈련원에서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상근 평가관과 최우집, 장동국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9명의 강사후보생들이 참가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해양훈련과 해양평가는 제주도의 코바 다이빙 스쿨(BSAC 강사교육센터, 김윤석), 제주국제대학교(BSAC 강사교육센터, 황철상)에서 진행되었다. 해양과정의 스태프로는 안진환(제주 걸라 스쿠버 대표) 강사 등이 참가하여 도움을 주었다.



## 2017 BSAC 컨퍼런스 참관인 모집

오는 10월 21~22일에 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BSAC 컨퍼런스에 참가할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총회와 전시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이빙 의학 전문가인 Dr. Peter Wilmshurst 등이 초대되어 'immersion pulmonary oedema(IPO, 폐부종)'에 대한 주제로 다이빙 관련 의학 연구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대되어 다이빙의 최신 이론과 다이빙 트렌드를 알려줄 예정이다. 컨퍼런스를 마친 이후에는 영국 본부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 10월 주말반 강사과정 개최 안내

오는 10월 14일(토)부터 강사훈련을 위한 주말반 과정을 개최한다.

본 과정은 주말을 이용한 3주간의 IFC(강사기본과정)를 서울 스포츠센터(최우집 트레이너)에서 진행하며, OWIC(해양과정) 및 IT(평가)과정은 10월 31일부터 5일간 필리핀에서 진행한다.



## 10월 강사훈련 주말반 과정

- 개최일-2017년 10월 14일(토)부터 주말반(5일간)
- 참가자격-BSAC 다이브 리더(또는 SALT 규정에 의거한 타단체 마스터급 자격 소지자)
- 장소-BSAC Korea 본부
- 문의-최우집 트레이너 010-7296-7522

## 강사/센터 재등록 공고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BSAC Korea 센터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2017~2018 강사 및 센터 등록 갱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간-2017년 8월 1~31일까지
- 장소-BSAC Korea 본부
- 비용-센터등록신청서 및 강사등록신청서 상의 해당사항 확인 요망
- 제출-Fax: 031-711-9793 | e-mail: bsackoreahq@naver.com



## The Diver's Den 5 Star PADI Dive Center – Pulau Redang

대부분 다이빙사이트가  
돌산호나 연산호의 군락으로 덮여 있고,  
물고기 떼들이 산호 군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르당 섬에는 하나의 비치에 하나의 리조트가  
위치하여 아주 조용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리조트의 숙박과 다이빙 비용이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

Coral Redang Island Resort의 주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수중사진가로 활동하며, 만약 수중사진가들이  
방문하면 수중사진을 위한 특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리조트는 3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영업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다이빙 여행지

**Redang Islands** in Malaysia



예약문의 : (주)액션투어 T. 02-3785-3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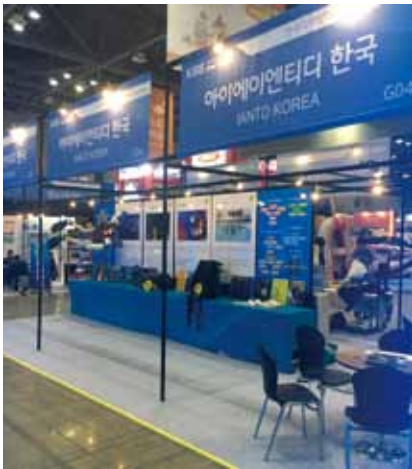
www.dive2world.com | bluemj@hotmail.com



# IANTD KOREA

## 2017 한국 다이빙 엑스포 참가

5월 25~28일까지 경기국제보트쇼와 한국 다이빙 엑스포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IANTD KOREA도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이버들이 단순히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필요하다고 느낀 상품들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선 전사업체들이 장비와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소비자 쇼로 진행하였다. IANTD KOREA에서는 총 6개의 부스를 설치하였고, 3개의 부스는 IANTD 교육 및 장비 소개를 하였고 다른 한쪽 3개의 부스에서는 I 스쿠버 이춘근 트레이너가 소비자에게 스쿠버 장비 및 액



세서리 판매를 하였다. 26일(금요일)에는 홍장화 본부장님 주관으로 CPR/응급처치/AED 강사 트레이너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김창제, 김창환, 정영환, 황영석, 황영민 강사 트레이너가 참석하였다. 많은 강사 트레이너 및 강사가 부스에 방문하여 주었다.

## 강사 트레이너 교육

6월 26~30일까지 제주 수중산책(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강사 트레이너 강습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김홍래(양양 그랑 블루 리조트), 이춘근(I 스쿠버), 이홍석(스쿠버패밀리), 김강태(게릴라 하우스)가 참석하였으며, 진행은 홍장화 본부장과 강신영 박사님(한국해양대학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김창환 트레이너가 스태프로 참가하였다. 새롭게 활동하게 된 강사 트레이너들의 발전을 기원한다.



## 여름캠프 공지

IANTD KOREA 여름캠프를 제주 수중산책(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에서 7월 29일(토)~8월 6일(일)까지 실시합니다. IANTD 멤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레저 다이빙 이외에도 더블 실린더 다이빙,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수중 스쿠터, 난파선 다이빙, 탐사 다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해볼 수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 오픈워터 다이버 교재 출시

IANTD KOREA에서는 새로운 오픈워터 다이버 교재가 출시되어 모든 활동성 강사들에게 오픈워터 다이버 교재와 로그북을 지급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증을 받는 다이버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글 번역판을 한국해양대학교 강신영 교수님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책의 내용은 다이빙 여정을 시작하며, 단원1 근대 스쿠버 다이빙의 기원, 단원2 다이빙 장비, 단원3 다이빙 환경의 물리화학적 측면, 단원4 생리학, 단원5 직접적인 압력 손상, 단원6 부분압 및 기체 용해도 증가로 인한 생리화학적 문제들 단원7 다이빙, 부록1 수신호 부록2 공기 다이브 테이블(앞면, 뒷면)로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오픈워터 파워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 레저 로그북 출시 공지

### 로그북 속 내용

다이버 개인 정보, 교육 기록, 장비 점검표, NOAA 산소부분압&노출 제한 시간표, 50회 로그 기록, 다이버 버디 기록, 단위 변환 공식 참고자료, 심폐소생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가격은 5,000원으로 판매한다.

### 구매 신청 및 문의

전화 : 02-486-2792

팩스 : 02-486-2792

이메일 : iantd@iantd.kr



## 강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지금 현재 연안법과 관련하여 강사 배상책임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되고 있으며 해경에서 단속을 시작하였다. 연안법에서 규정한 의무보험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보험은 дай버 1인당 1일 1만 2천 원을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큰 보험료이다.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출시된 보험은 연안법에서 규정한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춘 유일한 상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1달에 한 번 가입을 받고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강사는 필히 가입하고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대략적 소개

강사배상책임 보험료는 1인당 15만 원

-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1억 5천이며, 증권당 총 보상한도액은 5억

### 면책조항

- 짝 잠수(잠수계획, 잠수시간, 잠수원료를 짝과 함께하는 잠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레저수중활동이 아닌 경우(상업적 또는 군사적 잠수를 포함. 상업적 다이빙이란 업무 목적(구조활동 포함의 다이빙), 단 레저 다이빙을 감독하는 강사로서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수심 40m 초과한 잠수의 경우
  - 음주 후 10시간 이내의 잠수인 경우
  - 현재 교육 중인 수강자가 강사의 지시 없이 잠수한 경우
  - 불법적인 잠수의 경우
  - 재압 치료 후 72시간 이내의 항공기 탑승 또는 6주 이내에 잠수를 한 경우

## 울산 노틸러스 보홀 정기 투어

울산 노틸러스 팀은 지난 6월 1~9일까지 필리핀 보홀 딥 블루 다이브 리조트에서 정기 투어 실시하였다. 이번 투어는 노틸러스 팀 초대회장 정승규 강사님의 회갑연을 겸한 교육 다이빙을 실시하였고, 황



영석 강사 트레이너의 주관으로 김동원 강사가 스페셜티 강사를 인증을 받았고, 최방웅, 우호범, 전승재, 성상용 다이버는 블랜더 과정을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투어에는 정승규 회장님의 회갑연을 열 수 있어 노틸러스 팀 회원들은 의미 있는 투어가 되었다고 한다. 노틸러스 팀의 발전과 안전 다이빙을 기원한다.

## OK 다이브 리조트 소식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OK 다이브 리조트(오현석 대표)에서는 7월 8월 올인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틀간 무제한 다이빙, 가이드서비스, 도시락제공, 숙박제공을 3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과 평일 모두 이벤트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지해변길 46
- 전화 : 070-4232-1005
- 홈페이지 : www.okdiveresort.com
- 카톡 ID : morijiang

Enjoy pure performance

**아비스22 (ABYSS 22)**  
모든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뢰성의 아비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문가용 (FOR DEMANDING DIVER)**  
어떠한 약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 답습로 다이빙 세계기록 : 313m  
\* 최다 다이버 동시 호흡 세계기록 : MR22 1 단계로 101명의 다이버가 40분간 동시 호흡. 하나의 MR22 1단계로 25명의 다이버가 40미터에서 10분간 동시 호흡.

**100% 금속 재질 공법 (ALL METAL TECHNOLOGY)**  
금속 재질은 내동결성과 구강 건조중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탁월한 내구성과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mares**  
just add water



# PSAI KOREA

## PSAI-KOREA 2017 개해제

PSAI-KOREA는 2017년 4월 23일 2017 개해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해제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PSAI-KOREA 골드 퍼실리티인 천학정리조트(대표 한명동)에서 50여 명의 дай빙들과 진행되었다. 2017년 한 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지원하는 제를 마치고 모든 다이빙들은 각 팀별로 팀워크를 다지는 다이빙을 실시하였다. PSAI-KOREA는 고성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개해제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천학정 리조트 관계자 및 스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모든 다이빙들께서 2017년 한 해 안전하고 즐겁게 다이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PSAI Trimix 레벨 3 코스

PSAI-KOREA는 3월 16~24일까지 필리핀 보홀 GO2DIVE 리조트에서 TRIMIX Lv.3, Advanced Gas blending 과정을 실시하였다. PSAI Trimix 레벨 3 дай빙 과정에 유제근, 조규혁, 전수배 님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에 Trimix 레벨 3, Advanced Gas Blending Technician 다이빙 과정에 참석한 모든 분이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이 끝난 후 모든 다이빙들이 Trimix 112m 다이빙에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다이빙을 마쳤다.

## Advanced Wreck 과정

PSAI-KOREA는 5월 12~18일까지 필리핀 수빅 Board Walk 리조트에서 PSAI Advanced Wreck-Penetration 과정을 실시하였다. PSAI Advanced Wreck-Penetration 다이빙 과정에 김진근, 김상범, 송은영, 염보라 다이빙이 참가하였고, 강사 과정에 김용선, 김정환, 김재경, 백광현, 안찬호 강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교육에 PSAI Advanced Wreck-Penetration 과정에 참석한 모든 분이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모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한 결과 어떠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 인천 119 특수구조단 공공안전잠수 교육

PSAI Korea에서는 6월 19~30일까지 10일간 인천 아라뱃길에서 인천119 특수구조단의 공공안전잠수(Public Safety Div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PSAI의 공공안전잠수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PSAI의 공공안전잠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테크니컬 잠수(Trimix) 전문과정 교육

PSAI Korea에서는 7월 1~9일까지 7일간 강원도 양양 '남애스쿠버리조트(대표 : 김정환)'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테크니컬 잠수(Trimix) 전문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총 11명의 대원이 참여하여 트라이믹스 Lv.1 (60m) 다이빙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 PSAI-KOREA 신규 강사 및 트레이너

### 신규 Instructor Trainer

이재호 IT-1680-성낙훈 ITE  
이호림 IT-1617-성낙훈 ITE

곽영석 IT-1724-성낙훈 ITE  
김중이 IT-1598-성낙훈 ITE

### 신규 강사

이성복 I-1935 IQC-김재경 IT  
최문경 I-1938 IQC-김동윤 IT  
민경익 I-1951 IQC-이신학 IT  
김성윤 I-1953 IQC-이신학 IT  
한명동 I-1939 Crossover-성낙훈 ITE  
노원기 I-1960 Crossover-손완식 ITE  
박기석 I-1962 Crossover-손완식 ITE  
최환규 I-1964 Crossover-손완식 ITE  
신승호 I-1966 Crossover-손완식 ITE  
오은식 I-1968 Crossover-손완식 ITE  
김민중 I-1970 Crossover-손완식 ITE  
김재현 I-1972 Crossover-손완식 ITE  
강덕수 I-1974 Crossover-손완식 ITE  
최성학 I-1976 Crossover-손완식 ITE  
이영재 I-1978 Crossover-손완식 ITE  
김희수 I-1980 Crossover-손완식 ITE  
이승한 I-1982 Crossover-손완식 ITE

송태영 I-1936 IQC-김재경 IT  
박병래 I-1950 IQC-이호림 IT  
이동준 I-1952 IQC-성낙훈 ITE  
홍종범 DM-1937-김동윤 IT  
윤제웅 I-1959 Crossover-손완식 ITE  
박성용 I-1961 Crossover-손완식 ITE  
김대호 I-1963 Crossover-손완식 ITE  
조준현 I-1965 Crossover-손완식 ITE  
박현욱 I-1967 Crossover-손완식 ITE  
이준혁 I-1969 Crossover-손완식 ITE  
김종진 I-1971 Crossover-손완식 ITE  
김대석 I-1973 Crossover-손완식 ITE  
황인태 I-1975 Crossover-손완식 ITE  
천희재 I-1977 Crossover-손완식 ITE  
이준우 I-1979 Crossover-손완식 ITE  
정환진 I-1981 Crossover-손완식 ITE  
박주백 I-1983 Crossover-손완식 ITE

# 반창고 프로젝트

“교육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를 지도한 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다이빙 투어를 같이 갈 사람이 없다.”  
 “다이빙 교육, 투어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 연락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단체불문 PADI 재교육으로 새로운 자격증으로 교체가 가능
- 친절하고 활동적인 PADI 강사를 새로 만나세요.
- 전통있는 PADI 다이브센터와 다이빙 전문여행사 액션투어가 함께합니다.
- PADI 자격증이면 언제든 조회가능,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 2016년 자격증 재발급(학생 AUD\$55, 강사 32AUD\$) 또는 새롭게 취득할 경우 50주년 한정판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교육으로 상처가 치료된 분들은

「격월간 스쿠바다이버」지와 제휴된 해외 다이브 리조트로 팸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대상** 초급다이버 교육을 마친 다이버, 교육이 중단된 다이버

**모집기간** 매월 수시모집 (각 센터 월 최대 10명)

**신청방법** 각 다이브센터 개별 문의

### 일정

교육일	내용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7PM~9PM	오리엔테이션 및 스쿠바다이빙 기초 이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7PM~9PM	딤다이빙 스페셜티 이론수업

### 지역별 담당강사

인천	스쿠바다이빙클럽 (010-5256-3088) www.scubamall.kr	강정훈 CD
광주	CC다이브 (010-3648-1886) www.ccdivers.com	위영원 CD
대전	넵툰다이브 (010-5408-4837) www.allidive.co.kr	박금옥 CD
부산	씨월드 (010-4846-5470) www.seaworld-busan.co.kr	임호섭 CD
수원	고프로다이브 (010-8653-3060) www.goprodiver.co.kr	홍찬정 CD
용인	고다이브 (010-6317-5678) www.godiving.co.kr	임용우 CD
경남	아쿠아렉스 (010-5230-6770) www.aquarex.kr	송준윤 CD
제주	아쿠아스쿠버 (010-8618-3923) www.aquascuba.co.kr	송태민 CD
강원	남애스쿠바리조트(010-6634-4475)www.namaescuba.com	김정미 CD
서울	노마다이브 (010-7114-9292) www.nomadive.com	김수열 CD

**혜택 1** 월 1회 이론 강습 (레벨별 맞춤수업)

**혜택 2** 월 1회 수영장 스킬 테크닉 강습

**혜택 3** 반창고 프로젝트 참가 수수료 후 새로운 PADI 자격증으로 교체

**혜택 4** 「스쿠바다이버」지 정기구독자에게 팸투어 특별혜택

# 캠투어 모집

# FIJI-Tonga

피지-통가 관광청의 도움으로  
타이거 샤크와 흑등고래를 모두 만 날 수 있는 기회  
일생에 딱 한번 '인생 shot'에 도전한다.



- 투어** 2017년 8월 10일, 19:25 출발, 8월 21일, 17:35 인천도착(대한항공 이용)  
5성급 펠사우스서퍼픽 4박 + 통가 6박 + 난디 머큐어 2박
- 포함사항** 피지-통가 항공, 전일정 숙박, 식사, 차량  
피지 샤크다이빙/코랄다이빙 5회, 통가 2일간 보트다이빙 4회  
2일간 보트 고래 스노클링
- 불포함사항** 인천-피지 국제선 항공료
- 비용** 360만 원(2인 1실 기준, 환율에 따라 증감)
- 항공권 문의** 액션스쿠바 02-3785-3535
- 투어문의** 노마다이브 02-6012-5998
- 후원** 스쿠바다이버 02-778-4981

**일정**

1일차	인천 출발
2일차	난디 도착/피지 남부 이동 코랄 다이브 1회
3일차	샤크다이빙 2회
4일차	코랄다이빙 2회
5일차	피지-통가 이동
6~7일차	고래와칭투어 오전중 출발 5시간 소요
8~9일차	리프다이빙 4회
10일차	통가 시내 자유관광 후 피지 이동
11일차	피지-유명 Cloud 9 자유시간 즐기기
12일차	피지-인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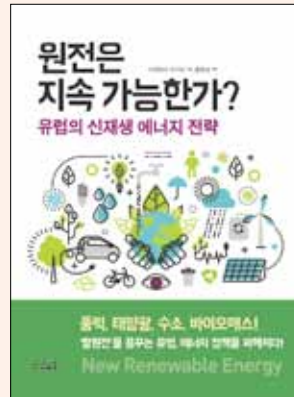




방승호 저 \_ISBN 979-11-87510-02-4

‘게임중독’이라는 굴곡된 시  
선, 부정적 에너지를 바꾸자.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새벽까지 게임만 하는 아이, 게임을 하느  
라 가족과의 대화가 없어진 아이, 과연 게  
임 때문일까?  
게임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Q&A와 상담  
사례를 통해, 게임 뒤에 감춰진 아이들의  
심리를 꿰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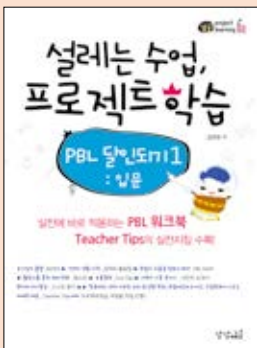
다케하라 아키코 저 \_황명섭 역  
\_ISBN 979-11-87510-03-1

‘에너지 전환이란?’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매스

탈원전을 꿈꾸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다!

에너지 혁신을 향한 선도적 국가들의 면모  
와 원전대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에너지 전  
략과 그 현상을 파헤친다.



배움의 주체,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학습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가이드북!

구체적인 학습 방법과 함께 활동지, Teacher  
Tips를 제공해 지금 바로 프로젝트학습을 진  
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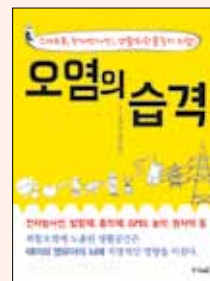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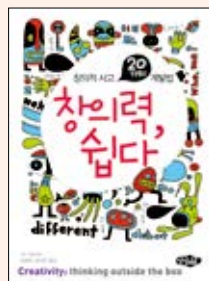
정준환 저 \_ISBN 979-89-969526-9-5



재미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그 수업과정을 한 권의 책에 쏟아냈다!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는 수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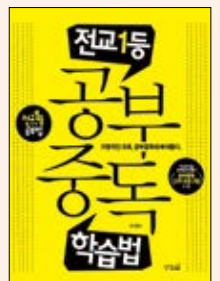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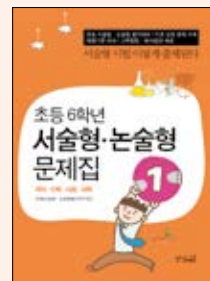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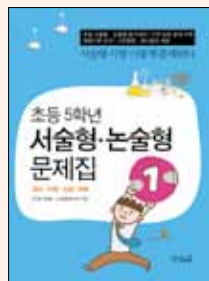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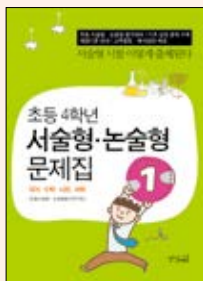
놀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축제같은 배움을 보여준다.

정준환 저 \_ISBN 979-89-969526-6-4



우리는 매일 전자방사선에 피폭되고,  
복합오염에 생활주거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스마트폰, 전자방사선, 생활화학물질!  
익숙한 것들의 위협에서 내 아이와 가족을 지키  
는 방법을 제시한다.





**수중사진**

수중사진 백과사전

수중사진의 촬영기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정리.

글/사진 구자광 · 670쪽 · 값 45,000원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수영을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과 스킨다이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육방법, 즐길 수 있는 장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글/사진 구자광 · 159쪽 · 값 18,000원



**실수로 배우는 스쿠바다이빙**

다이버의 필독서

수많은 다이버들이 겪었던 실전경험과 실수들의 솔직한 고백.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도 손쉽게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4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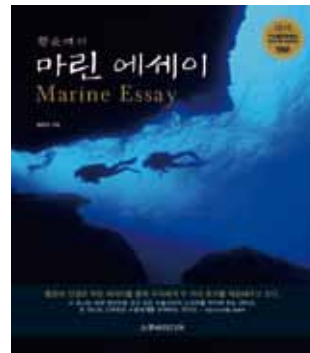
**로그북(바다일기)**

다이버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로그북. 스쿠바다이빙으로 경험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자신만의 독특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예쁘게 관찰일기를 꾸며 보자. 값 10,000원



**다이버의 수화법**

농이자들이 사용하는 수화법 이용. 수중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다이버 전용의 수화방법을 그림으로 표현. 포켓북으로 폭 9.5cm · 높이 16.5cm 두께 1.5cm · 107쪽 ·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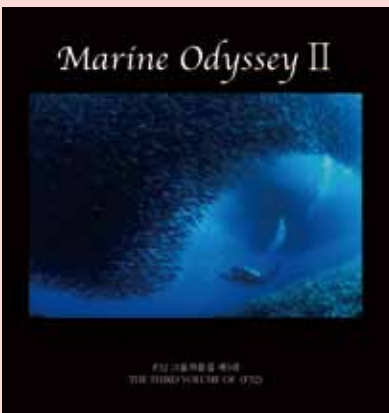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5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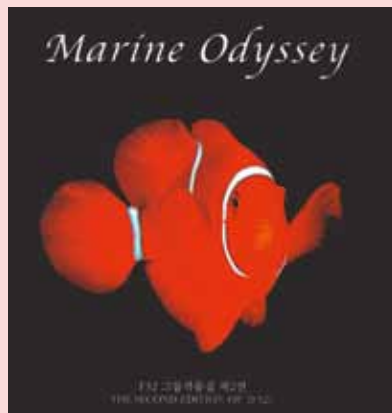
황윤태의 마린 에세이는 수중사진에 관한 에세이로 본지에 10년 이상(1~65회) 연재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이다.

글/사진 황윤태 · 값 5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3권 Marine Odyssey II**

Marine Odyssey를 이은 세 번째 공동 작품집.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한다. <F32> 공동작품집 3권은 17인이 참가하여 높은 퀄리티로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작품집이다. 글/사진 F32그룹 · 204쪽 · 값 7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2권 Marine Odyssey**

사진을 출품한 <F32>는 황스마린포토서비스의 정규 수중사진교육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F32는 렌즈의 최소조리개를 뜻하며, 샤프한 사진을 추구하지는 의미이다. 13인의 불루를 이은 두 번째 공동 작품집. 저자/F32그룹 · 135쪽 · 값 50,000원



**F32 그룹작품집 제1권 13인의 BLUE**

F32회원들의 첫 작품집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서귀포를 비롯하여 필리핀의 아날라오, 보홀, 푸에르토갈레라 등 세계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졌다. 저자/F32그룹 · 109쪽 · 값 30,000원



**다이브마스터 매뉴얼**  
경험있는 다이버의 수준을 넘어 다이빙 교육과 다이빙 업계에서 중요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이브마스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  
정역욱 지음 · 136쪽 ·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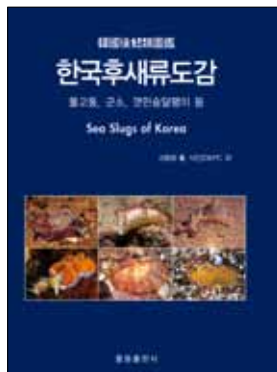
**스쿠바다이빙 백과사전 다이빙 이론과 실제**  
다이빙 입문자와 어드밴스드 다이버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교과서. 이 책을 통하여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양근택 · 268쪽 · 값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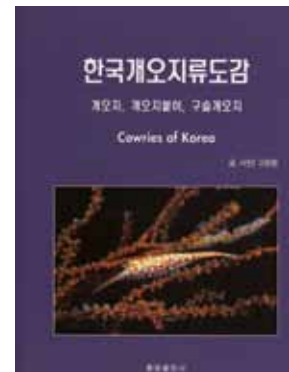
**뛰는물고기 기는물고기**  
재미있고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물고기 이야기들을 실감나는 수중 사진들과 일러스트로 소개한 책.  
최윤 지음 · 224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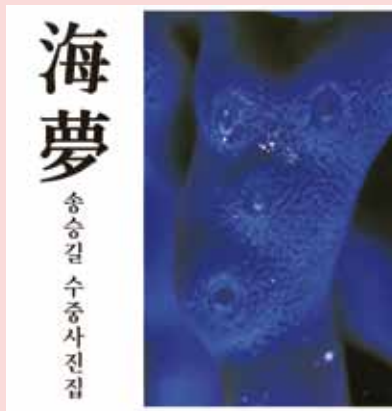
**바위해변에 사는 해양생물**  
일반인과 청소년, 해양생물을 공부하는 대학생,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생태 관찰 안내서.  
글, 사진/손민호, 홍성운 · 143쪽  
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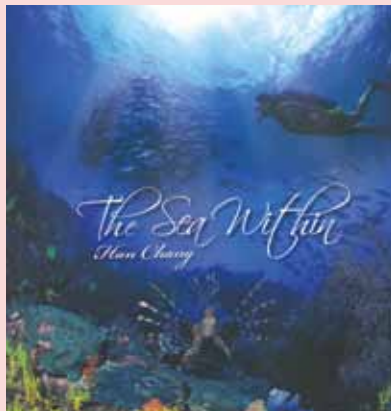
**한국후새류도감**  
1부에서는 갯민숭달팽이를 중심으로 198종의 후새류들을 600장의 생생한 수중사진으로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후새류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동범 지음 · 사진/DEPC와 · 248쪽 · 값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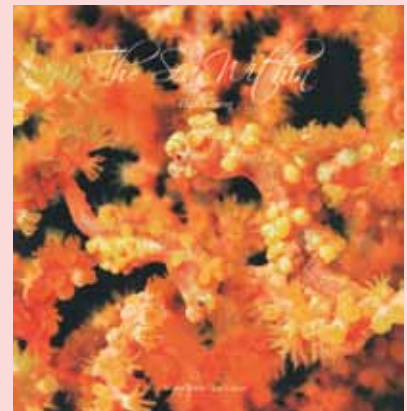
**한국개오지류도감**  
국내 서식이 확인된 개오지과 9속18종, 개오지붙이과 14속28종, 환구술개오지과2속4종, 3과 도합 50종의 개오지류가 본 책에 수록되어 있다.  
고동범 지음 · 114쪽 · 값 15,000원



**송승길 수중사진집 해몽**  
깊은 작품수준을 선보이는 수중사진가 송승길 씨의 개인 작품집으로 소장중인 수 천 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122컷을 엄선하여 제작. 작가의 바다에 대한 동경과 카메라에 대한 열정이 작품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작가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송승길 지음 · 144쪽 · 값 3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1 The sea within**  
한국의 제주, 일본 오키나와, 말레이시아 시파단과 라양라양섬, 하와이 코나 섬 등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면 영문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글부록을 추가하였다.  
글/사진 장한 · 320쪽 · 값 50,000원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 2 The sea within**  
장한 박사의 수중사진집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유명한 다이빙 여행지를 다니면서 촬영한 수중사진을 묶은 것이다. 저자가 오랜 기간 모아둔 사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신비로운 바닷 속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지난번 사진집에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글/사진 장한 · 392쪽 · 값 100,000원

# FUSION 52X THE NEW BENCHMARK



reddot award 2014  
winner



THE TURNING POINT  
IN REGULATOR TECHNOLOGY

## FUSION 52X

최상의 호흡 성능 Flow Rate Test Scuba Tools Inc.  
자연스러운 호흡 Double Curvature  
Bypass TWO IN ONE (VAD~VAD+)  
최고의 내구성 52X 1단계의 진화

[www.mares.co.kr](http://www.mares.co.kr)

**mares**  
just  
add  
water